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CHRISTIAN UNDERSTANDING OF DEATH AND ITS PASTORAL APPLICATION

written by

HO JIN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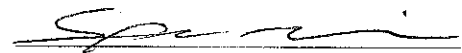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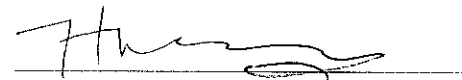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Ah Young Kim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December 24, 2013

**A CHRISTIAN UNDERSTANDING OF DEATH AND
ITS PASTORAL APPLICATION**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HO JIN KIM

DECEMBER 2013

죽음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와 목회적 적용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아 영 교수

김 호 진

2013년 12월

Abstract

A Christian Understanding of Death and Its Pastoral Application

Ho Jin Kim

Doctor of Ministry

2013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eath is unavoidable. When a person understands and deals with death properly, he or she can therefore live a more meaningful life. Christians especially must perceive death through the lens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the basis of Christian faith and hope. For this, the role of the pastor who helps them to grow spiritually is crucial.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explain a Christian understanding of death and to present its pastoral application for ministering with people in local churches.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surveys biological, psychological, sociological, and religious concepts of death. Chapter 3 establishes a Christian understanding of death based on teaching about death that appears in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Chapter 4 discusses how the church can help people to see death as the completion of life, to have proper concepts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and that of believers, and to live faithfully in this world with this eschatological faith. Chapter 5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astoral ministry concerning death. Pastors must teach both those on their deathbed and their family

members a proper Christian understanding of death in order for them to have confidence and hope in Christ. Chapter 6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Ah Young Kim,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감사의 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믿음의 열매로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대해서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신 김세운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논문을 지도해주신 김아영 교수님과 최승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격려해주신 김태석 목사님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군산영광여고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 영광학원의 이사장님이신 안이실 권사님과 김경곤 교장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현철 장로님, 손성욱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종이 있기까지 스승이 되어 주신 임진래 목사님, 한혁주 목사님,故오희석 목사님, 한홍석 목사님, 김유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과 힘이 되어준 동생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성민이와 그리고 곧 태어나게 될 둘째 아들(영민)과 아내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이 논문을 새로운 목회의 전환점으로 삼아 이 땅에서의 죽음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늘의 소망을 선포하며,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해봅니다. 오늘을 있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13년 12월 김호진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 2 장 죽음의 이해	4
제 1 절 죽음의 일반적 이해	4
1. 생물학적 죽음	5
2. 심리학적 죽음	9
3. 사회학적 죽음	14
제 2 절 발달단계에 따른 죽음의 이해	16
1. 유아, 아동기의 죽음	17
2. 청소년기의 죽음	19
3. 성인기의 죽음	21
4. 노년기의 죽음	23
제 3 절 여러 종교에서 죽음의 이해	26
1. 무교에서의 죽음	26
2. 유교에서의 죽음	29
3. 불교에서의 죽음	32
4. 이슬람교에서의 죽음	34
제 3 장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38
제 1 절 구약성경에 나타난 죽음	38
1. 죽음의 보편성과 허무성	39
2.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	40
3. 축복으로서의 죽음	42

제 2 절 신약성경에 나타난 죽음	43
1. 복음서의 죽음 이해	44
2. 바울의 죽음 이해	48
제 3 절 신학적 죽음 이해	50
1. 교부들의 죽음 이해	51
2. 교회사에 나타난 주요 신학자의 죽음 이해	54
가. 마틴 루터(Martin Luther)	54
나. 존 칼빈(John Calvin)	55
다. 칼 바르트(Karl Barth)	56
3. 예전적 죽음 이해	59
제 4 장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	61
제 1 절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태도	61
1. 그리스도인의 죽음	61
2. 죽음에 대한 태도	64
3. 교회 안에서의 죽음	67
4. 그리스도인의 부활	69
제 2 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71
1. 부활의 개념과 이해	71
2. 그리스도의 부활	73
3. 죽음을 극복하는 희망	76
4. 그리스도의 재림과 결과	79
제 5 장 목회자의 죽음 교육과 목회적 역할	82
제 1 절 죽음준비교육의 기독교적 접근	82
1.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82
2. 죽음준비교육의 목표	84
3. 죽음준비교육의 내용	85

제 2 절 목회자의 죽음에 대한 돌봄	96
1. 설교 말씀으로 돌봄	97
2. 예전을 통한 돌봄	99
3. 교회 프로그램을 통한 돌봄	102
제 3 절 임종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돌봄	120
1. 임종자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	121
2. 임종자에 대한 목회적 배려와 돌봄	125
3.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과 치유	129
 제 6 장 결론	 136
 부록	 143
 참고 문헌	 165
 Vita	 172

표 목 차

<표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 의료 권고안	7
<표 2> 에릭슨의 생애주기 발달과정 8단계	11
<표 3> 죽음에 대하여 나타내는 5가지 반응	12
<표 4> 죽음에 대한 발달론적 견해 요약	25
<표 5> 로버트 스티븐슨(Robert Stivenson)의 죽음준비교육 모델	90
<표 6> 독일의 죽음준비교육 교과 내용	91
<표 7> 우리나라 죽음준비교육 현황	94
<표 8> 퀴블러 로스의 심리적 죽음 5단계를 6단계로 한 프로그램	104
<표 9> 패티슨 교수의 죽음 공포이론	107
<표 10> 천국 준비교실	109
<표 11> 웰다잉 죽음준비교육 회기별 프로그램	111
<표 12> 전주예수병원 호스피스 활동	114
<표 13> 평화성결교회 죽음예비학교 12주 프로그램	11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죽음은 삶의 변두리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고, 삶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며 수많은 종교적 활동들을 행하면서 나름의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기에 슬픈 일이지만 대개 사람들은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로써 결코 자기 자신에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즉, 사람들은 오늘 내가 살아 있는 것을 생각할 뿐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에서 예외라고 생각을 한다. 사실 죽음이라는 생각 자체뿐 아니라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반가워하지 않고, 죽음에 관하여도 부정과 회피 속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죽음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 의학이 발전해서 인간의 수명을 현저하게 연장시켜 주었다고 하지만 인간을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가올 죽음에 대하여 그것이 자신과 관계가 없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거부하거나 먼 장래의 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자각하고 압박한 자세로 수용하고 평소의 삶을 죽음의 문제와 연결시켜 생활할 수 있는 훈련을 쌓는다면 죽음은 개개인의 삶에 신앙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중심 요지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

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면서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및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죽음을 완성하는 선물이 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결국 사람은 몸이 늙고 기운이 없어 육신이 무너져 내리면 그 몸에 담아 둔 영혼은 몸에 머무를 수 없게 되고 몸에 끝이 오면 영혼은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야 한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죽음 너머의 세계와 그 시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까닭도 이미 현실에서 저 너머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란 현재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생명 연장이거나, 현재적 생명 양태의 장소 이동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은 생명 자체인 온혜로운 하나님의 생명과의 사귄이며, 교통이자, 참여이며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의 창조됨이다.

본 논문은 언젠가는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추구할 때 인간은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한다.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 삶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넘어서 기독교적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신앙 안에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할 것인지를 제시하며 교회 안에서 목회적으로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목회적 적용에 관하여 기술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인간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기독교적 죽음의 이론들을 죽음 교육과 관계된 여러 학술논문과 도서와 여러 자료들을 기초로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통해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발달단계로 인식하는 죽음에 대해 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죽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 나아가 죽음의 이해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각 종교의 죽음 이해를 통하여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다루고자 한다.

3장은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타나있는 죽음의 내용들을 통해 기독교적 죽음의 올바른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가서 교회사에 나타난 주요 신학자들의 죽음 이해에 대해서 논의하고, 교회의 예전에서 죽음에 관한 이해를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통하여 장차 찾아올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올바른 부활의 개념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보다 낮게 살아가게 하고, 보다 충실한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5장은 목회자의 죽음에 대한 교육과 목회적 역할은 임종자뿐만 아니라 유가족에게도 해당되며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인격을 지니고 살아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언급할 것이다. 목회자에게 죽음에 대한 교회 사역은 임종자와 유가족을 돌보는 일에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임종자에게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심어 주어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일과, 유가족에게는 사별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서 남은 삶을 성숙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일은 매우 귀한 사역임을 조명하고자 한다.

6장은 결론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한 후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목회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 할 것이다.

제 2 장

죽음의 일반적 이해

죽음이란 보편적인 인간현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사람, 시대,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또한 개인의 가치관, 철학, 삶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¹⁾ 따라서 다양한 입장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어떤 의미로서의 죽음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이해와 목회적 접근도 달라질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다양한 죽음의 이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죽음의 일반적 이해

죽음의 대한 이해의 특성은 인간의 삶에 절망과 부의미와 같은 무력감을 부여하는 반면, 제한된 삶에 대한 인간의 애착을 극대화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죽음은 죽는 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이며, 죽음에 대한 인간의 의문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²⁾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은 삶의 과정 속에서 배제될 수 없으며 삶의 과정 속에서 생각되어야 하며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죽음의 일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와 심리학적, 사회학적 죽음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임진옥, “죽음 준비 상담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8), 8-9.

2) 박석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 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2, 68-80.

1. 생물학적(의학적) 죽음

죽음의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의학적인 죽음이다. 과거에는 호흡정지, 심장박동의 정지, 피부색의 변화, 근육의 이완과 경직이 죽음의 지침이었지만,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비록 뇌가 정지되었다 하여도 심폐기능의 조력으로 호흡이나 심장박동 등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의학적인 죽음의 정의는 보다 어려워졌다. 따라서 죽음을 선언해야 하는 의사의 결정이 곤란해져 심폐기 같은 연장기능을 언제 제거할 수 있는냐는 문제가 법학적인 논점으로 대두되었다.³⁾

고대인들도 현대 의학에 중요한 사망진단의 지표인 심장박동과 호흡의 정지되는 것을 죽음의 지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비록 호흡과 심장박동에 대한 고대인의 믿음이 잘못된 생각이지만, 삶의 소멸을 호흡과 심장박동의 정지로 본 견해는 오늘날 의학사 전에서도 널리 인정되어 있는 사망기준이다. 최근 사망기준인 뇌의 활동정지 즉, 뇌의 사망을 추가하고 있음이 다를 뿐이다.⁴⁾

죽음에 관한 정의들을 보면, 대한의학협회(1983)의 죽음의 정의는 심장기능 및 호흡기능과 뇌사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소실을 죽음이라고 하였다. 웹스터(Webster) 사전에 정의된 죽음은 ‘동식물에 소생의 가망성이 없는 모든 생체기능의 영구적 정지, 생명의 종결, 죽는다는 사실이나 행동 및 과정이라고’ 하였고 ‘임종은 생명이 끝나는 것, 죽음이 임박하는 것, 점차 소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생할 수 없는 삶의 영원한 종말’이라 정의하였다.⁵⁾

인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지탱하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할 때 생명기관은 뇌, 폐, 그리고 심장으로서 이중 어느 하나의 기능 상실도 죽음과 직결된다. 따라서 뇌, 폐 및 심장기능의 상실은 곧 인간의 죽음을 판정하는 의학적 규정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적 바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나라마다 죽음에 대한 의학적 세부 규정은 조금씩 견해를 달리한다.⁶⁾

예를 들어 뇌사설은 뇌기능의 영구적 정지를 인간 죽음의 최종 판단 기준으로 보는 입장이다. 뇌기능 정지는 심폐기능 정지와 같이 엄밀한 의미의 개체의 전체 사

3) 배영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죽음의 세계* (서울: 교문사, 1997), 358.

4) 김일순, *의료 윤리* (서울: 연세대 출판부, 1987), 131.

5) 서혜경, *노인죽음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경춘사, 2009), 24.

6) 김의식, “죽음과 사후의 삶에 대한 실천신학적 접근,” *플랫폼*, 1997년 12월호, 150.

이전에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체로서의 생체가 죽음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다시 회생시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분기점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객관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⁷⁾

뇌는 어떤 질환이나 외상으로 말미암아 뇌의 기능이 장애를 받기 시작하여 점차로 상실되어 가면 그 사람은 의식을 잃어 혼수상태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자발 운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자발 호흡까지도 못하게 되나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체 중후인 맥박, 혈압, 호흡, 체온 등이 유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고 또 그 상태가 어떤 치료 노력을 다하여도 회복되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되었을 때를 가리켜 뇌사라고 한다. 즉, 뇌사란 전 뇌의 모든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상실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⁸⁾ 이에 대해 1983년 대한의학협회에서는 뇌사의 판단기준을 “외부의 자극에 반응이 없는 혼수상태, 호흡이 정지된 상태, 모든 뇌반사의 손실 등의 상태로 12시간 이상 경과된 경우”⁹⁾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뇌사 판정 기준은 전문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뇌사설은 장기 이식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죽음의 품위의 문제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처럼 품위 있는 죽음과 뇌사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뇌사는 점점 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추세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흐름이 의학에서의 삶과 죽음 사이의 구분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¹⁰⁾

다시 말하면, 과학적 견해로서의 의학은 아직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일치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의학에서는 죽음을 비인격적인 과정으로 규정하므로 죽음의 의미라든가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다. 죽음을 비인격적인 현상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한 생물체의 사라짐 같은, 전혀 영장으로서의 인간적 고유성이 담겨지지 않은 단순한 현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말한다.¹¹⁾

한편 최근에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13년 7월 31일 산하의

7) 배영기, *죽음학의 이해* (서울: 교문사 1992), 33-34.

8) 김대동,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죽음의 의미와 상담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5), 14.

9) 박승균, *호스피스 철학*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4), 167.

10) 김대동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죽음의 의미와 상담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15.

11) 김종은, “죽음의 정신의학적 고찰,” *사북*, 1980년 7월호, 53.

특별위원회가 6개월에 걸쳐 마련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권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임종 기간만 늘리는 의료를 환자의 뜻에 따라 중단하는 연명 의료 환자 결정권이 법으로 정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권고안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바탕으로 환자가 임종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스스로 분명히 알고 결정할 권리와 의료진은 이를 위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그리고 정부와 사회는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음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했다.

<표 1>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명 의료 권고안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 의료 권고안¹²⁾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 의료 권고안	
연명의료대상	
대상 환자의 조건	회생 가능성이 없을 것 질병 원인을 치료하는 데도 반응하지 않을 것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을 것(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는 제외)
대상의료의 종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통증 조절, 영양 공급, 물 공급 등 일반적인 연명 의료는 제외)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음	치료 직전에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 의료 계획서(POLST) 사전의료의향서(AD, 생전 유서 포함)와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사	확인방법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음	사전의료의향서와(AD) 의사 2명의 확인 가족 2명 이상의 진술과 의사 2명의 확인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음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명의 확인 적법한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의 결정과 의사 2명의 확인 (대리인이 없을 경우)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

<표 1>에 나타난 권고안에 따르면 연명 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해당한다. 환

12)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

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는 담당의사 1명과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하도록 했다.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는 그 범위가 넓고 안락사 조장 위험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환자의 뜻대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처럼 전문 의학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특수 연명 의료에 국한되며, 단순한 영양,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연명 의료를 중단할 지에 대해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이성적 판단이 가능할 경우에는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것을 권유했으며, 미리 작성해 둔 유서나 ‘사전의료의향서’도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봤다.

반면 환자가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뜻과 일치하는 진술을 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의사 2인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도록 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정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할 때는 환자의 적법한 대리인이나 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병원 윤리위원회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환자 뜻을 확인하거나 추정하기 힘들어 가족 등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김성덕 위원장은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치료 중단 외에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스템이 탄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안을 내기로 했다.¹³⁾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은 과학과 의학이 최고로 발달한다고 하여도 인간의 지상적, 육체적 생명의 종식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비록 의학의 발달과 기타 환경의 개선에 의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몇 십 년 길어지고, 수술 및 진료의 성공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질병에서 회복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죽음의 일시적 집행유예일 뿐이지 결코 ‘인간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맞이할 것인가, 혹은 다른 측면에서라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과제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여전히 관심의 대상으로

13) 보건복지부 <http://media.daum.net/>

등장하는 것이다.¹⁴⁾

오늘날 모든 과학은 다만 물질세계의 제한된 견해에서 고찰하여 육체적 감각을 통해 오는 증거만을 논구할 뿐, 물질과학은 죽음에 관하여 소멸 이상의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감각할 수 있는 것만 취급하기 때문이다. 물질과학이 죽음에 대한 질문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깊은 침묵뿐이다. 그렇듯 의학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인간의 생물학적 죽음을 한정된 시간 동안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뿐이다.¹⁵⁾

결론적으로, 생명의 연속성을 늘리고자 하는 의학적 헌신의 결과는 살아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에 국한되지 죽은 사람에게는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의학적 노력의 좌절과 패배는 죽음이라는 숙수무책 앞에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으로 노정시킬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2. 심리학적 죽음

행동에 대한 실험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논리적 실증 철학이 심리학의 과학적인 연구들을 주도하여 왔기 때문에 1950년대 이전까지 죽음은 심리학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의 연구로부터 사실상 배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1950년대를 전후로 파이프를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파이프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학자들은 죽음이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이 아닌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철학, 생리학, 의학, 정신의학, 정신분석, 종교, 문학 등의 지식을 심리학에 도입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죽음을 연구하는 경향을 낳게 되었다. 또 죽음을 내세나 영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변적, 관념적으로 다루는 철학분야와는 달리, 심리학 분야에서는 죽음을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중대한 위협, 위기상황, 스트레스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이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¹⁶⁾

심리학자들은 죽음이 인간에게 어떠한 현상으로 드러나는지 어떤 본능으로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프로이드는 인간 유기체를 복잡한 에너지 체계로 생각하였다. 특히 본능을 유기체를 움직이는 원천적인 힘이라고 가정하고, 인간의

14) 김외식, “죽음과 사후의 삶에 대한 실천신학적 접근,” 57.

15) 이일철, *죽음의 윤리* (서울: 문지사, 1983), 70.

16) 이이정, *죽음학 총론* (서울: 학지사, 2011), 32.

생각, 감정, 행동을 설명하는 수많은 본능들을 두 가지로 단순화하였다. 삶과 사랑, 활동을 지향하는 에로스(eros)라는 본능, 그리고 정지와 죽음을 지향하는 타나토스(thanatos)라는 본능이 그것이다. 죽음과 관련하여 프로이드가 제안한 죽음 본능 이론은 여덟 가지 가정에 기초하여 인간의 발달을 두 본능간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다. 즉, 에로스는 우리를 영원히 앞으로 성장하게 하는 반면, 타나토스는 우리를 영원히 무생물 상태와 같은 긴장 상태의 감소로 몰고 간다. 그런데 이 정반대되는 두 가지 충동은 서로 협력적이다. 즉, 발달과 욕구 충족을 향한 유기체의 충동은 왕성한 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로스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타나토스의 공격적인 에너지를 요구하게 된다. 정상적인 발달에서 자기 파괴성을 향하는 본능적 충동은 다른 사람을 포함한 외부 세계로 향하는 공격적 행동으로 전환되기도 한다.¹⁷⁾ 프로이드는 공격적 성향으로서의 죽음 본능 개념을 가지고 전쟁과 자살, 살인 등을 설명하고 있다. 만약 공격성과 분노를 표현하는 외부적 통로가 차단될 때, 이러한 공격성은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자살로 이어진다. 또 이것이 나 자신의 대용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경우 살인이 되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문명화된 사회가 다른 사회로 공격성을 표출할 때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대규모 죽음 본능의 표현인 전쟁은 인간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만드는 것으로 방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로스가 타나토스에 대해 완벽한 대항 세력이 되는 것이다.¹⁸⁾

그러나 프로이드의 죽음 본능 이론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임상적 상황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론 자체가 지나치게 비관적, 결정적, 환원적, 과거 지향적, 이론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¹⁹⁾

반면, 프로이드의 추종자였던 칼 융은 인간의 출생이 의미가 있듯이 죽음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즉, 인생은 어떤 궁극에로의 준비로 보통 인간은 인생의 상승기를 거쳐 정상에 이르면 멈추어 서는데, 이는 바로 죽음이며 죽음은 자기실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²⁰⁾ 이에 비해 에릭 프롬은 인간에게는 삶을 사랑하는 인간형과 죽음을 사랑하는 인간형이 있음을 강조하며 그 특징적인 심리구조를 설명하였다.²¹⁾

17) 이이정, 죽음학 총론, 46.

18) Ibid.

19) Ibid.

20) 이부영,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1998), 172-173.

21) 김인자, 죽음에 대한 심리적 이해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1984), 9.

또한 에릭슨은 사람의 발달과정 주기를 8단계로 분류하였는데, <표 2>는 에릭슨이 주장한 8단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에릭슨의 생애주기 발달과정 8단계²²⁾

사회심리 갈등	시기	덕목	악덕목	영향을 주는 관계	사회심리적 양태
기본적 신뢰: 불신	유아기(1년)	희망(hope)	탐식 (gluttony)	어머니	얻으려함 (getting)
자율성: 수치와 의심	전기아동기 (2-3년)	의지(will)	분노(anger)	부모	잡고(holdin g on) 보냄 (letting go)
주도성: 죄책감	놀이기 (4-5년)	목표 (purpose)	탐욕 (greed)	가족	추구(go afterthings) 오디프스
근면: 열등감	학령기 (6-11년)	능력 (competenc e)	시기(envy)	학교	만들 (making things)
정체성: 정체성혼란	청소년기 (12-20)	충성 (fidelity)	자만심 (pride)	동료그룹	자신이 됨(being oneself)
친밀감: 소외	초기성인기 (21-34)	사랑(love)	정욕(lust)	결혼상대자, 친구들	자아상실(남 과 나눔) Losing oneself
생산성: 침체	성인기 (35-60)	돌봄(care)	무관심(indif ference)	자녀, 젊은이	돌봄(taking care of)
통합: 절망과 혐오감	노인기 (60-)	지혜 (wisdom)	우울(melanc holy)		살아있는 전통(to be, through having been)

에릭슨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인생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분류하고 그 중
에서 마지막 단계를 자아통합과 절망의 위기로 보았다. 이 시기에는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인생을 마무리 짓는 독특한 해결방법이 제시되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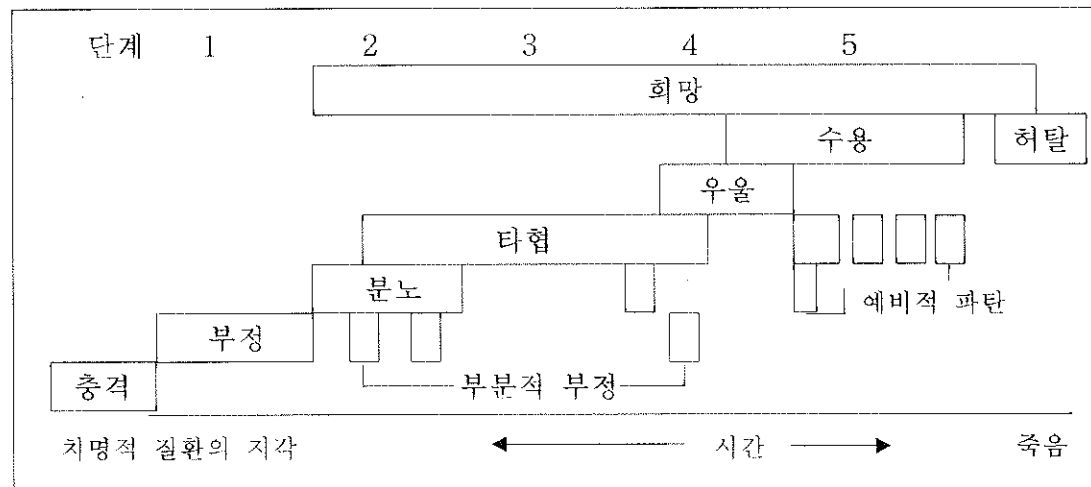
22) 충신대학교 사회교육원 <http://blog.daum.net/bltch/>

에릭슨의 이론에서 제시된 자아 통합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수용하고 두려움 없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자아통합의 성취는 인생의 의미를 파악한 후 일생 동안의 갈등과 실패, 그리고 실망을 자아 속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자아통합은 심리 사회적 성장의 최고점이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서 피라미드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자아통합을 성취한 개인은 그의 인생이 만족스러웠고 의미 있었다고 그대로 수용하고 평가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사건을 통합하고 현재의 결과에 만족하게 된다.

대조적으로 심리 사회적 위기를 부정적으로 해결한 사람은 절망감에 빠진 그들의 인생은 낭비되었으며, 성취하려고 노력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다가온 죽음을 조용하게 수용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타인을 원망하면서 우울증의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성인초기에 이르면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주는 죽음의 영향을 고려하기 시작하고, 죽음에 대한 지각은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히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심리적 죽음의 단계는 죽음의 심리적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데 큰 의미를 주고 있다. <표 3>은 죽음에 대하여 나타내는 5가지 반응을 표로 담고 있다.

<표 3> 죽음에 대하여 나타내는 5가지 반응²⁴⁾



23) 배영기, 죽음학의 이해, 334.

24) 이호선, 노인상담 (서울: 학지사, 2005), 325에서 재인용.

<표 3>에서 보여 주는 것은 첫째, 부정과 고립의 단계이다. 죽음에 대한 처음 나타나는 공통의 반응은 부정 또는 고립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선포에 대해 자신에게는 일어날 리가 없는 일이라거나 진단과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부인한다. 부정은 충격과 같으며 하나의 전환적 방어로 이어진다. 이는 개개인의 재정, 끝나지 않은 과업, 유가족들을 위한 정리와 같은 문제들과 직면했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점점 더 받아들이게 되는 것으로 바뀐다.

둘째, 분노의 단계이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은 죽음을 부정하는 것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분노, 분개, 격노, 그리고 부러움이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죽어가는 사람은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주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의 분노가 의사, 간호원, 병원 의료진, 가족구성원, 그리고 하나님께 전이되고 투사되기 때문에 점점 더 환자를 보살피는 것이 어려워진다.

셋째, 타협의 단계이다. 환자는 죽음이 연기되거나 늦추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어떤 환자는 죽음을 늦추고자 잠시 동안 타협 혹은 협상(종종 하나님과)의 기간을 가지기도 한다. 심리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거나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생활을 택함으로써 개혁된 삶을 살아가는 대가로서 단지 몇 주, 몇 달, 몇 년을 연장하려고 노력한다.

넷째, 우울의 단계이다. 죽어가는 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죽음의 마지막 분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슬퍼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구체적인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울과 예비적인 슬픔이 나타나기도 한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는 종종 조용하고, 방문자를 거절하고, 울거나 슬퍼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는 죽어가는 사람이 분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다. 이 단계의 환자들은 그들 자신의 죽음,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의 상실, 이전의 만족감과 안녕감의 상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의 상실에 대해서 슬퍼한다.

다섯째, 수용의 단계이다. 죽어가는 사람이 노여움과 절망과 같은 초기의 느낌을 다루고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할 수 있을 때에 도달할 수 있다. 환자는 안도감, 운명에 대한 독특한 수용, 그리고 많은 경우 혼자서 있고 싶어 한다. 죽어가는 사람은

이제 개인적인 일을 성취했고 죽음과 나 자신 등과의 싸움은 끝났다는 감정을 가진다. 이 단계는 감정이 결여된 상태로 신체적 통증과 불편이 종종 없어진다.

퀴블러 로스는 이 단계를 긴 여행을 떠나기 전 그리고 투쟁의 끝에 이르기 전의 마지막 단계로 묘사한다. 그는 또한 죽어가는 과정은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²⁵⁾ 그러나 퀴블러 로스에 의해서 기술된 심리적인 다섯 단계를 모두 거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개인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처럼 심리학적 죽음 이해는 인간이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성과 심리구조를 통해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죽음의 존재임을 자각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3. 사회학적 죽음

일상생활에서 죽음에 대한 대화를 하거나 죽음 관련 연구를 할 경우 우리가 한 마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서로가 지칭하고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죽음과 비슷한 상태를 우리는 한 묶음으로 '죽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사회학적인 죽음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인식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말로,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죽은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혹은 인간 이하로 인식될 때,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한다.²⁶⁾

모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 누구도 사회를 떠나서 홀로 살아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죽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다 그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인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적인 죽음과 사회적인 재탄생이 있다.

먼저 사회적인 죽음을 보면, 인간이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사회적 죽음이라고 하는데 육신은 살았지만 마음이 멸한 상태를 말한다.²⁷⁾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질병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심한 좌절감과 공포를 겪게 되고 크나큰 위협을 받게 된다. 사회활동이 왕성했던 사람일수록 그 충격은 더욱 크다 하겠다. 개인적으로

25) 서혜경, *노인죽음학 개론*, 25-28.

26) 이이정, *죽음학 총론*, 20.

27) 김문조, "사회적 죽음에 이르는 실적 사태," *사북* (1998), 90.

도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생물학적으로 실제적인 죽음보다도 사회적인 죽음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²⁸⁾

특히,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라는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미치는 영향이란 개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인, 자녀, 부모, 친척, 더 넓게는 그가 속해있던 직장이나 다른 사회 공동체까지 아주 넓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는 의료보험제도와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 여러 가지 보장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죽음에 이어서 사회적인 재탄생을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 사회적인 탄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재탄생은 죽음을 앞둔 당사자에게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다. 죽음을 앞둔 환자는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을 이제 환자로서 하게 된다. 환자가 머물러 있는 병원이라는 사회기관은 환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 자신이 병을 얻기 전에 활동했던 사회에서는 퇴출되지만 병원이라는 사회에 종속됨으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럼으로 사회적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사회적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탄생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탄생은 꼭 죽음을 앞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생명활동이 멈추게 되면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사체를 처리해야 하는 관계가 형성됨으로 완전히 사체가 처리되기까지는 사회적으로 죽었다고 말할 수 없다. 단지 병원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사체를 처리해 주는 장례를 주관하는 사회의 새로운 구성물로 역할이 변화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사회학적으로 인간의 죽음을 보았을 때 인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직 인간에게 있는 것은 역할의 변화이다. 사회의 관계성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어쩌면 인간은 사회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 사회에서의 역할을 할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의 활동범위는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고 나중에는 자신의 묘지로 축소되고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 축소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28) 천선영, "근대적 죽음이해에 대한 유형적 분석," *카톨릭 사회과학연구* (2000), 20.

그러므로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지 오래 되었어도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죽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어느 인물의 탄생일이 국경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인물은 사회적으로 불멸을 획득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²⁹⁾ 하지만 그 인물을 기억하고 있는 사회가 사라진다면 획득되었던 불멸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자신이 살았던 사회와 그 운명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부여하는 것이 우리 문화 속에서는 조상숭배로서의 제사이다. 한국인은 유교의 영향과 무교의 영향으로 조상을 신처럼 숭배해왔다. 그리고 사후에도 후손들이 돌보게 함으로 죽음을 유보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일종의 죽음을 부인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유보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한 죽음의 공포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계속해서 죽은 조상을 가족의 일원으로 섬기는 것은 유교의 효 사상으로 절정에 다다랐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인 죽음이 주는 공포는 삶의 의미의 문제이다. 아직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고 하는 공포, 남겨질 가족에게 부담만 주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데서 오는 공포, 지나온 삶의 모습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함으로 오는 공포, 사회로부터 퇴출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기타 등등 다양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공포는 노인의 자살, 실직자의 자살, 성적비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 등으로 절말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종교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사회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기독교적인 죽음의 이해와 해석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목회적 접근과 돌봄이 필요하게 됨을 인식할 수 있다.

제 2 절 발달단계에 따른 죽음의 이해

우리가 흔히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생물학적으로 노화를 빼놓을 수 없다. 사람이 노화가 되는 과정은 보편적인 특징이고 노화한다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 서서히 이별을 하게 된다. 그러나 노화로 인하여 오는 죽음이 아닌, 요즘 아이들은 죽음

29) Barley Nigel, *죽음의 얼굴*, 고양성 역 (서울: 예문 2001), 191.

을 쉽게도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집할 기회가 없이 성장한다. 죽음은 삶에서 가장 분명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게임, 영화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은 인간이 외로움, 소외감, 단절감 등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 쉽게 자살이나 살인 등을 생각하게 하며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만든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도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국어, 영어, 수학 등에 집중하여 정작 감성, 두려움, 고통, 희망과 같은 정서적이며 철학적인 면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³⁰⁾

이에 본 절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해와 돌봄이 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확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발달단계의 죽음에 목회적으로 어떠한 돌봄이 필요한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유아, 아동기의 죽음

유아의 죽음 개념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은 유아가 죽음의 개념을 이해하고 죽음의 개념을 발달시켜 나가는 데는 연령과 발달의 정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이해 양상에 따라서도 아동의 죽음에 대한 이해력은 달라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³¹⁾

피아제의 인지발달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이해하는 발달 과정을 연령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보면, 첫 단계는 3-5세 이하의 단계로,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이 시기의 유아들은 죽음을 단순히 꿈을 꾸듯 잠을 잔다거나, 또는 어디론지 멀리 여행을 떠나는 정도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 시기의 유아들에게 있어 죽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잠깐 정신을 잃고 쓰러져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을 의미한다.

둘째 단계는 5-9세로 이 단계는 죽음을 구체화함으로써, 죽음은 현실세계와 분리된 세계로 떠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피아제의 발달과정에서 전조작기적 사고의 특성을 보이는 7-8세 아동들은 죽음이 보편적이며, 피할 수도 없으며, 되돌릴 수도 없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전조작기 아동들은 죽은 사람이 단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 갔을 뿐 그들이 살았을 때와 같은 생활을 한다고

30) 서혜경, 노년죽음학 개론, 18.

31) 임진옥, “죽음 준비 상담교육 연구” (박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2008), 64.

생각한다. 또한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처럼 구체적인 욕구, 감정, 그리고 경험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 죽음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한다. 전조작기에 있던 아동들도 9살 정도까지는 죽음의 종결성과 보편성, 둘 다를 깨닫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9-10세로 이 시기의 아동들은 비로소 죽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죽음은 인간의 삶의 마지막일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한다. 9세 이상 되면 죽음을 명확히 이해하며 슬픔을 느끼는 것도 어른과 흡사하며 죽음은 불가피하며 끝이고 복귀불가능하고 보편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발달되는 시기이므로 어른과 유사하게 생각하나 때로는 기적, 마술 같은 것을 상상한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 엄마가 죽으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할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나를 돌보아 줄까? 하는 걱정을 하며 가족을 잃은 후에 방치, 격리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누가 돌보아줄 것이라는 확신과 안심을 시켜야 하며 아이들이 잘못된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³²⁾

또한 죽음에 대한 아동의 이해력은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 못지않게 죽음에 대한 경험 횟수가 중요하다. 약 7세경에 죽음의 대한 개념이 획득된다고 볼 때에 이는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전환되는 시기와 일치하며, 이것은 아동들이 보다 논리적인 사고를 소유하기 전에 죽음에 대한 개념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에 못지않게 죽음의 경험 횟수가 중요한 것이며 연령 및 인지발달 수준과 죽음과 관련된 경험요소 간에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³⁾

사실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나이 어린 자녀들과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회피하고 꺼리는 성인들의 태도는 성인자신과 아동에게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유아의 경우에는 죽음을 다루기 전에 상실의 경험이나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 등을 시작으로 생활 속에서의 작은 죽음들에 대해 점차 다루어야 하고, 아동기 후기에는 죽음을 좀 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토론하고 다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2) 서혜경, 노인 죽음학 개론, 34

33) 이정희, “개념형성 및 그 중재효과에 관 아동의 죽음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88), 15.

죽,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최선을 다하여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벌이나 나비의 생명주기를 배우면서 인간의 생애를 자연스럽게 다루거나 가족과 인간의 심리에 대해 배우면서 탄생, 성장, 노화,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함께 다루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³⁴⁾

그러므로 나이에 따라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층의 어린이에게 공개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관계없이 어린이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돌봄을 받는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2. 청소년기의 죽음

죽음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미래의 태도 확립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급기시되는 사회는 삶의 인식과 이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기에 미국의 많은 대학과 고등학교에서는 죽음에 관한 교육이 정규 과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는 ‘죽음에 관한 교육 및 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며 청소년들은 죽음이 본인 스스로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죽음에 대한 의식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지만 자살의 충동을 제일 많이 느끼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이 죽음을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인식과 또 성인들이 가끔 그들의 생활 속에서 생의 위기로서 부분적인 죽음의 현실을 접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죽음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³⁵⁾

청소년기는 이성발달에서 중요한 시기로 타인에의 심리, 사회적 의존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시기이면서, 자신 안에서 정체성으로 여러 가지 측면들을 통합해야 하는 시기이다. 피아제의 이론에 의하면,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개

34) 남은영, 장연집, “아동의 죽음 불안 감소를 위한 죽음대비교육의 효과,” *아동학회지* (1999), 217-230.

35) 김미령, “청소년이 인식하는 죽음에 관한 주관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2007), 15.

념들을 다룰 수 있게 되어, 일련의 복잡한 진술들 간에 서로 대응하거나 함축되는 관계들을 인식할 수 있으며, 비유를 이해할 수 있고, 가정들과 추론들을 만들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지와 정서면에서 상당한 발달을 이루는 시기이다.³⁶⁾ 또한 청소년들은 죽음의 특징이 무엇이고, 죽음 이후의 존재는 무엇인가와 같이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며 어떤 청소년들은 종교적 믿음보다 더 깊고 추상적인 수준으로 종교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³⁷⁾

청소년기의 특성상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에서 완전히 성숙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청소년기의 자아 중심성 때문에 그러한 죽음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³⁸⁾ 청소년들은 죽음이 노인들의 문제이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지만 자살의 충동을 제일 많이 느끼는 세대이다.³⁹⁾ 정서적인 면에서 불안과 좌절이 빈번하고 감정의 기복이 큰 만큼 청소년기 죽음에 대한 관념은 상당히 불안정해 보인다.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기 보다는 삶에 과도한 저항과 불안감이 죽음에 대한 의도적인 기피로 드러난다. 때로는 죽음을 넘어서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표출하지만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다. 아름다운 것, 낭만적인 것, 영원한 사랑 등으로 죽음을 미화한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용감한 병사가 되며, 강하고 병예롭게 되는 데에 열중한다. 실제로 이러한 행동들은 죽음에 대한 왜곡된 감정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것은 이들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인생의 의미에 더욱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실현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태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⁴⁰⁾

청소년들이 죽음에 대하여 막연하게 의식하고 있는 낭만적이고 허무적 태도는 결국 인생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유약하게 만든다. 자살하는 사람들 중 많은 경우 반드시 죽기 위해 시도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이나 혹은 자살이라

36) 임진옥, “죽음 준비 상담교육 연구,” 70.

37) 유현진, “고등학생의 죽음태도 및 학교에서의 죽음준비교육”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15.

38) 조계화, 이윤주, 이현지, *죽음학 서설* (서울: 학지사, 2006), 221.

39) 이재영,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 연구* 19집, 42.

40) 임진옥, “죽음 준비 상담교육 연구,” 71.

는 사건을 통해 타인을 조종하려는 하나의 수단일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자살 시도자는 자살자의 8배에 달한다.⁴¹⁾

인간은 죽음 앞에 여러 가지 심리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은 이에 적절히 대처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으로서의 권리임을 알게 하고 당연하고 평화로운 감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²⁾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이해와 준비교육은 죽음에 집착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국면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죽음 준비교육은 죽음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삶의 교육이다.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죽음 준비교육을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새롭게 생명의 소중함과 생의 의미를 재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성인기의 죽음

성인초기의 죽음의 이해는 청소년기와 달리 죽음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죽음에 직면할 때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정서적 반응을 나타낸다. 일상적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관심은 주로 자신의 죽음보다는 타인의 죽음과 관련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실제적 지각은 이처럼 성인기에서 가능해진다. 개인적 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청년들은 인생의 의미와 필연적인 죽음, 그리고 죽음 후의 영생의 가능성을 탐구하게 한다. 자기 자신의 독특함과 중요성에 몰두해 있는 청년들은 죽음에 대해 강한 공포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자기를 중요시하고 자기에 몰두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청년기에 획득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년기에 들어서면 주변의 죽음을 경험하는 횟수도 잦아지고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체감하면서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접촉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부모의 죽음, 배우자, 동료, 친지 등의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죽음과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준다.⁴³⁾

41) 문영석, “해와 죽음학의 동향과 전망,” *종교연구*, 301.

42) 임진옥, “죽음 준비 상담교육 연구,” 71.

43) 임진옥, 73-74.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에서 젊은 성인기의 발달은 친밀감과 고립감 사이의 갈등으로 대표된다. 이 단계는 사랑과 우정,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연결과 가입을 포함하는 여러 형태의 헌신과 상호작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 발달단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그 어떤 단계에서 보다 영향력이 클 가능성이 있다. 성인중기의 발달과업은 생산성 대 침체와 관련된다. 이 발달단계에 있는 보통의 성인들은 자신이 보살피야 하는 사람, 사물, 생각들을 돌보기 위해 헌신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 시기에 배우자의 죽음, 자녀의 죽음, 부모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갑자기 현실감을 띠게 된다. 즉, 실제생활에서의 두려움이나 생시에 잃고 싶지 않은 무엇이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나게 된다. 성인기에 생산성 대 침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따라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자신의 인생을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생각하며 다가올 죽음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⁴⁴⁾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한다면 중년기는 여름에서 가을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정신적, 신체적 변화에 유념하게 되고 불안을 느끼는 연령이다. 생산과 수확의 시기인 중년에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는 다가오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좌절 체험을 지닌 사람이나 상사와 동료 그리고 배우자의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죽음 준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중년기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의해서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이 시기에 왕성한 사회활동과 생산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사회적 지위나 사회관계에 있어서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는 보다 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체감한다고 여겨진다.⁴⁵⁾

사회적 지위나 생산성 수준에 따라 중년기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은 중년기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나 노년기의 죽음 이해 수준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중장년에 해당하는 시기의 죽음 이해 수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것은 이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지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포괄하는 공통적인 죽음의 관념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⁴⁶⁾

44) 유희옥, “중노년기 죽음불안태도” (박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04), 20.

45) 임진옥, “죽음 준비 상담교육 연구,” 75.

46) Ibid.

그러므로 성인들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죽음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인 죽음의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노년기의 죽음

인간의 발달단계 중 죽음에 가장 근접해 있는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이것은 다른 연령층보다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발생을 가속화시킨다.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더 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노년기에 더 뚜렷이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가 임박한 죽음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특별히 노년기에는 친구, 배우자, 친지 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화과정에서 경험하는 상실과 죽음에 대해 올바른 태도와 대처 전략을 갖도록 하는 것은 모든 노인들에게 중요한 과제이며 노년기의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노년기에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준비를 갖추는 것은 성공적인 노화의 필수조건이다.⁴⁷⁾

노년기에 죽음에 대해 더 많은 생각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년이 되어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오히려 노년기에 죽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생활이 바쁜 사람은 죽음을 인식할 틈이 없다.⁴⁸⁾ 노인들의 죽음 불안이 젊은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를 정리해보면, 첫째로 충분히 살았기 때문이며, 둘째로 타인들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도 사회화 과정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며, 셋째로 자신의 생명이 젊은이의 생명보다 값어치가 덜하다는 생각 때문이다.⁴⁹⁾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과정에 따른다면, 노년기 죽음에 대한 불안은 개인의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관련이 있다. 자폐적인 자아의식이나 사회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노화는 곧 죽음과 소멸의 과정으로 간주되어 두려워하게 되지만,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수용하고 사회관계 속에서 자아관이 확고하게 된 경우에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라기보다는

47) 현은민, “노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연구지*, 40.

48) 임진옥, “죽음 준비 상담교육 연구,” 76.

49) Ibid., 77.

죽기 전까지의 노화과정과 고독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본다.⁵⁰⁾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은 실제로 죽음에 직면하거나 임박했다는 점이다.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의해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경우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이다. 분노, 우울, 저항, 도피 등의 감정적인 동요를 복합적으로 경험하면서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은 당연히 죽음과 자신의 붕괴라는 불가피한 현상을 자각하며 죽음에 대하여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 이때에 노인이 인식하는 죽음의 의미는 생명현상의 중지이고 가시적 현상의 사라짐이며 현상 세계의 인연과의 단절이다.⁵¹⁾

이러한 노년기에 죽음에 대한 거부와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경우는 죽음이 점점 가까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죽음에 대한 ‘예기된 사회화’이다. 즉, 노인은 자기가 기대한 나이만큼 살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죽음을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죽음을 더 쉽게 직면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당연히 올 것으로 여기는 ‘죽음의 정당화’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사실은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가장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라는 점을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죽음을 비롯한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⁵²⁾

노년기 죽음에 대한 수용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는 종교적 믿음을 들 수 있다.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자신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덜 느낀다. 신앙인들은 죽음을 벽이라기보다는 당당하게 들어가는 문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종교적인 믿음이 죽음을 두려움이나 혐오에서 평온의 상태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⁵³⁾

노년기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갖느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느냐의 문제는 마지막 노년의 생활을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죽음을 자기 삶의 마지막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직면할 수 있어야만 노년의 생활과 적응이 만족스러워질 것이 때문이다.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역할의 상실과 그에 따른 경제적 빈곤, 그리고 배

50) 이이정, “노인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개발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4), 66.

51) 조명옥, “노인이 인식한 죽음의 의미와 준비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색사례연구,” *한국노년학*, 10.

52) 임진옥, “죽음 준비 상담교육 연구,” 78.

53) Ibid.

우자의 죽음 등은 노인에게 슬픔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인데, 이는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는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적응과 준비를 노년의 주요 적응 과제로 보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죽음의 정당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⁵⁴⁾

노인이 인식한 죽음의 의미를 ‘삶의 소멸’, ‘삶으로부터의 해방’, ‘삶의 연장’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죽음을 삶의 소멸이라고 인식한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노인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죽음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죽음을 삶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인식한 대상은 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혼자 살고 있는 노인으로 현재 자신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죽음을 탈출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죽음을 삶의 연장으로 인식한 대상은 종교적 경향성이 강하거나,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가진 노인들이었다. 이들은 죽음에 초월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삶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 자아정체감으로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⁵⁵⁾

지금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죽음 이해의 특성을 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단계별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생애 주기별 죽음에 대한 이해 수준이나 죽음 불안의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모든 단계에서 죽음에 대한 의미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종교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4> 죽음에 대한 발달론적 견해 요약⁵⁶⁾

단계		죽음의 이해
아 동 기	3-5세	일시적인 이별로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함, 노인만 죽는다고 생각함. 격리에 대한 불안
	5-9세	의인화(도깨비), 대이변, 파국,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회피하는 행동을 보인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9-12세	영원한 이별,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죽음, 언젠가 죽는다. 죽음을 주제로 하는 공포 영화 등에 관심.

54) 김미령, “청소년이 인식하는 죽음에 관한 주관성 연구,” 14.

55) Ibid.

청소년 성인초기	초기 사춘기에는 죽음이 공포스러운 동시에 매혹되고 성인과 같은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은 적, 새롭게 인식한 나 자신의 죽음을 대변한다고 생각, 삶의 한계에 대한 시험. 청소년과 성인초기에는 죽음에 대해 가장 두려워함. 청소년은 자기 자신의 죽음의 가능성과 죽음을 전형적으로 부정. 죽음에 대한 걱정을 많이 경험함.
장년기	죽음과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성인전기 때보다 죽음과 죽는 것의 개념 차이를 더욱 확실하게 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죽음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거나 회피하게 만들.
노년기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늘어나고 죽음에 대해 잘 받아들임. 두려움을 적게 보이며, 죽음을 둘러싼 환경과 죽음의 과정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짐.

제 3 절 여러 종교에서 죽음의 이해

모든 생명체는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이 보편적인 진리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존재다. 그 극복 방안 중의 하나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이어진다는 믿음, 즉 영생불멸의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은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 즉 내세관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내세관은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육체와는 다른 속성을 지닌 영혼을 상정함으로써 가능해지고, 대부분의 종교는 종교 체계 내에 이러한 죽음에 대한 관념과 사후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⁵⁶⁾ 죽음에 대한 불안과 종교적인 신앙의 관계는 너무 복잡하다. 각 종교마다 가르침이 다르고, 믿는 사람마다 같은 교리에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취하기도 하며, 역사적으로도 종교적 신앙과 관행들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증가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적으로 죽음 이해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요 종교인 무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 무교에서의 죽음

56) 서혜경, *노인죽음학 개론*, 35.

57) 이이정, *죽음학 총론*, 33.

무교(샤머니즘)란 사령과 조상, 저승길 가름, 원령의 한과 죽음에 대한 부정 등 죽음 사건과 관련하여 발달한 종교 형태로 사후 영혼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신앙 형태를 말한다.⁵⁸⁾ 다른 기성 종교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무속에서도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영혼이 육체를 떠난 상태로 본다. 그러나 영혼을 좀 더 세분화하여 생령과 사령으로 나누고 있다. 즉, 살아있는 몸속에 있는 영혼을 생령이라 하고 조상, 원귀, 원령 등 죽은 후에 저승으로 가는 영혼을 사령이라고 부른다. 이 사령은 다시 천수를 다하여 순조롭게 살다가 자손을 보살피는 선령인 조상과 비명횡사하거나 원한이 남아 인간을 괴롭히는 악령인 원귀나 원령으로 구분된다. 한국 무속의 접신, 탈령, 뉘대 잡이, 초혼, 오구굿에서 볼 수 있듯이 영혼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불멸하는 존재로 저승 혹은 극락으로 천계 상승하거나 이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또 영혼은 죽어서 육체와 분리된 후에도 다시 육체와 만날 수 있고, 살았을 때와 똑같은 기억과 욕망을 가진 존재로 생각한다. 이처럼 한국 무속에서의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이 아니라 단지 육체가 이승에서 사라짐이며, 영혼이 다른 세계로 이동함을 의미한다.⁵⁹⁾

이를 좀 더 살펴보면, 무속신앙에서는 죽음을 흔히 저승사자를 따라가는 일로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저승사자를 보내는 것은 명부(冥府)에 있는 최판관(催判官)이라고 생각하는데 최판관이 체포영장(또는 소환영장)을 발부하면 저승사자가 이것을 들고 사자(死者)를 찾아와서 사자를 무자비하게 낚아채서 저승길로 향한다. 사자의 영혼은 일단 명부로 가서 명부의 십대왕 앞을 차례로 거쳐 가며 현세에서 생전의 선악에 대한 재판을 받아 지선자는 극락으로 보내져 영생을 누리게 되고 악행 자는 지옥으로 보내져 영원히 온갖 형벌을 받게 된다고 믿고 있다.⁶⁰⁾

또한 ‘환생’의 기회도 주어지는데 환생의 관념은 다시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두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즉 죄가 없고 공덕 있는 사람은 새나 나비로의 환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승에서 지은 죄가 워낙 많아 저승지옥의 벌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자에게는 구렁이나 지네로 환생하는 벌이 주어진다고 믿는다. 이렇게 무속은 인간이 죽은 후 이승으로 환생할 수 있는 것은 동식물로만 가능하고 인간의 형체로는 가능하

58) 김열규, 김석수, 박선경, 허용호, *한국인의 죽음과 삶*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60.

59) 이이정, *죽음학* 총론, 37.

60)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1981), 309.

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인간으로서 이승에 사는 것이 유일회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⁶¹⁾

한편 무속의 죽음 이해에서 억울한 죽음을 따로 구분하고 원귀라고 명명한 것은 조물주의 뜻 안에서 인간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조물주에 의해서 천수(天壽)를 누리도록 태어났으나 뜻하지 않는 재앙을 만나게 되어 억울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의식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무속에서 자기명(天壽)을 누리지 못하고 비명(非命)에 간 사람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다른 차원으로 인식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⁶²⁾ 무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 내용 중에는 이렇게 죽음을 맞는 이들은 저승의 초군문 앞에 있는 행기못가에서 울면서 저승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저승문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이 완전히 저승적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들은 이승을 떠났기에 이제 이승적 존재도 아니다. 저승적 존재도, 이승적 존재도 못되기에 그들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⁶³⁾

또 비록 자기 명대로의 목숨을 다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음 그 자체는 한(恨)이 묻힌 중대사였다. 그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죽을 수는 없었다. 그러면 이런 저런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인간의 일반적 현상이라 하겠지만 무속에서는 남다른 슬픈 한을 지닌다. 무속에서는 이른바 천수를 다하고 자연스럽게 죽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한다. 천수를 누리며 오래 살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천수를 누리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절이나 불행한 죽음이 있어서 한이 되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일까? 이 경우에 불행한 죽음은 악신의 개입으로 인하여 생긴다고 본다.

무속에서는 선신과 악신을 뚜렷이 구별한다. 그리고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한다. 원칙상 영혼은 죽지 않으므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천수를 누리는 것을 염원하되 천수가 반드시 장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천수를 다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무작정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무작정 오래 살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61) 김승혜 외,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창, 1990), 66.

6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죽음” 항목 (재판;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01.

63) 김승혜 외, *죽음이란 무엇인가*, 64.

천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죽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운명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가령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은 잠시 물에라도 빠져 죽는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무속적 관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죽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그것 자체로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다만 악신의 개입으로 인하여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 일과 불행한 죽음에 대하여는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죽는 영혼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는가 하는 것이 무속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⁶⁴⁾

여기에 맞추어 나타난 것이 무속에서의 각종 굿이라는 제의(祭儀)이다. 이 제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살풀이를 하는 데 있다. 즉, 이러한 제의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화해를 통해 죽은 사람의 한을 풀어주어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것이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진오기굿이 있다. 무속에서는 살아있을 때 거하는 곳과 죽음 이후에 거하는 곳을 구분하여 죽음 이후에는 저승사자를 따라서 이생에서의 삶을 심판하는 심판대에 올라야한다는 이러한 의식의 영향으로 죽음을 재난으로, 공포로,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이 천수를 다하고 죽는 것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면도 있지만 이는 죽음을 의연한 자세로 맞이하면서 삶의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는 성숙한 이해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무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면 무속에서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공포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종교의 신앙관과 접목되어 현대인들로 하여금 부정적 죽음관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유교에서의 죽음

유교는 조선 500년 동안 국교로서 단순히 종교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국가통치 이념이었고 생활윤리 도덕이었다. 그러다 보니 유교에서의 가르침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다. 유교의 생사관에서 중요한 것은 생사(生死)가 인간의 모든 것의 주체이며, 존재와 생명의 그 원인 천(天)에 의해서 생사(生死)가 이루어지고 지배되므로 순천명(順天明)하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유교는 죽음을 하나의 필연적인

64) 이은봉, *여러 종교에서 보는 죽음관* (서울: 카톨릭출판사, 1999), 158-159.

사실로 인정한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시초가 있으면 종말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자연의 이치로서 죽음도 이 자연의 현상에 일부일 뿐이고 인간은 우주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것만이 올바른 도리(道理)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유교가 지녔던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윤리적 이상을 이 세상에 심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⁶⁵⁾

그래서 유교의 입장에서 본 죽음은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지나친 고뇌와 고민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자가 죽음보다 삶을 더욱 강조했다는 것은 동양 사람들의 생사여일(生死如一)의 사상의 연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삶을 지배하는 이치나 죽음 이후를 지배하는 이치나 이치는 하나이므로 삶의 의미를 잘 모르고 죽는다면 죽음 이후가 잘 보장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잘 모르고 죽어도 죽음 이후에 삶이 잘 보장된다고 믿는 것이 미신이라는 것이다. 오로지 그 하나의 이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각자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의무라는 말이 된다.⁶⁶⁾ 이런 현세 지향적인 유교는 공자의 말대로 살아서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후의 일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태도이다.

유교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魂)과 백(魄)이 분리되어 혼은 공중에 떠다니는 신체가 되고 백은 땅에 돌아가 흙으로 변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조상숭배와 함께 제사를 지내는 유교의 관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효를 중시하는 유교는 살아생전 부모에게 효도하고 돌아가신 후에도 마치 '산 자처럼 공양한다'는 심리적 개념이 첨가되어 죽음의 문제보다는 죽은자에 대한 조상 봉사와 고제가 중요시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제사의 의미는 불멸의 의미인 동시에 죽음은 생의 변화한 형태이며 동시에 생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상 때문에 죽음은 도(道)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의(義)를 위한 죽음은 비록 육체가 죽어도 살아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옛 선비들은 의를 위해 죽음의 길을 택하기도 하였다.⁶⁷⁾

유교에서는 죽음 자체의 의미나 죽어서 시작하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65) 이인복,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의식의 사적연구* (서울: 열화당, 1979), 20.

66) 이은봉, *여러 종교에서 보는 죽음관*, 100-101.

67) 김대동,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죽음의 의미와 상담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31-33.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대자연의 법칙에 의한 신귀(神鬼)의 과정으로 이해되어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돌려지고 있다. 즉, 후생에 대해 부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다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유교에서 삶과 죽음 때문에 앞뒤로 연장될 수 있는 상념을 처음부터 단념하고 일회적인 인생 자체에 몰두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러 후회 없이 생을 마감한다는 이러한 생각에는 결국 삶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인간적 문화 속에서 영생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⁸⁾

이와 같이 유교는 육체적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생의 일부로 받아들여 죽음은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늘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죽음에 대한 유교의 이해라고 볼 수 있다. 유교에서는 신보다는 사람을, 죽음보다는 삶을, 그리고 저승보다는 이승을 더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⁶⁹⁾

후대의 학자 중에 장자(莊者)가 있는데 장자 또한 공자의 이러한 기본 생각을 기반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는 음양오행의 결합으로 모든 만물이 생겨난다고 보았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음양오행의 결합으로 생겨나며 기가 모여 집결되면 생(生)이고 흩어지면 사(死)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영기면 삶이요 사라지면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⁷⁰⁾ 귀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의 지각을 정신이라고 하고 죽고 나면 그 정신을 귀신이라고 부른다. 일반 민간인들의 믿음과는 달리 귀신은 인간의 생사화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고 오히려 귀신을 음양(陰陽)의 문제로 보았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기(氣)는 양(陽)에 속하고 신(神)이라 하고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기(氣)는 음(陰)에 속하고 귀(鬼)라 하였다.⁷¹⁾ 귀신도 죽음도 다 이치를 따르게 되어있다고 보았다. 천지의 이치를 따라 사람은 살다가 죽는 것이다. 주자도 이러한 장자의 이론을 따르고 있으며 조금 다른 입장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이(理)와 기(氣)는 서로 떼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라고 여긴다. 그 이유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죽음이란 대 생명의 일부를 인

68) 김승혜 외, *죽음이란 무엇인가*, 154-155.

69) 방수동, *기독교적 죽음교육*, 24.

70) 이은봉, *여러 종교에서 보는 죽음관*, 102.

71) Ibid., 109.

간이 소유하고 있다가 그것이 소진되면 죽음이 온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것은 대 생명의 일부를 분유(分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셋째, 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자는 선조의 기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 의례를 하는 자가 그 후손이므로 그들 사이의 기는 결국 같다고 보았다. 그들이 통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이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즉, 선조의 기가 흩어져서 사라졌다고 보다는 후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유산으로 남겨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⁷²⁾

정리해 보면, 유교의 죽음관은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생사여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속설인 귀신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이치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는 질서를 강조하면서 그 이치로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 영혼불멸에 대해서는 그 자손이 남아 있는 한 고인의 기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는 것임으로 유교에서 말하는 것은 영혼불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치라고 하는 대 우주 질서를 따르고 있기에 무교적 성향이 강한 한국에서는 무교와 불교의 혼합된 유교장례가 생겨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3. 불교에서의 죽음

불교에서는 인간의 심신이 육체, 감수작용, 지각작용, 의지작용, 의식 등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고, 이를 불교 용어로 오온(五蘊)이라고 부른다. 이 오온은 악업이나 번뇌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인간에게서 수명(혹은 호흡), 체온, 의식 등의 세 요소가 사라져 육체의 기관이 모두 변하여 파괴된 것, 육체와 생명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⁷³⁾ 그러나 죽은 후에 육체는 해체되어 없어지지만 의식은 여러 생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연속체로서, 의식에서의 죽음은 윤회의 바퀴 속에서 육체의 형태를 바꾸는 환생의 계기가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불교는 죽음과 함께 해탈(解脫)하여 열반(涅槃)에 가는 것을 지향점으로 두고 있다. 무엇으로부터의 해탈인가 하면, 윤회로부터의 해탈이다.⁷⁴⁾ 이 뜻은 반복해서 죽

72) 이은봉, *여러 종교에서 보는 죽음관*, 113-117.

73) 김승혜 외, *죽음이란 무엇인가*, 77.

고 태어나는 생사의 윤회(輪廻)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경전에 의하면 죽음은 ‘수(壽)와 난(媛: 채온)과 식(識: 의식)을 잃고 신체가 변괴(變壞)하는 것’ 이것은 생노병사(生老病死)와 함께 인생의 네 가지 고(苦)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⁷⁵⁾

불교는 죽음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가 천명(天命)이 끝나서 죽는 명진사(命盡死)이고, 다른 하나는 뜻하지 않은 불의의 죽음으로 외연사(外緣死)이다. 불교는 연분(緣分)을 중시하므로, 연분이 바깥의 좋지 않은 불의와 맞닿을 때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⁷⁶⁾ 여기서 윤회의 문제가 대두된다. 윤회설에 따르면 세상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여긴다.

법화경⁷⁷⁾에 보면, 인간계에 처음 나타난 부처가 아니라 일곱 번째로 나타난 부처로 되어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처와 일곱 번째 부처 사이에는 180겁⁷⁸⁾이나 되는 긴 세월의 간격이 있다. 인류는 이전에 존재했고, 어떤 불전은 수천년 억겁 전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 윤회설에 의하면 생명은 여섯 세상 사이를 영원한 옛날부터 영원한 미래에 걸쳐 윤회전생(輪廻轉生)한다고 한다.⁷⁹⁾ 즉, 참된 진아(the real self)로서 환생을 할 때까지인 것이다.⁸⁰⁾ 불교에서는 한번 지옥에 가면 아무리 짧아도 1조 6천 2백 년 동안은 고통 받아야 된다고 한다. 그러니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는 자명한 일이다. 아귀와 축생의 세계도 만만치가 않다. 생노병사를 비롯한 애이별고(愛離別苦)인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고통, 원증회고(怨憎會苦)인 증오하는 자와 만나는 고통, 구득불고(求得不苦)인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고통, 오음성고(五陰盛苦)인 번뇌의 고통 등 사고팔고(四苦八苦)라 불리는 갖가지 고통이 가득하다⁸¹⁾

반면 천상세계는 여러 가지 쾌락으로 가득 차 있어, 가장 고통이 적은 세계이다.

74) 고정훈, *해탈의 금자탑* (서울: 우미출판사, 1985), 80.

75) 이기영, “불교에서 본 죽음,” *광장*, 1998년 9월호, 252.

76) Ibid.

77) 구보라 하라시, *불교와 기독교 무엇이 다른가?* (서울: 나침판사, 1998), 139.

법화경은 말법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석가가 마지막으로 가르친 최고의 경전으로 그는 ‘서방십만억토(西方十萬億土) 저편에 극락정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때문에 현세를 떠나서 성불 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여기고 법화경 신앙을 부르짖었다.

78) 1겁: 천지가 한번 개벽한 때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불교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겁은 43억 2천만년, 180겁은 7,776억 년이 된다.

79) 구보라 하라시, *불교와 기독교 무엇이 다른가?*, 139.

80) David Gardmen, *진아여여(眞我如如): 스리 라마나 마하리쉬의 가르침*, 사문대성 역 (서울: 자기탐구회, 1998), 303.

81) 이상호, *불교는 인간이다* (서울: 삼세원, 1987), 69.

그러나 고통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에게도 고통이 있다. 이들은 수명이 짧을 지라도 900만년의 수명이 약속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죽게 된다.⁸²⁾ 그리고 다시 윤회의 운명 속에 어딘가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윤회설에 의하면 생명은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면서 여섯 개의 세계를 항상 돌아야 한다. 인간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도 죽으면 생전의 업(業) 즉, 행위에 따라 여섯 개의 세계 가운데 어느 한 곳에 태어나야 한다. 불교의 죽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먼저 인생의 현실을 좌절과 실망만을 안겨주는 고(苦)로 보고 있다.⁸³⁾ 즉, 사는 것도 고이고, 죽는 것도 고이며, 늙어 가는 것도 고이고, 앓는 것,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구성하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요소는 다 고이다. 이것을 일절개고(一切皆苦)라고 한다.⁸⁴⁾ 이러한 것은 불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법화경은 일체 중생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죽는 것으로, 즉 고통의 원인을 세상에 나오는 데 있으므로, 석가는 고통과 생존(윤회)로부터 해방되려면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끊으라고 가르쳤다.⁸⁵⁾ 즉, 불교는 공(空)이므로 이것을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끊을 때 자신을 윤회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업(業)은 소멸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불교에서의 죽음은 도피 혹은 자기의 멸절이라고 보았다. 즉 죽음은 실존이 일으키는 모든 문제의 포기로서 이는 무아(無我)의 경지이고, 이 경지에서 진아(眞我)가 되며 석가모니의 대아(大我)와 일체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을 일종의 해탈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신이 모든 사물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 무아(無我)가 되는 것을 죽음으로 본다.⁸⁶⁾

4. 이슬람교에서의 죽음

이슬람의 꾸란에는 윤회라든가 재생의 관념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며 죽은 미래의 생명도 이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생각된다.⁸⁷⁾ 이슬람의 경전 꾸란은 정신의 불멸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82) 구보라 하라시, *불교와 기독교 무엇이 다른가?*, 140.

83) 이장호, *불교는 인간이다*, 66-67.

84) 서경보, *종교란 무엇인가* (왜관: 분도출판사, 1999), 48.

85) 윤희용, *불교사전* (서울: 동국역경원, 1973), 925.

86) 김정우, *죽음의 이해* (대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영성 신학연구소, 1995), 5-9.

“너희를 관장하는 죽음의 천사가 너희를 죽게 한 후 너희들은 주님께 돌아갈 것이다”(32장 11절). 인간은 신적 정신 때문에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고 또 육체적 죽음 후에도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신의 품속에서 신과 함께 사는 것을 뜻한다(32장 10절). 여기서 육체는 죽은 후 분해되어 흙 속의 작은 먼지로 변해 소멸하지만, 정신은 죽음의 천사가 떼어내 신의 관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⁸⁷⁾

이슬람교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면 죽음은 한 개인의 소멸로 간주된다. 이 개인의 생애는 태어난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의 세월로 메꾸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슬람은 정신의 불멸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을 단순히 정신적 삶의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돌변으로 본다. 즉, 인간은 정신적으로 끊임없는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다.⁸⁸⁾ 따라서 죽음은 인간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는 풀 수 없고 풀리지 않는 무명실의 매듭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음 단계에서 복을 받게 될지, 고난과 저주를 당하게 될지는 죽기 전 단계의 삶에서 선행을 쌓았는지 악행을 범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슬림은 인간의 정신적 삶은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즉 이승(dunya), 바르자흐(barzakh) 및 천국(jahannam)의 단계이다.⁹⁰⁾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정신이 부활한 후 최후의 심판을 받은 결과로 선행을 한 자는 천국, 악행을 한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단계를 말한다. 이승은 현재의 삶을 뜻하며, 바르자흐는 죽은 뒤 부활의 날까지 기다리는 단계이다. 따라서 바르자흐는 이승의 삶과 영원한 삶 사이에 있는 중간단계로서 이 둘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본다.

사람은 죽은 뒤에 즉시 이승에서의 신앙생활과 행적에 관하여 두 천사 문키르(Munkir)와 나키르(Nakir)의 심문을 받게 되며 공정한 조사의 결과 내려지는 판결에 따라 그는 즐겁고 축복받는 생활이나 사악하고 불행한 생활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바르자흐 이후의 삶은 연이어 일어나는 세 가지 진행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부활, 심판 및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이다. 무슬림의 부활관도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및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부활의 시간은 대체로 이승에 악이 판

87) 이은봉, *여러 종교에서 보는 죽음관*, 56.

88) 배영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고 싶은 죽음의 세계* (서울: 교문사, 1998), 201.

89) 김정위, “이슬람에서 본 죽음,” *월간 광장*, 1988년 9월호, 284.

90) Ibid., 287.

을 칠 때 이스라필⁹¹⁾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지상의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은 소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생은 육체적인 것이며 태초의 창조 때처럼 흙덩이에서 재생된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약속의 종교'라고 부른다.⁹²⁾

재판은 어떤 개인에 대한 덕행과 기록과 악행의 기록으로 저울의 형평원칙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이슬람 신자인 경우에는 악간의 선행도 많은 악행보다 더 무게가 나가게 되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무슬림들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상상은 매우 육감적인 반면, 천국에서의 삶은 호화, 쾌락 및 안식의 현세적 묘사로 가득 차 있다. 무슬림이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떨어질 것인지를 최종 판결은 예언자 무하마드의 사명을 믿느냐 또는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⁹³⁾ 이해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적인 알라의 주권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 계율을 지키고 살았음에도 죽는 순간까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죽는 것이다. 이슬람 신자는 비록 죄를 범했다 해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받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동안만 지나게 되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특전이 전능하신 신으로부터 배풀어진다는 것에 있어 가톨릭의 연옥설⁹⁴⁾과 같이 일면 유사한 면이 있으나, 기독교의 내세관과는 대조적으로 너무 상이한 작위적 교리로 꾸란을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이슬람의 내세관은 인간을 죽음의 매체를 통해 새롭게 고양된 삶의 양태로 발전시켰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죽음관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독교 죽음관은 엄격히 다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적 의미가 전혀 없다.⁹⁵⁾

91) 이스라필: 이슬람에서 부활의 날을 알리기 위해 예루살렘의 신성한 바위 위에서 트럼펫을 분다는 대천사를 말한다. 트럼펫을 항상 입술에 물고 있어서 신이 명령하면 즉시 불 태세가 되어 있다. 성서문학에서는 대천사 라파엘이 이스라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스라필은 입과 혀를 덮을 정도로 털이 많고 또 몸집도 거대하여 7번째 하늘부터 신의 옥좌까지 닿는다고 한다. 날개 하나로는 몸을 보호하고 또 하나로는 신이 볼 수 없게 자신을 가리고 나머지 2개는 동서로 뻗어 있다. 그는 밤낮으로 지옥을 보면서 하루 3번씩 슬픔과 눈물로 글썽거린다. 이스라필은 마호메트가 '코란'을 받기 전에 그에게 예언자의 임무에 대해 3년 동안 가르쳤다고 한다.

92) 김정위, "이슬람에서 본 죽음," 287.

93) 배영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고 싶은 죽음의 세계*, 205.

94) 연옥(purgatory): 가톨릭의 죽음관에 연결된 교리로서 세상에서 죄를 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에 의해서 죄를 정화(淨化)한다고 하는 천국과 지옥(infernum)과의 사이에 있는 상태 또는 장소를 말한다. 대죄(大罪)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지만, 대죄를 모르고서 지은 자 또는 소죄(小罪)를 지은 의인의 영혼은 그 죄를 정화함으로서 천국에 도달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모든 종교의 구원의 궁극적인 구조는 속세에 있고 싶은 욕망에서 풀려나서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궁극적인 목표요, 종교의 지고한 목표도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의 갈망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95) 이슬람연구소, *무슬림은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5), 24.

제 3 장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죽음이 단순히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극복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보다 잘 도모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먼저 죽음과 관련하여 성경을 배경으로 구약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성경에 나타난 복음서의 죽음의 이해를 살펴보고 나아가 바울의 죽음 이해와 교회사에 나타난 주요 신학자의 죽음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구약성경에 나타난 죽음

구약성경은 죽음에 대해 많은 구절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기원은 아담의 범죄로서 연유된 것으로 나타난다. 죽음은 구약전체에 걸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그 자체에 대한 함축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관된 죽음에 대한 견해 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⁹⁶⁾

구약성경 속에서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나타난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흙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타난다. 즉,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소재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흙으로 만든 인간, 사람은 한평생 생존을 위해 싸우지만 결국 한줌의 흙이 된다. ‘땅’ 혹은 ‘흙’은 인간의 요람이요, 집이요, 무덤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표현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욥 10:9, 34:15; 시 103:14; 전 12:7 등), 즉, 죽음이란 생기가 끝나고 목숨이 끝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구약성경 안에 담겨진 죽음의 보편성과 허무성, 그리고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 더 나아가서 축복으로서의 죽음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96) Herbert Vorgrimler, 죽음, 심상태 역,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1), 63.

1. 죽음의 보편성과 허무성

죽음은 히브리인들에게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며 장성하여 살아가는 즉, 늙어가며 죽어가는 인생 여정의 마지막에 겪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씨앗을 몸속에 지닌 채 한평생 살아가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일생동안 생존을 위해 싸우지만 결국 한줌의 흙이 되고 마는 것이다. (전 12:7). 이처럼 영혼이 육체를 떠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 역시 지은 바 흙으로 그리고 모든 조상들이 그랬듯이 ‘돌아가는 것’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겪는 필연적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죽음은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로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우선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의 비탄을 자아낸다(창 50:1-2). 그리고 사후에 무엇이 일어나는가는 살아있는 자의 이해를 벗어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첫 인상은 비실존의 양상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구약에서 오랫동안 보존되어 온 신앙에서 볼 때 죽음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다. 비록 죽음이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이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죽음이 어두운 표상으로서가 아니라 장수하여 노년에 죽을 경우 적극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천수를 누리다가 노년기에 맞게 되는 자연적인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이상적인 죽음으로 생각되었다(창 25:8; 35:29). 그렇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불가피한 숙명 앞에서 여전히 느껴지는 삶의 무상함은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왕에게까지도 마지막 운명은 다 같기에(시 49:8) 인생은 한낱 그림자요, 하나의 숨결, 허무일 따름이다(시 39:5; 89:47; 욥 14:1-12).⁹⁷⁾

또한 이스라엘 신앙은 죽음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 계신다’(신 5:26). ‘그분만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유일한 존재이다’(왕하 19:4). ‘그분만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다’(시 36:9). 그러므로 생명 없는 흙으로부터 생명의 입김을 불어 넣어 살아 있는 인간을 만드신 권능의 하나님은 언제라도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이 생명의 입김을 당신의 자유재량에 따라 회수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욥 1:21-22). 따라서 인간은 어떤 경우에라도 비록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확신 때문에 구약성서의 사람들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시 89:48). 죽음

97) 방수동, *기독교적 죽음교육*, 35.

을 목전에 두고 남기는 유언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고 있다.⁹⁸⁾ 이런 죽음은 성취된 인간의 마무리로서 누구나 죽어야 할 죽음이지 특정한 인간의 죽음만이 아니다. 이삭, 나윌, 욥도 인생에 만족한 죽음을 죽었다(창 35:29; 대상 29:28; 욥 42:16). 그들에게 죽음은 그저 어두운 결말이 아니라, 평화스러운 성취이었다.⁹⁹⁾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는 의식과 장례식에 대한 기사를 별반 볼 수가 없고, 이사야 65장 3-4절에 의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일이든, 죽은 자를 숭배하는 일이든, 죽은 자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일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로 받아드려졌다.¹⁰⁰⁾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생명의 유한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래 인간에게 주어진 별로서 이해하는데 이것이 구약성경에서의 거의 주도적인 죽음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의 과기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죄악을 범한 인간은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된다. 죄는 그 인간 본성보다는 인간 존재에 대한 관점에 변화를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타락하기 전에는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고 죽음의 존재에 대하여 몰랐거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타락 후 상황이 바뀌어 인간의 전존재는 죽음의 징후 아래 놓이게 되어, 이에 따라 남자는 노동할 때, 여자는 해산할 때 각각 죽음의 냄새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¹⁰¹⁾ 그러므로 죄는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악인 동시에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죄인들의 경우에 죽음은 자연적인 운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귀한 선물, 곧 생명의 박탈이라는 처벌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죽음은 본래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별로서의 죽음을 말한다.

98) Hans B. Volf,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3), 178-181.

99) 황계하, *죽음의 의미와 죽은 자의 부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학원 1997), 18.

100) 문희석, *구약성서의 인간학* (왜관: 분도출판사, 1976), 39.

101) 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 교문사 1983), 468.

특히 구약의 J문서¹⁰²⁾ 부분에서는 죽음을 죄악의 대가이고 현실적인 형태로 하나의 저주요, 재난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지향할 의무를 포함한 하나님의 선물로써 자기 생명을 이해하지 않고 신뢰와 감사로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을 살고, 하나님 없이 이를 성취시키려 한 결과로써 죽음을 보이는 것이다.¹⁰³⁾ 죽음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칠 수 없는 무자비한 영역이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는 것으로 묘사된다(시 88:11; 사 38:18).¹⁰⁴⁾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게 죽음은 오로지 두려움의 대상이요, 절망적인 공포의 대상이었다. 또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죄의 상태는 죽음의 원인이며 세상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이러한 죽음을 여러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다. 죽음은 하나님의 복수를 집행하는 사자의 모습을 갖기도 하며(삼하 24:16; 왕하 19:35) 나아가서 죄를 짓는 악인에게 죽음의 정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욥 18:5; 시 37:20, 28; 겔 18:20, 23).

이러한 죽음의 특징은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게, 즉, 제 때가 되기 전에 죽는 죽음으로 묘사된다. 때가 되지 않은 죽음은 언제나 생명의 원수로 표현하고 있다. “죽음이 빠르면 빠를수록 불행은 더 큰 것이다”(사 38:10-13). “내가 이 아이의 죽음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창 21:16). 다윗은 밋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아버지로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삼하 12:16-19). 그러므로 젊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절망적인 몰락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질병, 빈곤, 역경, 고독, 절망은 악한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욥기 22장 15-20절 말씀을 보면 범죄자들은 때가 차기 전에 잡혀가 죽는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에게 죽음은 ‘과멸, 돌이킬 수 없는 절망, 어두움’으로 아무 것도 기억할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곳(삼하 2:23; 시 94:17; 115:17)) 등으로 나타난다.¹⁰⁵⁾ 그러므로 죄의 별로서의 죽음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죽음이며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죽음의 권세는 이 세상에 죄가 실재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표식이다.

특히, 구약성경에서의 야훼스트(창조설화) 부분에서는 죽음을 환언하면 죄악의 대가이고 현실적인 형태로 하나의 저주요, 재난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간이 하나

102) 구약의 오경은 연대순으로 보면 J(여호와 혹은 야웨)문서, E(엘로힘)문서, D(신명기)문서, P(제사)문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이다.

103) 정한교, “죽음의 신학” *신학전망*, 1975년 5월호, 57.

104) Ibid., 66.

105) 김정우, “죽음과 삶”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 대학원, 1983), 26.

님을 지향할 의무를 포함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기 생명을 이해하지 않고 신뢰와 감사로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을 살고 하나님 없이 이를 성취시키려고 한 결과로서 죽음을 보는 것이다.¹⁰⁶⁾ 이러한 자들은 여호와와 능력의 판도에서 제외된 자들이며 특히 하나님과의 무관계에 처한 자들로 묘사된다(시 88:11-13; 사 38:18). 즉, 이런 자의 죽음은 여호와와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칠 수 없는 무자비한 영역이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죽음은 오로지 두려움의 대상이요, 절망적인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처벌로서의 죽음이라는 생각에서 보면 무죄한 자의 죽음을 정당화할 길이 없어지게 된다.

3. 축복으로서의 죽음

구약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야훼께서 복스러운 장수를 주신다. 이러한 생애에 있어서는 임종이란 그저 암울하기만 한 결말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완성이요, 두렵고 괴로운 위기가 아니라 평화로운 성취이다. 아브라함도 그런 약속을 받는다. “너는 평안히 네 조상에게로 가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묻히리라”(창 15:15). 그리고 그 약속은 이렇게 성취된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숨을 쉬고 호호백발에 실컷 살다가 죽었다”(창 25:8). ‘장수’와 ‘고령’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들이 죽는 모습이다(창 35:29; 삿 8:32; 욥 42:17; 대상 23:1; 대하 24:15). 이와 같이 죽음은 인생의 행복스런 성취일 수가 있고 죽음은 풍성한 축복의 생애의 보상일 수가 있다. 이처럼 구약성경에서의 이상적인 죽음은 노년기의 죽음으로 이해된다. 이런 죽음은 성취된 인간의 마무리로서 누구나 죽어야 할 죽음이지 특정한 인간의 죽음만은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된 이상적인 죽음은 늙어 백발이 되어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구약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모든 세상의 덧없음’, ‘자기 선조들 옆에 누워 휴식함’, ‘곡식이 영글어 타작마당에 이룸’과 같은(욥 5:26) 표현으로 성숙한 상태로 무덤에 진입함을 말하고 있다.¹⁰⁷⁾

이러한 죽음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죽음으

106) 김정우, “죽음과 삶”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 대학원, 1983), 34.

107) Vorgrimler, 죽음, 113.

로,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으로서 창세기 25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백발의 노년에 이르러 늙고 만족하게 산 다음에 죽었으며,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관계 문서가 그러한 죽음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죽음은 성취된 인생의 마무리로서 누구나 인간이 죽어야 할 죽음이지, 인간이 죽어야 만 될 죽음은 아니다.¹⁰⁸⁾ 그래서 이삭과 다윗과 욥도 인생의 만족한 죽음을 죽었으며(창 35:29), 욥은 자녀들과 손자들 4대를 보았다(욥 42:16).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스러운 장수를 주신다. 따라서 그들에게 죽음은 침울한 결말이 아니라 평화로운 성취로써 장수와 고령은 하나님의 축복이다(창 35:29, 삿 8:32, 욥 42:17, 대상 23:1, 대하 24:15). 이와 같이 죽음은 인생의 행복스런 성취일 수가 있고, 풍성한 보상적 축복일 수 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헛되이 견책을 하지 않은 사람의 죽음이 아주 좋은 인생의 성취라고 지적하였다(욥 5:26). 이러한 죽음은 어느 시대에나 긍정하였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맞이하는 자연적 죽음은 운명의 죽음의 세력에 양도되어 있어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렇게 충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¹⁰⁹⁾

이상과 같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구약에서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생명의 자연적인 경계선이고 생명의 유한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성도 한 사람의 죽음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님이 시편 116장 16절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므로, 생명의 원천(시 36:8-12)이시므로 인간이 죽음에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깨닫고 순응하는 자세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제 2 절 신약성경에 나타난 죽음

신약성경에서 죽음의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까지는 죽음이 구약성경의 사상 아래서 반영되어 왔다. 즉,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인데,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죽음을 얻게 된 것처럼 죽게 되었고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죽음의 문제가 부활사건

108) 문희석, *구약성서의 인간학* (왜관: 분도출판사, 1976), 200.

109) Ibid., 201.

으로 극복됨¹¹⁰⁾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고 있다. 따라서 신약의 죽음관은 희망의 죽음이다. 이 희망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부활의 희망인 것이다. 신약은 철저히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선포하고 있으며, 이 선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의 희망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성경의 고백 위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새로운 해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해석을 부여한 복음서에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또한 사도바울은 어떻게 죽음을 말하고 있으며, 부활과는 어떤 연결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본 절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복음서의 죽음 이해

복음서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한다. 곧 이어 유대 역사 속에서 족보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는 면모는 마태가 얼마나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지를 보여 준다.¹¹¹⁾

이러한 배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회색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탄생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삶을 예언의 성취로 이해하면서 3인칭 관찰자적 시점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는 맥락에서도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는 마태의 고백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장면에서 예수님 자신의 목소리으로도 선포된다. 모든 복음서 저자는 공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이어지는 체포 장면에서 제자 중 한 명이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유독 마태만이 체포와 수난을 앞둔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마 26:54).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

110) 황성규, “바울의 죽음이해,” *기독교사상*, 1982년 4월호 73.

111) 정용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 *그 말씀*, 2012년 3월호, 195.

루려 함이니라”(마 26:56).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의 시간을 성령이 예언한 말씀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마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과 십자가 사건의 비극성을 통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면, 마태는 그 모든 고통과 비극성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그 뜻을 이해하시고 이루심으로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쟁취하시는 것으로 증언한다.

마가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과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 묵묵히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그 모든 오해와 배신,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 그 예언의 성취를 자신의 순종으로 이루시겠다는 명확한 자기 이해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한다. 마태의 예수님은 말씀과 예언의 성취로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순종의 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고 있다.

한편 마가는 내용과 관련하여 양적인 면에서도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는 지를 드러낸다. 마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도착까지의 전 생애를 다루는 데 10장을 할애한 반면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는 데 전체 16장 중 6장을 할애한다. 고난 받는 종으로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청중들의 삶의 자리를 고려하는 마가에게 중요한 관심사였음이 분명하다.¹¹²⁾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복음서의 전체적인 죽음을 큰 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 복음서의 죽음의 이해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죽음이였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의 죽음 이해는 먼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복음서의 죽음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복음서에서 죽음은 대속물로 오셨다고 할 수 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112) 정용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 195.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의 죽음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철저히 지정의(知情意)에 따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삶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삶을 살다가 인간으로 고통을 받고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며 겿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며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또한, 십자가에서도 고통을 호소하신다.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막 15:34).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한 고통으로 인간 속에서 인간으로 사셨지만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셨다.¹¹³⁾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철저한 자기포기의 삶을 보여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 자신이 직접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시는 만인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접 여러 번 예고(마 16:21; 20:17-19)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되신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희생, 즉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이 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서의 죽음의 이해이다.

세 번째, 복음서에서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초월하여 부활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가까이 죽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라고 말씀하신대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원한 삶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공관 복음서에서 제시한 죽음의 이해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예수와 맺은 인격적인 관계의 빛 속에서 보고 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하여 난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예수는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존재를 깊이 생각하도록 요구하셨다(요 3:36; 5:24). 그것은 이미 죽음이 신앙 안에서 극복되었으며 지속하는 생명은 현존하는 실재임을 생각게 하는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죽음 앞에서 나타낸 죽음의 반응을 시련의 하나로 보고 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113) 이종표, *별세신학* (서울: 국민일보, 2005), 159.

서 우심과 죽음 앞에서 인간의 죽음의 심각성을 강조해 주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기독교인의 현세의 삶이 가볍게 취급되는 것을 막아주는 관점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너 나가서 요한복음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의 모형을 새롭게 제시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나 6장 54절은 밀알의 비유와 성찬의 비유이다. 그 의미는 자신을 희생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예수와 함께 그날에 다시 살 수 있다는 삶을 향해 죽음을 조명하고 있다.¹¹⁴⁾ 요한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요 12:12-19)을 스가랴 9장 9절을 직접 인용해서 표현한다. 이것은 공관복음과 마찬가지로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 예수께서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표현하는 부분에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다. 첫째는 예수께서 메시아인 왕으로 환영받으신다는 것이다(요 12:13; 18:33-40; 19:1-6, 12-19). 둘째는 제자들이 당시에는 메시아의 왕으로 입성한 것을 깨닫지 못했으나 십자가의 죽음 후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요 12:16). 즉,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왕 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역설적인 예언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다”는 표현이 나온다(요 12:19). 그들은 냉소적으로 의도하고 말한 것이나, 그것이 오히려 진실을 예언한 셈이다. 이것 또한 요한의 복음적 역설이다. 사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올려지면 온 세상을 자기에게로 이끌게 된다(요 12:32).¹¹⁵⁾

예수는 헬라인들이 자신을 보려고 찾아오자 자신이 ‘그 사람의 아들로써’ 영광 받을(죽을) 때가 왔음을 선언한다. 그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한 알의 밀알로서의 자기 희생이다(요 12:24).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본질(사랑)을 드러내는 사건, 즉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사건이고, 그러므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하는 분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즉 예수의 영광을 계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의 대속과 새 언약의 구원을 덕 입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주로 섬기게 된다.¹¹⁶⁾

114) 김주태, “죽음의 이해와 임종자를 위한 목회적 돌봄”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7), 32.

115)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서울: 두란노, 2001), 160.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죽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행한 것이었다.¹¹⁷⁾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마 28:6)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을 극복하는 행복한 삶을 탄생시켜 주었다.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이라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결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고 그 행복을 맛볼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복음은 과거의 사람들을 살렸고 현재의 사람들을 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의 죽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를 설명할 수 없다.

복음서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로 예정된 하나님이고,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신 인간이셨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세롭게 하고 있다.¹¹⁸⁾ 복음서에서 죽음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죽음은 그 내용과 뜻을 달리하여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바울의 죽음 이해

바울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먼저, 잠으로 언급한다.¹¹⁹⁾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잠자는 자들이”(살전 4:13)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모두 경험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테반의 죽음을 ‘잠들었다’는 용어로 표현했다. 죽음은 몸과 영혼의 전체적인 인간을 포함한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적 죽음 사건에서도 존속하며, 그것은 인간이 지닌 영적인 본성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삶과 죽음으로부터 인간이 구원을 얻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삶과 죽음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원인을 “죄의 삯은 사망이라”(롬 6:23) 함으로써 죽음을 죄의 결과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자연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하는 죽음, 폭력적인 죽음과 억울한 죽음을

116)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161.

117) 이중표, *별세신학*, 170.

118) 김두리, “기독교 관점에서의 죽음에 관한 연구”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16.

119) Val J. Sauer, *평신도를 위한 중말론*, 정홍렬 역 (서울: 나눔사, 1992), 67.

말하며, 하나님 없는 이 세계의 죄된 현실을 가리킨다.¹²⁰⁾ 이는 죽음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는 구약성경의 사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개념은 단지 죄를 초래한 것만이 아니라 마땅히 죽음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¹⁾ 육체의 죽음은 더 깊은 영적인 진리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의 영역 안에서 살 수 밖에 없고 자신이 죽음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몸과 죽음은 구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을 벗어난 죄된 인간의 종말로 인식되며, 생명의 죽음은 범죄 가능성의 종말과 인간의 부족함의 종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벗어나려는 시도의 종말을 의미한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도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죄와 죽음의 또 다른 관계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라는 바울의 견해이다(롬 6:23).¹²²⁾ 예수도 또한 인간이 죄의 종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요 8:34). 이 구절의 뜻은 인간이 죄의 종이며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육체적으로 인간은 죽도록 결정되었으며 영적으로는 이미 사망했다. 인간은 죽음의 지배를 받으며 이 죽음은 최후의 원수(고전 15:26)로 불린다. 바울은 모든 인류는 죄에 포함되어 있고(롬 3:23) 죽음은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롬 5:12-14)고 말한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죽음은 각 개인의 유한성을 증명한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로 이해했다(롬 6:10; 고후 5:21).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롬 6:10).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이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연결되어 이해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 즉 십자가에서 ‘저 세대’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증거들로 보았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한다(고전 1:24).¹²³⁾ 그것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며(롬 3:21),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롬 5:5; 고후 5:14, 갈 2:20)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다(갈 1:4, 골 1:13). 또한 인간을 죄로부터(롬 6:2), 사망의 권세로부터(롬 5:17) 해방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죄와 죽음은 해방되고 정복되었다(롬 6:9).

120) 김균진, *종말론* (서울: 민음사, 1998), 160.

121) 안효욱, “안락사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영남신학대학원 2003), 14.

122) Sauer, *평신도를 위한 종말론*, 68.

123) 박수암, *신약성서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193.

바울은 선교를 통해 초대교인들을 교육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사상을 더욱 발전시켰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죽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시야에 담고 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의 기반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첫 승리는 모든 이들의 부활의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이며 죽음은 승리 가운데 삼켜져(고전 15:26)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¹²⁴⁾ 그리고 만민 부활을 언급하는 바울의 이러한 죽음관은 개인의 부활만을 생각했던 구약의 죽음관보다는 훨씬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바울에 의하면 죽음을 우선 범죄의 결과로 이해한 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삶이 완결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해된다. 이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인 것이다.¹²⁵⁾

죽음의 문제에 관한 신약성경의 입장을 정리하면 구약성경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우선 범죄의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신약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선포하고 있으며 이 선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의 희망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죽음의 극복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구약성경이 모두 일관되게 증언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구약 성도는 인간의 죽음을 죄의 대가와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요구된다고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본질적인 속성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것이므로 사후에 주어지는 존재 양태와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는 것이다.¹²⁶⁾

제 3 절 신학적 죽음 이해

죽음의 문제는 죽음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또한 죽음을 세속화된 의미로 해석하는 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으며, 진리로부터 오도될

124) Vorglimler, 죽음, 285.

125) 김정우, 죽음의 이해 (대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영성신학연구소 1995), 42.

126) 방수동, 기독교적 죽음이해, 41.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성서적 입장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다양하다. 그럼으로 현대 신학은 인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죽음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죽음의 문제는 인간 실존의 문제와 직결되며, 따라서 종교의 중심 문제이자 신학의 궁극적 질문일 수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죽음에 관한 신학적 사고의 빈곤을 때때로 느끼곤 한다.¹²⁷⁾

이는 현대신학이 죽음을 말하기보다는 죽음의 극복, 즉 죽음이란 말로써 표상되는 모든 상정을 극복하게 하는 부활과 미래의 소망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을 단순히 분리시켜서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 오랜 세월 기간에 죽음의 신학에 관하여 많은 저서와 기사들이 나왔지만 본 절에서는 특별히 교부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고, 그런 다음 교회사에 나타난 주요 신학자들의 죽음 이해를 고찰하고자 한다.

1. 교부들의 죽음 이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형성된 사도신경에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신앙의 조목으로 고백되고 있다. 죽음과 관련된 이 신앙고백은 유대적 전통을 따라서 다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들어가면서 회랍적 요소들이 가미되기 시작하였다. 성서적, 유대적 전통은 공동체적 입장에서 종말론을 언급하였다. 이와 달리 회랍권은 영혼의 불멸성, 개인의 심판, 상선벌악 등 개인적 문제에 더욱 관심을 두었다. 유대 전통은 인간을 영과 육으로 분리할 수 없는 합일로서 다루는데 비하여, 회랍 문화권은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하고 육신을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죽음을 영혼의 육신으로부터 해방으로 이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교부들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 확신을 드러내면서 육신의 부활을 강조하였다. 전인(全人)으로서 부활을 긍정하면서도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遲延)되는 상황 속에서 도입되었다. 최근 기독교 공동체가 간절히 희망하였던 주님의 재림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부들은 주님의 재림의 지연에 대해 해명

127) 서광성, “칼 라너의 죽음의 신학,” *기독교사상*, 1972년 4월호, 48.

해야 했다. 교부들은 저서를 통하여 완성으로서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그 긴박감(緊迫感)을 보존하면서 늘 깨어 살도록 윤리적 충실성을 촉구하는 한편, 지연되는 주님의 재림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 설명하였다. 또한 주님의 재림 이전에 발생하는 현실적 죽음과 훗날 세상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부활 사이에 공백을 설명해야만 했다. 마지막 날까지 죽은 자들은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인가? 죽음 후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 바울은 죽음 후 즉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확신하고 있다(고전 5:1-10). 그렇다면 무덤에 남아 있는 육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 제기에 직면하여 영혼의 불사불멸성을 주장하는 그리스 사상을 이용하게 되었다.

기원전 6세기경 오르페우스를 원조로 하는 종교로부터, 영혼은 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소이고 육신은 그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간주되었던 이원론적 사상이 플라톤에게 포착되어, 죽음은 지상의 물질세계로 하강하여 육신 안에 갇혔던 영혼을 해방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입장이 신 플라토니즘과 영지주의를 통하여 그리스 전역에 널리 확산되었고, 마침내 기독교 안에 수용되었다. 그리하여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전통적인 교리의 골격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죽음에 의한 영육의 분리와 영혼의 불사불멸성이라는 회랍사상은 죽음 후 즉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신앙과 지연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때 이루어질 부활의 문제, 즉 죽음 후 즉시의 상태와 재림 때 이루어질 부활 사이의 공백을 설명해 줄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어째서 두 번의 심판(사심판과 공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는 남는다. 이러한 전통적인 신앙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교부들의 죽음 이해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죽음은 영혼의 육신으로부터의 분리이다. 우선 영혼과 육신의 결합이라는 인간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태어나 회랍철학을 배웠던 유스티노(Justinus: 167년)는 기독교로 개종하여 순교하기까지 하였지만, 그의 인간이해는 회랍의 영향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 물론 기독교의 구원은 플라톤 철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로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타치아누스(Tatianus)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 아우그스티노에 계속 발전된다. 아우그스티노는 인간을 정신과 영혼과 육체의 합일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신과 영

혼은 함께 이성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간을 영과 육의 합일체로 보는 견해는 크게 다르지 않다.¹²⁸⁾ 또 영혼은 불사불멸성을 지닌다는 점에서도 희랍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이러한 인간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죽음은 영혼의 육체로부터의 분리로 규정되고 있다. 터툴리안은 이단 마르시오니즘을 거슬러 죽음은 단지 육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니사의 그레고리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이란 ‘육신이 영혼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임’을 말한다.¹²⁹⁾ 어거스틴은 죽음을 두 가지로 나눈다. 영혼의 육신으로부터 분리로서의 죽음과 영원한 파멸로서의 죽음으로 구분한다. 또 육체적인 죽음으로 육체가 분해되지만,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부활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죽음의 원인은 죄이다. 이러한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서의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교부들의 입장이다. 일찍이 사르디의 멜리톤은 죽음과 삶을 대조시키면서 “죄가 모든 영혼 위에 그 발자취를 남기고 그렇게 흔적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운명 지어진 것이며, 모든 육은 죄 아래 놓여져 있고 모든 육체는 죽음 아래 놓여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¹³⁰⁾ 치프리아누스는 유아 세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죽음이 아담의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오리겐과 안티오키아의 테오토레투스 역시 죽음이 아담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어거스틴은 죽음을 아담의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킨다. 따라서 어거스틴 이후 기독교 교리는 인간의 죽음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겪게 된 것임을 공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셋째 죽음은 나그네 살이의 종착점이다. 죽음이 나그네살이의 종착점으로 간주되는 주제는 교부들의 가르침에서 일정한 형식을 지닌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우정과 친교를 받아들이기 위해 허락된 시간이라는 점에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즉, 죽음은 마지막 결단으로서 죽음 후에는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교부 아프라테(Aphraates)는 누가복음 16장

128) 조정옥, *성 아오스딩에 의한 인간 및 하느님* (대구: 효성여자대학교, 1991), 582.

129) Cf. Accurante Jacques-Paul Migne (Patrologis cursus completus), Series Graece, Paris, 1928-1936, 45.

130) Augustine, *그리스도교 교양*, 성염 역주 (왜관: 분도출판사 1989), 81.

26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 품안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고통 받는 부자 사이에는 커다란 심연이 가로 놓여져 있어서 그리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도 건너 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따라서 죽음 후 부활해서는 더 이상 회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토리노의 막시모(Maximus Taurinensis)도 죽음으로 모든 여정이 끝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전체적으로 묵시 사상적이며 바울적인 이론을 추종했다. 즉, 행위와 결과의 연관성에 기초하여 죽음을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벌로 이해했다.¹³¹⁾ 이는 죽음이 다른 큰 의미보다 단지 죄 혹은 악이며 인간에게는 원수로밖에 이해되지 않음으로 성서적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부시대에 영향력을 끼쳤던 어거스틴의 죽음관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는 죽음의 두 가지 형태를 곧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 보았다. 영원한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영원한 죽음뿐만 아니라 몸의 신체적 죽음도 죄의 값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렌지 공의회에서는 죄를 영의 죽음으로 육체적 죽음을 첫 번째 죄의 벌로 영원한 죽음을 두 번째의 궁극적 죄의 벌이라고 보았다.¹³²⁾ 무엇보다 어거스틴은 죽음을 아담의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킨다. 따라서 어거스틴 이후 기독교 교리는 인간의 죽음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겪게 된 것임을 공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¹³³⁾

2. 교회사에 나타난 주요 신학자의 죽음 이해

가. 마틴 루터(Martin Luther)

루터에게는 신학적 사고의 출발이 죽음의 공포라고 칼 홀(Karl Hall)은 말한다.¹³⁴⁾ 그것은 루터가 비겁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는 유달리 하나님의 초월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여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자주 직면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루터가 엘프르트 대학에서 법률공부를 중단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슈트테른하임 부근에서 갑작스런 낙뢰를 만나 서원한 것을 실천한 것이었다. 그에게 죽음은 장차 당할 피안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거둢 위협해 오는 유혹으로 보고 있다.

131) Jurgen Moltmann, 오시는 하나님,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160-161.

132) Ibid., 162.

133) 조규만, “죽음,” *신학과 사상* (1997), 93.

134) Oscar Cullman, “영혼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전경연 역, *세계의 신학* (1991), 111.

루터가 겪은 이 유혹은 시편 강해 때 하나님의 의(義)의 공격에 의한 유혹의 체험을 말하는데 그는 자기의 체험의 모형을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에서 찾았다. 루터는 ‘유혹의 고통의 원형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며 죽음을 당하여 싸우는 고투’¹³⁵⁾라고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거룩성과 능력이 인간의 전 존재에 구체적인 그의 생과 활동에 윤리적 의지와 판단에 매 순간 무한히 위협해 오는 사실로써 하나님의 계속적인 현재적 심판이 인간의 양심을 고독과 책임에 몰아세우는 죽음으로 그것은 자연현상에 깃들인 죽음의 불안이라고 하였다.¹³⁶⁾ 특히, 죽음에서 고통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죽음이란 표상과 죄와 지옥을 상념하는 것인데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은혜를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교회의 의식적 형식을 버리고 성만찬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¹³⁷⁾

나. 존 칼빈(John Calvin)

칼빈은 개혁자로서 생애 초기부터 죽음에 대한 복음주의적 해석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죽음에 깃들인 불만, 고통의 극복이란 것보다 시종 죽음의 이해라는 세계관적 관심이 많았다. 그러므로 칼빈은 사람이 죽음으로 영과 육이 분리된다고 하는 사상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그는 영과 혼의 구별을 엄격히 하지 않고 차별 없이 사용하였으며, 사람이 죽음으로 혼은 육을 떠나 본향으로 간다고 하였다. 죽음은 외국에서 방랑생활을 하던 영혼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불멸(不滅)을 분깃 받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영혼의 본향은 아브라함 품이다.¹³⁸⁾ 이것은 헬라적 영혼불멸의 관념을 기독교적 신앙에 옮겨 놓은 것이다. 계속해서 칼빈은 이 영혼불멸 사상을 독립시켜 주장하지 않고 보편 부활¹³⁹⁾의 신앙과 연결시켰다. 칼빈은 영혼불멸과 최후의 보편부활 신앙 사이에 모순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135) Cullman, “영혼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112.

136) Ibid., 113-114.

137) 김두리, “기독교 관점에서의 죽음에 관한 연구,” 20.

138) Cullman, “영혼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115-116.

139) 보편부활은 재세례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활사상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영혼의 잠’이라는 것은 사람은 죽음으로써 영혼은 완전히 활동의 정지상태에 들어가고 보편부활에서 깨는 상태에서 영혼은 이성이나 의지 같은 기능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상으로 삼았다.¹⁴⁰⁾

칼빈은 죽음을 영혼의 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해석에서 (눅 16:19-31) 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의 긴 항해를 마치고 도착하는 고요한 항구, 그것을 아브라함의 품, 혹은 그리스도의 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은 마치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의 광채에 모든 별들의 빛이 퇴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품의 광채에 빛을 잃을 것이다. 만약 누가 오늘도 경건한 신자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품안에 들어가게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잠든 성도는 천상의 생명의 즐거움에 훨씬 더 가까이 있다. 그러나 완전한 영광은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유보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 칼 바르트(Karl Barth)

칼 바르트를 주축으로 하는 변증법적 신학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제 1차 세계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모든 것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활동에 눈 뜨게 되면서부터이다. 하나님은 양쪽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도 하고 치료도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칼 바르트와 그의 동료들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 활동은 종말론적이다.¹⁴¹⁾

칼 바르트는 1924년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책을 내었다. 이것이 이미 그가 발표한 *로마서 강해*에서 추구한 영원과 시간의 질적 차이라는 원칙을 아무 반성이나 비판 없이 극복하고 지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죽은 자의 부활, 영적 몸, 육체적 부활 같은 말이 종말이라는 말의 표현인 것을 그는 발견하였다. 또한 그의 종말사상은 *교회 교의학* 제 II권의 1에서는 ‘시간의 종말로써의 죽음’, 제 III권의 2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제 IV권의 3에서 그의 영원한 희망론을 전개했다.¹⁴²⁾

칼 바르트의 죄와 죽음의 이해를 살펴보면, 회랍의 영혼불멸 사상과 기독교적 부활신앙과의 차이는 지대한데 칼 바르트는 부활신앙은 유대교적인 죽음과 죄와의 연결

140) 김두리, “기독교 관점에서의 죽음에 관한 연구,” 21.

141) 진인수,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으로서 목회자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40.

142) 박봉량, “죽음과 죽은 자의 부활,” *기독교사상*, 1980년 4월호, 192.

을 전제한다. 바르트도 인간의 죽음이 인간의 죄와 관련되며 따라서 죽음은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과 죄의 관련성에 관한 바르트의 최종적 단언은 아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죽음을 죄의 심판이라는 측면과 자연적 죽음의 측면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둘째 죽음(계 21:8)과 구별하여 자연적 죽음(고전 11:30)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땅위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명의 끝을 계획하셨다. 사실상 바르트는 인간이 죄인이기에 인간 위에 내려지는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표징이지만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거되었다고 긍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해진다. 즉, 유죄 판결이 우리에게 내려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내려지며,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은 우리 죄의 용서이다.

바르트의 사상에 있어서는 '인간은 무존재로부터 나와서 제한된 횡수를 땅위에서 지내다가 다시 무 존재로 되돌아가도록 예정된 존재'라고 보았다. 결국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심판으로 이해된다.

또한 칼 바르트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입장을 보게 되면 저 먼 곳, 비존재, 미지 불가해의 냉혹한 개념만이 존재할 수 있는 곳, 모든 사물과 분해만이 일어나는 그곳, 시간의 무한성이라는 모순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 곳이 죽은 자들이 가야 할 곳이다. 바르트는 이 죽음을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 죽음의 불안과 염려와 압박감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부활의 약속이다(요 11:25).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같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이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은 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자신을 인간의 희망임을 계시하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¹⁴³⁾

그래서 바르트는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분적 교리나 특수 교리가 아니고 바른 진리로 선포해야 한다고 한 것이 그의 생각만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난다고(고전 15:1) 말하며 그것은 기독교 선포의 중추요, 전체라고 주장한다.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어떤 신학적 문제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고전 15:12) 경계한다.¹⁴⁴⁾

143) Karl Barth, *단 한 번의 기회*, 전경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108-109.

144) Karl Barth, *죽은 자의 부활*, 전경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86.

바르트가 로마서 강해에서 전개한 종말론적 사고는 그리스도론적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강조점에 있어서 그것은 초월적 종말론 또는 무시간적 종말론의 성격을 피할 수가 없다.

예수의 사건은 아담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고전 15:22). 여기서 옛 역사는 끝나고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심판이요 구원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건과의 만남에서 옛사람인 나는 죽고 새사람인 내가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원 역사라고 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부활의 역사는 일반 역사의 범주 아래 속하면서도 역사의 일반적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역사이다. 그는 이것을 비역사과학적인 역사라고 불렀다.¹⁴⁵⁾ 또한 바르트는 하나님께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 죄인의 길을 걷는 자, 곧 비행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없는 자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람도 하나님 은혜의 선택의 대상이요. 그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며 그가 받아야 할 심판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 구속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주장한다.¹⁴⁶⁾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바르트는 죽음을 인간 세상의 최고의 법이며, 부정하게도 영원히 인간의 삶에 침투한다고 했다. 그러나 바르트의 죽음관은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는 이해와 상반되게 자연적 죽음을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¹⁴⁷⁾

이외에도 19세기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은 죄와 신체적 죽음의 인과론적 관계를 거부했으며, 신체적 죽음을 '자연적 죽음으로 보고, 죄와 심판과 별의 종교적 틀에서 그것을 해방시켰다. 이들은 죄의 결과는 영적 괴리, 내적 불평화, 윤리적 부패, 영원한 저주에 대한 공포이다. 시체의 죽음을 죄로부터 연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⁴⁸⁾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인간의 죽음 극복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기독교의 죽음 이해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부활이라는 사

145) 박봉량, "부활의 현대적 이해," *기독교사상*, 1980년 4월호, 16.

146) 김균진, *해겔과 바르트*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384-349.

147) 전인수,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으로서 목회자의 역할*, 42.

148) Jurgen Moltmann, *오시는 하나님: 기독교적 종말론*,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163-165.

실이며 이를 통해 죽음이라는 세력은 파멸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이에 동참할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잠과도 같으며 이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계신 정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출발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예전적 죽음 이해

지금까지 성경적 그리고 신학적인 죽음 이해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러 가지 예전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예전 속에서도 죽음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때론 비의도적으로 죽음의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주로 성찬과 세례를 중심으로 예전을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전 속에서 죽음과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마가복음 10절 38절에 보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다. 즉 성찬과 세례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잔’과 ‘세례’는 모두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다. 즉 ‘잔’은 일차적 의미로는 마시는 그릇을 가리키며 구약성경에서 때로는 변영의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했으나, 시편 16장 5절과 23장 5절에는 주로 괴로움과 수난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시 75:8; 사 51:17; 랍 49:112; 겔 23:31-34). 본문에서도 역시 문맥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세례’에 해당하는 ‘바티조마’ 역시 구약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어떤 사람이 극심하게 당하는 재난이나 고난을 의미한다(시 69:1,2). 그런 의미에서 ‘잔’과 ‘세례’는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용어라 할 수 있다.¹⁴⁹⁾

따라서 성찬과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삶에의 동참임을 전제할 때 이는 다시 말해 성찬과 세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의 동참과 그리스도의 부활에의 동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부터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음을 믿고 이에 동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할 것을 믿는 의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예식 속에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독교적 죽음 이해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49)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사전 마가복음* (서울: 제자원, 2000), 93-94.

더 나아가 성찬의 신학적 의미를 보면, 첫째 성찬은 감사의 예전이고, 둘째, 그리스도와 연합이며, 셋째, 주님의 희생을 회상하고, 그 부활의 승리와 귀하신 교훈을 되새기는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즉, 성찬은 중보자로서 주님의 희생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성찬을 통해 부활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만찬 현장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뵈는 신앙적 경험을 더욱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례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발생하는 사건이라면 성찬은 오늘도 스스로의 몸을 찢기고 보혈을 흘리시는 희생적 사랑의 재현인 것이다.¹⁵⁰⁾

이처럼 우리는 성찬과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내용으로 이루어진 예전임을 알 수 있다. 성찬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회상하며 그분의 삶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의식이다. 세례는 이전의 세상에 속한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예식을 통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기독교적인 죽음 교육을 구성함에 있어서 예전이 죽음 교육의 훌륭한 장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150)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4), 200-204.

제 4 장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는 주로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죽음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죽음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견해도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좀 더 나아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기인한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제 1 절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태도

그리스도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죽음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시고,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으시고 죄인으로서 죽으셨다(고후 5:21). 그리하여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롬 6:3-10). 예수의 부활은 예수 자신의 자연적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창조적 사건이다(행 2:32).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생명과 죽음의 주님 되심을 계시하셨다. 예수의 부활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이요 그 보증이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¹⁵¹⁾ 이러한 기본적 사실들을 전제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본 절에서 살필 것이다.

1. 그리스도인의 죽음

151) 총회예식서개정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 예식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397.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죽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죽음 역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어야 한다. 성서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듯이 주님을 위해 죽고(롬 14:7; 빌 1:20) 증거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눈에 희생의 가치를 지닌 피 뿌림이다(빌 2:17; 딤후 4:6).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요 21:19),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월계관을 씌워준다(계 2:10; 12:11). 이제 죽음은 전율케 하는 숙명이 아니라 참된 성화의 대상이 되었다. 죽음은 의인들에게 평화와 안식과 영원한 빛으로 들어가는 문이다.¹⁵²⁾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화라고 할 수 있다.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 본질 안에서 항상 현재적 인간으로서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그 관계는 시종일관하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 대해 그의 신실한 돌보심을 바꾸지 않는다. 그는 항상 어디에서나, 그의 백성을 향하여 피조물과 더불어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시는 최상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역사적 질서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께 귀착된다.¹⁵³⁾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머리이며, 새로운 아담으로서(롬 5:14) 십자가상의 죽음에 모든 사람을 포괄하였다. 따라서 그 분이 죽음 안에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다(고후 5:14). 그러나 이 죽음은 각 사람에게 실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장사지내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묻히며, 그의 죽음에 합치된다(롬 6:3; 빌 3:10).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골 3:3). 우리가 죽는 이 죽음은 바로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가 나타내는 모든 사물의 질서에 대한 죽음이다.

다시 말해 죄의 권세에 대해서와 우리의 옛 사람에 대한 죽음이며,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에 대한 죽음이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다(골 2:13).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산 자들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돌아왔으며, 또한 죽음에 이르는 행실로부터 해방되었다(히 6:1; 9:14). 그리스도의 말씀과 누구든지

152) 최순남, 신앙은 "임종에 영향을 주는가," *기독교사상*, 1983년 4월호, 67.

153) N. Pittenger, *죽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이범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58.

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더라도 살기 때문이다(요 11:25).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될 것이다(고후 2:16). 이렇듯 죽음과의 대결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전개된다.

그 결말은 예수와 그의 복음에 직면하여 내리는 당사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 즉, “내 말을 잘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요 8:51).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4).

한편 세례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와의 결합은 매일 삶 속에서 끊임 없이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행실과 모든 세속적인 욕망들에 대해(골 3:5; 약 1:15) 죽음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인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죽음의 의미를 바꾸셨다.

이렇게 볼 때 육체적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상대적인 것이 된다. 즉, 죽음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체념해 버리는 불가피한 숙명이나 자기가 초래하는 단죄만은 아니다. “살든 죽든 주를 위하여 사는 한 우리는 주의 것이다”(롬 14:8). “내게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전부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빌 1:21). 이와 같이 육체적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와 일치한 삶이듯이 그리스도인의 죽음 역시 그리스도와 일치한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은 생명을 얻는 죽음이다(롬 6:8-9; 딤후 2:11). 주님은 지상생활 동안 자신이 생명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과 기적을 통해 가르쳐 주었으며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

따라서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삶과 연결된 사건이다. 사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 말하는 성구는 그 모두가 삶을 전제로 하고 있다.¹⁵⁴⁾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주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죽을 육체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롬 8:11)의 자비를 믿고 바라며,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총인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죽음을 변형시킨다.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154) 홍인태, “기독교의 죽음 이해와 목회자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82.

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것 역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힘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며(요 11:26),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죽음을 벗어나 생명의 나라(요일 3:14)에 들어와 있다. 예수와 죽음과 부활은 우리 인간들도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증이고 담보이다.¹⁵⁵⁾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도 생명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롬 8:38-39).

2.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은 누구나 한번 생각해 보고 지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바울은 오히려 죽음을 이 세상과 다음에 올 세계 사이의 경계선이나 주님께서 길을 예비하시려 가신 분으로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가 그 길을 향하여 걷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는 이미 죽음에 대하여 준비되었고, 그것을 고대하며 마음이 평온한 까닭은 그에 의하여 정해진 구원의 확실성과,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 죽음이란 것은 주님께서 그의 유업으로 그를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날은 사실인즉 영광의 절정에 올라가는 날이 된다. 곧 죄와 슬픔과 고통과 실망, 괴로움과 고난의 세계를 떠나서 보다 더 훨씬 좋은 세계, 거룩하고 복된 세계, 행복과 자유와 완성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날이 된다.¹⁵⁶⁾

죽음에 대해서 성도에게는 언제나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할 두 가지 면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고통은 없어지고 이제는 죽음이 앞에 놓인 세계를 위한 땅위에서의 최후적 훈련으로서 오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죽음은 그 당사자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예비뿐만 아니라 이 속세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에 상태를 가지게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수육(受肉)에서 인간성은 본래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안기었으며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 관계보다 가까운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¹⁵⁷⁾

155) Smith Walber, *이것이 천국이다*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8), 233.

156) Rolein Veatner, *죽음의 문제*, 김선우 역 (김포: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6), 27.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게 한다. 곧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 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고 하였다.

또 다른 한 면은 죽음은 그 자체가 결코 축복으로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유익을 위하여 지배되는 이외에는 죽음은 인류의 가슴에 애통과 비참을 가져오는 적이며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또한 무정한 것이다. 그 죽음은 정상적 상태가 아닌 죄에 대한 형벌로 필연적으로 들어오는 외에는 허락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감정화하지 않고 꾸밈없이 말하고 있다. 성경은 죽음이 죄에 대한 벌이라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치며 인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고통은 무서운 재난이라고 알려준다. 모든 관계가 단절될 때 신앙이 좋은 성도라 해도 이상하고 무서운 감정 없이는 이 신비적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¹⁵⁸⁾ 그러기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무수한 사람들까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마치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는 최대의 재난인 것처럼 죽음이 논의될 적마다 그들은 언제나 두려워 떨게 된다.

이러한 죽음관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전해이다. 구약의 성도들이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러 번 탄원했다. 나뭇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밟았고, 바울은 죽음을 마치 독사처럼 무서운 독을 가진 두려운 원수로 묘사하였다. 사망이 원수인 까닭은 그것은 원수인 사탄의 장난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이 원수의 전체적이며 최고 발악적인 소행이다.¹⁵⁹⁾

그러나 이에 대해 두려움을 넘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여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망의 재난까지도 이길 권능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망을 더 이상 무서워

157) Veatner, *죽음의 문제*, 28.

158) Ibid., 29.

159) Ibid., 30.

할 것이 없다. 성경에는 죽음에 관한 일들이 많다.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또 위대한 사람들의 생활에 관하여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꼭 같은 마지막 설명은 '그리고 그는 죽었다'라는 사실이다. 죽음은 우리 각 사람의 실제적 체험 가운데 조만간에 들어 닥치는 것이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의 가장 현명한 태도는 그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일이다. 죽음이란 사실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고 언제 죽음이 올 것인가 하는 것 이상으로 더 불확실한 사실은 없다.¹⁶⁰⁾ 이 확실한 습격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우리들의 죽음의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사람이 불러 갈 때 이 세상에 꼭 같은 형편에 있는 많은 생명들은 남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들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을 알고 언제 그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운 것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¹⁶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행한 후 우리는 우리가 기껏 한 것이 우리가 해야만 할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었다(눅 17:10). 그러므로 무덤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훨씬 완전하고 풍부한 저 세상으로 인도하는 통로이다. 내세의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끝나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여전히 남아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¹⁶²⁾

따라서 성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도의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알고 준비를 잘하려면 삶과 죽음의 지침서인 성경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잘 죽으려고 힘써야 한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총은 성도에게 생명이 결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을 직면하여서도 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삶이 그 자체의 완성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대한 태도는 자신을 탈피할 기회, 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하지 않던 그러한 자기의 삶을 버릴 기회, 그래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릴 기회가 된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시 116:15).

160) Veatner, 죽음의 문제, 45-46.

161) Ibid., 25.

162) 김광식, 기독교 신앙의 본질 (서울: 전광사 1983), 84.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계 14:13). 결국 죽음은 끝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3. 교회 안에서의 죽음

성경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죽음이며 삶의 내적 요소로써 죽음의 순간 뿐 아니라 살아 있을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만남은 육체성을 통해서, 즉 감각적인 요소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인간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으며, 성례를 제정하시어 인간과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교통을 할 수 있게 하셨다.¹⁶³⁾ 이로써 인간은 교회의 모든 성례와 가르침, 그리고 교회의 전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특별한 성례를 통하여 더욱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교회 안에서의 죽음이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반드시 성례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 만남이 이루어진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잠근다(롬 6:3).

즉,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롬 6:4).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빌 3:10)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죽음에 임하여 그리스도와 닮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인간은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세례는 생전에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사이에는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관련성이 있음이 틀림없다. 나아가 세례에서 일어나는 상징적 죽음과 그리스도인의 실제 죽음 사이에도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관계가 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그와 함께 묻히는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두고 하는 말인 이상, 그 죽음은 실제 의미의 죽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당하는 현실적인 죽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유사성이 있고, 이 유사성은 우리가 받은 세례에 근거한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에 있어 죽음이라는 말은

¹⁶³⁾ Vorgrimler, 죽음, 186.

단지 은유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실제로 겪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을 가리킨다.

결국, 신앙과 성례의 삶을 통하여 이루게 될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일치는 인격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계 14:13)는 이 참여로 우리 생활 전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실제 죽음에서 완결된다.¹⁶⁴⁾

그리스도인은 은총의 상태에서 생활함으로써 자기 일생에 걸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간다. 이 죽음은 결코 죄의 결정이 아니며 오히려 죄를 몰아내는 가운데 구원을 자기에게 성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례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의 시작임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죽음에의 시작이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의 세례 외에 성찬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부활의 희망을 강하게 견지하게 하는 것이다. 성례는 축복과 천교와 하나님과 교회의 삶에 대한 소속감을 주게 된다. 즉, 마지막 성례는 환자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근심과 또한 죄의식과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게 해 줄 것이다.¹⁶⁵⁾ 기독교와는 대조적으로 가톨릭에서는 임종성찬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 진다. 교회에서의 성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식시켜 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이식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교회는 여러 가지 목회적 배려를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순절, 부활절 등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죽음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그의 죽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죽음,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죽음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야 한다. 교회 공동체가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그가 속한 사랑의 공동체가 죽음으로조차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확신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모든 것이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만은 변함없이 교감된다는 표징이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가 임종을 당할 경우 생의 경계선까지 바래다주며 주안에서의 안식과 영광의 도성을 향한 여정이 외롭지 않게 찬송과 기도로 축복해야 할 것이다.

164) 사진편찬 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 교문사, 1995), 473.

165) 반피득, *목회상담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250.

4. 그리스도인의 부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죽은 자로부터 예수의 부활에 기초한다고 확증해 주고 있다(벧전 1:3-1).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오실 때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고전 15:12-14, 20-23)이라고 주장한다. 또 “주 예수를 일으키신 분이 우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실 것이라”(고후 4:14)고 확증한다.

생물학적 죽음을 전제할 때 예수의 죽음과 피조물인 사람의 죽음은 다를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이 잠자는 자들에게도 예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이 있을 것인가에 있다. 만약 부활을 신앙하는 자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은 죽은 자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하는 자들에게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부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다(마 22:23; 행 23:8). 바울이 아덴에서 부활에 관해 말하자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다(행 17:32). 고린도교회 교인 가운데서도 부활을 부인했으며(고전 15:22), 후메나오와 빌레도 역시 부활을 순전히 영적인 것으로 취급했으며 그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상의 사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딤후 2:18).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장에서 비켜갈 만한 주장이 있는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비기독교인 가운데서도, 비성서적 내용을 가진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의 부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쩌면 죽음을 하찮은 것이나 범속한 것으로 만들며 비신성화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하여 죽음을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이나 불의한 심판의 행위가 아니라 곤경으로 느끼고 있다. 죽음은 더 이상 생명의 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무(無)로 떨어지는 벼랑이며 생명의 한계이고, 생명의 끝이라고 믿고 있다. 죽은 후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삶의 비중은 죽음 이전의 생명에 놓여져¹⁶⁶⁾ 말초적 본능에

166) Horst G. Pohlmann and Abriss der Dogmatik, *교의학*, 이신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

의지된 인간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주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성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전환된다. 구약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부활은 이방종교에 근거를 두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를 둔다. 예수님도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미 그것이 암시되어 있다고 지적하셨고(마 22:29-32), 히브리서 역시 죽장들조차도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히 11:10; 13-19). 또한 스올에서의 구출 표현(시 49:15; 73:24-25; 잠 23:14)이나 욥의 진술에도 나타난다(욥 19:25-27).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 12장 2절, 에스겔 37장 1-14절에서도 부활의 개념은 암시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해석의 정점에 부활이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 자신에 의해 약속되었고 이를 하나님이 그의 권능 안에서 이루셨다. 특히 죽은 자들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요 5:25-29; 6:39; 11:24-25; 14:3; 17:24). 죽은 자에 관한 신약의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6절, 고린도후서 5장 1-10절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고지하고 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모든 것을 극적으로 선포하고 있다(고전 15:51-54).¹⁶⁷⁾

부활은 신앙의 궁극적인 관심이다. 우리들의 삶은 부활과 함께 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몸의 부활로 나타나셨기에 죽은 자들도 몸의 부활에 참여한다. 성령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죽어 장사된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다. 이렇듯 죽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를 두며 산 자들의 부활의 희망도 오로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난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전체로서의 인간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사건으로, 다시 말해서 “죽을 몸을 살리는 것”(롬 8:11)으로 기다려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요”(행 3:15).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요”(행 26:23).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요”(골 1:10).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 1:15). 죽은 자들의 부활이 예수로 인하여 시작했으며, ‘살리는 영’ 안에서 계

1993), 446.

167) 최장근, *인간의 죽음과 부활신앙의 역동성 연구*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60.

속되며, 예수께 속한 사람들과 죽은 자들은 부활 속에서 궁극적인 관심을 완성할 것이다.¹⁶⁸⁾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부활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활을 일으키시는 살리는 영인 성령에 의하여 일어나는 궁극적인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제 2 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인간에게 열어 주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즉, 기독교에서의 죽음 이해는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부활신앙에 동참으로 죽음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며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부활의 이해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서의 희망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부활의 개념과 이해

부활은 묵은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성경은 예수의 부활을 표시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한다. 하나는 타동사인 ‘깨우다, 깨워 일으키다’로서 능동형으로도 쓰이고 수동형으로도 쓰인다. 다른 하나는 자, 타동사인 ‘일어나게 하다, 일어나다’이다. 이 두동사의 성경적 용법은 물론 은유적 어법이요 ‘부활하다’를 ‘잠에서 깨어나다, 깨이다’에 비유하여 사용한 어법이다. 부활에 관한 언급에는 이러한 상징적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해 둘 필요가 있다. 죽음이라는 한계의 차안, 즉 아직 이승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의중(義中)에 두고 실재를 직접적으로 관조(觀照)하고 이를 적합하게 언표(言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막혀 있다. 우리는 상징과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168) Möltmann, *오시는 하나님*, 130.

앞서 말한 두 개념을 비유적으로 사용한 예는 헬레니즘 문명권과 유대교에서도 발견된다. 이렇게 사용된 두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현세적 생명으로 되살아 온 죽은 자의 소생이거나, 아니면 후기 유대교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죽은 모든 사람들의 종말론적 부활이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 예수의 부활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예수와 함께 종말론적 사건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분명하게 긍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수는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로 부활하신 분이다(행 26:23, 고전 15:20, 골 1:18). 이로써 예수의 부활은 종말론적 희망의 지평 안으로 옮겨 놓이게 되고 종말론적 사건으로서의 그 질이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부활은 결코 묵은 생명으로의 복귀가 아니다. 그는 썩어 없어진 이승살이로 되돌아 온 것이 아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단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며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살아계신 분으로서의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계시고(롬 6:9), 부활은 묵은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고전 15:42).¹⁶⁹⁾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다른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다. 우리는 보통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생명의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이요(계 21:1), 사망의 부활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의 부활이다(계 21:8).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모든 삶은 생명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이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에는 두 가지 중요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회복의 능력이고, 둘째는 부흥의 능력이다. 생명의 부활 속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 가지 회복을 들 수 있다.

첫째, 생명으로의 부활이다. 부활을 통해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된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다. 히브리

169) 기독교정보넷 <http://www.cjob.co.kr/bbs/board.php/>

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슬픈 죽음이 부활의 날에 생명으로 회복될 것이다(요 11:25-26). 우리는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다. 부활 속에는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둘째, 아름다움으로의 회복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정한 것처럼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깨끗함과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는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삶의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은 비단 세상과 자연뿐만이 아니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리라는 것이다. 부활에는 모든 악하고 추한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와 삶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셋째, 완전함으로 회복이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다. 불완전함에서는 불안전함이 나오고, 그 불안전함에서 모든 실패와 좌절이 생겨난다. 세상은 늘 불안전하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러나 부활은 그런 인간의 모든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회복시킨다. 완전함의 회복은 안전함으로 나타나고, 안전함을 통하여 모든 실패와 좌절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눈물도, 애통함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의 부활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에게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원시 기독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근거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근거이기도 하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죽는다. 하나님 신앙과 그

리스도 고백은 부활이라고 하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은 서로를 해석해 준다.¹⁷⁰⁾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으며 장사된’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다. 오직 이러한 관점에서 부활이 특별한 구원의 의미를 얻을 때¹⁷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수 있다. 예수 부활현현의 성서적 기록은 바울에 있어서 보인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3-8).

바울이 부활현현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은 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조지 래드(G. E. Ladd)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세 가지 사실에서 찾고 있다.¹⁷²⁾ 첫째, 동일성(Identity): 이것이 중심점이다. 부활하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장사지낸 바 된 바로 그 예수이다. 둘째, 연속성(Continuity): 예수께서도 육체적 감각으로 감지될 수 있는 신체의 형태로 부활하셨다. 바울도 부활은 육체적 성격을 강조한다. 셋째, 비연속성(discontinuity): 비록 육체적 부활을 하셨지만 그 신체는 이전과 똑 같은 신체는 아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세력을 소유한 변화된 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는가. 그것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성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부활을 앞서 맛보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170) Jurgen Moltmann, *예수 그리스도의 길*, 김관진, 김명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305.

171) Ibid., 306.

172) George. Eldon. Ladd, *마지막에 될 일들*,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92), 93.

는 빈 무덤을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에게(마 28:6; 막 16:5-6; 눅 24:1-5; 요 20:1-8) 보여 주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는 우선 여인에게(마 28:9-10), 막달라 마리아에게(요 20:11-18), 베드로와(고전 15:5; 눅 24:34),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와(눅 24:13-31), 열 한 제자들과 다른 사도들에게(마 28:16-20; 눅 24:36-49; 요 20:24-29; 행 1:6-9) 그리고 제자들과(요 21:1-14) 오백 명 이상의 형제들에게와(고전 15:6) 야고보에게(고전 15:7) 각각 나타나셨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과 하나의 종말론적이며 신론적인 사건이 내면적으로 일치될 이루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부활은 십자가상에서 죽은 그의 죽음의 완결이요 완성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의 생애와 수난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일어난 어떤 다른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의 죽음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육체를 지닌 한 인간이 자의와 타의에 의해 자신을 완전히 드린 사건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철저한 헌신을 기꺼이 받아 들여 주신 사건이다.¹⁷³⁾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 확실성을 주고 있는가? 래드는 예수의 부활의 가치는 종말론적 성격 안에서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 예수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을 확증한다는 것이다. 부활은 이제 희망¹⁷⁴⁾ 이상의 한 사건이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이 사건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도 망하였으리니”(고전 15:14-18). 여기에 놀라운 진술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다.

둘째,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그의 부활과 같은 것임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그가 장차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실 때,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빌 3:21).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된 것을 의미한다(고후 5:4).

우리는 이러한 예수 부활의 의미 고찰을 통해 바른 부활관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부활의 몸이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을 것이라고 믿는다. 부활은 예수의 생애 중 선포된 말씀 속에서 약속(마 16:21; 막 8:31; 눅 9:2)된 것이며 하나님은

173) Walter Kasper, 예수 그리스도, 박상래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1), 255.

174) Ladd, *마지막에 될 일들*, 96-97.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또한 성령은 부활을 신앙으로 전환하는데 역사하셨음을 성경은 오늘도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고백 안에서 예수의 부활을 오늘 우리의 부활로 보증할 수 있게 된 것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3. 죽음을 극복하는 희망

인간이 죽음의 불가피성 앞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희망에 있음을 제시하려 한다. 그러면 그 희망이 무엇인가? 아무리 인간이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수용한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희망에 있다. 그래서 그 희망이 무엇이며, 희망적 근본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은 원래 희망을 소유할 뿐 아니라 희망의 존재이다.¹⁷⁵⁾ 희망 없이 미래와 관련을 맺지 않은 채 사랑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규정하는 현재와 구별되는 미래를 조준하여 생활하기에 이러한 인간의 희망은 개별적인 소원과 열망, 그리고 기대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희망은 만사가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며 죽음마저 희망의 마지막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다.¹⁷⁶⁾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죽음이라든가 무의미한 실재가 곧 최종 실재가 아니라는 희망은 언제나 함께 존재하였음을 시사하는 표징들이 발견된다. 이런 희망 속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이 삶의 무의미한 단절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삶과 죽음의 단일성과 전체성 속에서 삶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희망의 표상들을 남겼다.¹⁷⁷⁾

그러면 이러한 희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단순한 소망과 동경의 환상적 투사인가? 아니면 과학의 힘에 의한 극복인가? 이 물음은 예수의 부활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천년 전 역사에서 한번이자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의 삶과 죽음에서 세계와 인간 삶의 덧없음과 헤어날 길 없는 절망과 유한함이 나타났고 무의미함과 좌절, 죽음의 어두움이 부각되어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과 비참함과 좌절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희망의 사건으로 보여주셨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

175) 심상태, *그리스도와 구원* (서울: 분도출판사, 1981), 104.

176) Ibid., 106.

177) 홍인태, *기독교 죽음 이해와 목회자의 역할*, 94.

을 초월하는 삶에 희망과 확신을 심어주었고, 하나님이 인간적 운명을 무상하고 무의미하게 버려두지 않고 만사가 끝난 듯이 보이는 곳에서도 구원 가득 찬 완성된 미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미래는 아무런 결핍이나 부족이 없고, 모든 암흑과 무의미한 세력을 거슬러 있는 미래이며, 예수의 부활에 우리의 미래가 성취되어 있음을 단순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건이므로 그의 부활에 우리의 미래가 함께 약속되어 있는 동시에 희망의 목표로서 우리에게 제시된 사건인 것이다. 이러한 희망의 사건은 또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신의와 약속을 보여준 사건이기에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는 희망은 인간 속에 있는 불멸하는 영혼의 힘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과 의지,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신의에 있기에 우리는 불멸의 영혼에 입각해서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인간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희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G. 그레샤케(G. Greshake)도 우리의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삶 속에서 의의와 완성, 그리고 전체성을 지향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 충만에 이를 수 있다고 희망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을 부활시킴으로서 전능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의해보로소 증명된다. 때문에 희망이 인간을 지향하거나 불멸하는 힘을 지향한다는 흔적이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희망은 오로지 예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향하고 있다.¹⁷⁸⁾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의 미래이며, 최후의 의미이고 목표임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희망할 수 있으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희망과 확신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

178) G. Greshake, *종말신앙*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0), 89.

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장 31-39절).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희망으로 죽음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이기는 희망을 소유하기에 그리스도인은 ‘희망하는 사람’(엡 2:12; 살전 4:13)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희망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극복하는 희망에 대한 확신과 의지 그리고 믿음의 생활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희망은 현실의 삶에서 신앙이 없이는 입증될 수 없으며 인간적으로 보면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기에, 자신의 믿음과 결단이 요구되고 항상 부활한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을 투신해야 하며 이 투신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성장함으로써 이 희망은 구현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아버지, 내 삶은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생명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웃에게 봉사하며 자비를 베푸는 삶은 죽음마저 그의 부정적 성격을 변모시키게 한다. 이와 같은 친근한 인간애적 죽음은 보다 개선된 생명의 문과 희망의 장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전해 가는 복된 것이다. 이러한 죽음의 기대는 신앙과 희망과 사랑의 열매이며 특히 죽음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희망의 열매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희망의 특색은 첫째로, 인간의 염원이나 욕구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또한 철학적 추론도 아닌, 완전히 신앙적인 희망이다.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은 결코 실망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총으로서의 희망이다.¹⁷⁹⁾

둘째로, 이 희망은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이나 성공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체를 지배하시는 나라가 온다는 희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희망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며 세계와 역사의 구원, 모든 피조물의 구원, 새 하

179) 김정우, “죽음과 삶,” 60.

늘과 새 땅의 출현을 기다리는 희망이다.

셋째로, 이 희망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근거하고 교회에서 확증된 희망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희망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태에도 동요하지 않으며 실망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힘으로 주의 역사에 동참하여 현재를 충실히 살도록 허락 받았다.¹⁸⁰⁾

한편 다른 생이 이 세상의 뒤를 이어 온다고 생각하면 7-80년이란 이 땅에서의 세월은 영원과 비교할 때 마치 눈 깜박할 사이에 불과한 것이다. 영원의 무한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궁하다. 심지어 969년을 산 브두셀라의 일생이 아주 보잘 것 없이 짧은 것이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번성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이 있다는 성경의 언약을 사실로 믿어야 한다.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품성을 기르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¹⁸¹⁾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희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에게 부여된 부활과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죽음을 초월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4. 그리스도의 재림과 결과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한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이야기에서 재림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 그러나 성경은 재림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 다시 오신다고 할 뿐이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던 주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즉,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적어도 신약성경에서 318번이나 그것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회와 신자들의 희망이며,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완성되어 감을 알려 주는 사건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해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한 미래의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때는 불확실하

180) 성서문화연구회 편, *성서에서 배우는 인간상* (서울: 기독교문화연구회 1980), 96-98.

181) Veatner, *죽음의 문제*, 100.

다. 예수께서도 그때를 분명하게 예측하지 못하신다고 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마 24:3)라고 물었을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36)고 하셨고 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행 1:7)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때를 작정하셨고 또 그만이 아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그때까지 제자들이 행해야 할 사명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종말론적 이단들이 그날을 점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으나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다. 단지 성경은 지진과 기근, 난리와 전쟁이 심해지고(마 24장),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마 24:14),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되는 때(롬 11:26) 정도로만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여간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 멀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4),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날을 맞을 준비만 단단히 하고 있을 뿐이다.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은 처지에 빠지지(마 25:1-13) 않기 위해서이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인류 역사를 하루라고 했을 때 지금은 오후 11시 59분 5초라고까지 한다.

재림의 특성은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로, 그것은 그가 친히 오신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고 하셨고,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살전 4:16)라고 했다.

둘째로, 재림은 그가 승천하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한(행 1:11),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의 육체적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시면서 오신다(마 24:30)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므로 이미 오순절에 오신 성령강림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성경적인 설명이다. 또 구름은 바로 물이므로 재림주는 어머니 몸에서 물

(양수)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이단들의 현혹도 전혀 귀를 기울일 것이 못된다.

셋째로, 그의 재림은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고 천사는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행 1:11) 했기 때문이다.

넷째로, 그의 재림은 예기치 않게 이루어진다. 몇 가지 표적이야 미리 주어지지만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는 중에 갑자기 오실 것(마 24:27)이기 때문에 준비는 미리 해야지 그때 가서 할 수는 없다(마 25:1-13). 그때 가서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느냐 하는 것은 그를 맞을 준비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준비된 성도들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마치 밤에 도둑을 맞는 것처럼 당황하며 맞으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재림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영광중에 이루어진다.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큰 나팔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마 24:30-31; 막 13:26; 눅 21:27)는 것이다. 처음 오셨을 때에는 사람들의 심문대에 서서 재판을 받으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만물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¹⁸²⁾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결과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겠지만, 우주적 종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처음 세상에 오셨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오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고, 그가 다시 오시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라는 최종적인 상태로 영원히 분리된다는 것이다.¹⁸³⁾

이는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목회적 돌봄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에 성도들은 그날을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82) 이용원, *무엇을 믿을까요?*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197-198.

183) Ibid., 204.

제 5 장

목회자의 죽음 교육과 목회적 역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부활신앙에 동참함으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앞 장에서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기독교적 죽음이해를 기초로 하는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과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가서는 목회자가 죽음 앞에 있는 임종자와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 1 절 죽음준비교육의 기독교적 접근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세워진 종교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한 개인의 생애에서 죽음이 궁극적인 도착점이며 인생의 완성점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죽음의 교육은 삶을 바르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필요한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한 죽음준비교육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자연현상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평상시에 의식적으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삶을 살아간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죽음에서부터 격리되며, 유가족들도 죽음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기에 죽음에 대한 공포, 부당한 현실 등이 정말 모를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하여 막

상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는 이와 남은 이 모두 당황하거나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을 ‘왜 하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죽음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죽음과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죽음준비교육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¹⁸⁴⁾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죽어가는 과정인데, 이것과 죽음 그 자체는 인간이 부딪쳐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허둥지둥하게 되고 그래서 말을 해야 할 순간에 말을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동안 교회는 왜 죽음에 대한 교육을 기피하거나 금하여 왔는가? 여기에 대하여 김인자는 “죽음에 대한 의식과 교육의 필요성”에서 다음의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¹⁸⁵⁾

첫째로 죽음은 체험을 통해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이며, 둘째는 기독교계의 영향 때문이다. 즉, 교회에서 죽음을 말할 때 이것은 곧 영생이고 부활이다. 그러기에 죽음에 대한 연구는 종교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기독교는 이것을 금기시하였다. 셋째, 죽음은 실험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넷째, 죽음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이다. 마지막 이유는, 죽음에 대한 교육 부재의 결과이다. 죽음과 삶을 연결시키지 않고 단절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이란, 사실은 새로운 주제가 아니고 유사 이래 인류가 끊임없이 안고 내려온 문제이다. 다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언급하기를 원치 않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언제 죽으리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¹⁸⁶⁾

그러나 우리는 지금 숨 쉬고 있기 때문에 숨이 끊어질 죽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와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피한다고 올 것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죽음을 친숙하게 벗 삼을 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¹⁸⁷⁾ 특히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죽음을 삶의 한 과

184) 김인자, “죽음에 대한 의식과 교육의 필요성,” *기독교교육*, 1991년 10월호, 15.

185) Ibid.

186) 이대건, “임종자에 대한 교회의 봉사,” *기독교교육*, 1991년 10월호, 18.

187) 김인자, “죽음에 대한 의식과 교육의 필요성,” 14-15

정으로 배울 때, 죽음이 더 이상 외계인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수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⁸⁸⁾ 또 한 가지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현실은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죽음은 곧 영생이요 부활이라고 확신하더라도 죽음이란 역시 유한자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픈 체험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 임종을 맞이해서 죽음 속에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르쳐야 하며 개인들은 죽음을 명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죽음과 삶이 구분되지 않고 연관성과 연속성을 가질 때 바른 교육은 이루어지게 된다.¹⁸⁹⁾

다시 말하면,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에 대해 금기시하는 사회나 개인에게 죽음을 수용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죽음으로 도달해야 하는 과정은 곧 삶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불어넣어 시간의 귀중함과 삶의 질이 풍부해지도록 가치관과 사생관(死生觀)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죽음준비교육이란 개인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죽음이라는 현상과 죽어감에 대한 진행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바람직하게 갖게 하고 정보를 나눔으로써 죽음에 대한 준비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죽음준비교육의 목표

죽음준비교육의 목표는 죽어 가는 현상에 관련된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삶의 현실인 죽음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일정한 죽음의 태도를 갖게 하고 정보를 나누려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죽음준비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는 죽음의 교육을 통하여 자신이 당장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많은 사람들의 체험이나 문학과 예술 작품들을 통하여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현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그들의 사상을 배움으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준비할 수 있으면 이는 곧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 된다.¹⁹⁰⁾

죽음준비교육의 목적은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늘

188) 김인자, “죽음에 대한 의식과 교육의 필요성,” 17.

189) 이대진, “임종자에 대한 교회의 봉사,” 22.

190) 방수동, *기독교적 죽음교육*, 54.

날에는 삶의 이해를 확장하여 삶과 죽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과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쟁점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그 목적이 확대되었다.

죽음준비교육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받는 수 많은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곧 삶의 성찰이 되도록 하여,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¹⁹¹⁾

현재 죽음준비교육은 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모두 같지만 각 기관과 단체마다 추구하는 목표는 조금씩 다르다.

또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매우 복잡한 영역이기에 개념화하거나 적절히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결국 죽음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생의 단계에 따라 특성과 발달과업에 맞는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와 심리적인 적응을 성취하도록 하는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남은 생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갑작스런 죽음에 직면하여 당혹스러운 인생을 맞기보다 죽음을 의연하고 정직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할 것이다. 죽음이 삶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상에 연결된 것임을 인식하게 하여 포근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죽음 자체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영원히 사는 준비를 하면서 일생동안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장에서 논의한 기독교적 죽음을 통한 삶의 의미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에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그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죽음 후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3. 죽음준비교육의 내용

죽음준비교육의 내용은 먼저 죽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갖는 자기 성찰적 삶을 살아가는 것과 기독교적인 죽음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죽음 이해와 죽어가는 과정 및 죽음 관련

191) 서해정, 노년죽음학개론, 126.

정보를 제공하여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과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불안 공포 등의 감정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교육내용이어야 한다.¹⁹²⁾

즉, 죽음에 관한 성경적, 신학적 이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례전과 죽음,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성찰적 삶에 관한 기독교적 영역의 내용과 함께 삶과 죽음의 의미, 인간의 유한성과 운명과 같은 철학적 내용도 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학적이며 심리학적인 영역의 내용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죽음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발달 단계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아직 죽음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이지 않음으로 기독교적 죽음 이해와 더불어 사회적인 죽음의 이해를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들의 경우에는 죽음을 자신과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므로 죽음에 일반적인 이해와 발달단계에 따른 죽음 이해와 기독교적 죽음 이해의 요소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죽음을 금기시하는 문화 속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노출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내용 선정에 있어서도 심리상태와 반응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기독교적 죽음 이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짐을 이해하며 이 땅에서 살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찰적이어야 함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¹⁹³⁾

죽음준비교육 내용을 앞의 2장 1절의 죽음의 일반적 이해 영역에서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학적인 면에서 윤리와, 법률에서의 교육내용을 보면 오늘날 첨단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죽음의 정의를 다시 묻게 되었고 생명 윤리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사항은 의학과 법학, 윤리학의 경계 선상에 제기된 것으로 각 전문분야의 지식을 도입,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죽음준비교육의 내용으로 해야 한다.

의학에서의 교육내용은 죽음의 정의, 안락사에 관하여, 뇌사와 심장사, 식물 인간 상태, 죽음과 법률, 양수검사, 인공임신중절, 선천성 기형아, 호스피스 케어, 진행성 암 환자에 있어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 장기이식, 죽음의 과정, 말기보살핌, 비탄, 죽음의 학, 죽음의 의의, 죽음의 알림 등이 있다.

법률에서의 내용은 유언을 쓰는 방법, 유산상속에 관한 법률상식, 장례식의 집례,

192) 방수동, *기독교적 죽음교육*, 88.

193) Ibid., 89-90.

시체의 매장절차, 묘지의 설정에 관한 지식, 장기기부 또는 병리해부를 위한 필요한 시체의 제공 여부, 말기의 의료조치에 관한 태도 등에 관한 법적효력, 수속 절차 등을 알아두는 것은 사회인의 상식으로 필요하다.

둘째, 종교적인 교육내용으로는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존재하면서 사람은 왜 죽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후세계는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애써왔으며,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인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리려 했다. 이처럼 교육의 내용으로는 종교와 죽음, 종교에 의한 죽음과 삶의 상이점, 죽음 후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죽음의 과정, 종교에서 보는 사생관, 죽음의 공포, 사후의 세계, 종교에서의 죽음의 의미 등의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다.

셋째, 심리학적 교육내용으로 죽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죽음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고, 또 자녀, 배우자, 친척이 병들어 걱정하거나 유가족을 만났을 때 그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돕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이나 심리 및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으로써 비록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처를 입었거나 분노를 느끼거나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파괴적인 본능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그가 안전한 생각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다. 심리학적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별자에 대한 돌봄, 죄책감과 회개의 처리, 말기환자의 정신요법적 접근, 말기환자의 요구와 기대, 급성비탄 반응에 관해서, 병적 비탄이란, 유가족의 돌봄, 말기환자를 가진 가족에 대한 돌봄, 자살 예방, 발달 단계에 따른 죽음 개념의 인식 등이 있다.

넷째, 사회학에서의 교육내용으로는 가족 구성원 중에 죽음 보다 넓은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사람의 죽음은 그 가족이나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겪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 죽음을 마치 살아 움직이는 현실을 공유하듯이 그렇게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죽음은 철저한 사회적인 현상이어서 어느 하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누구나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죽음 이해 속에서 나의 죽음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회학 측면에서의 죽음 교육내용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학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죽음의 사회학, 전쟁과 죽음, 안락사의 문제로부터 살신성인을 희생적인 죽음, 죽음회구의 자살이나 살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양한 양태의 죽음에

대하여 다룰 수 있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른 죽음준비교육의 내용을 2장 3절에 있는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째, 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가능하면 빨리 사실적인 문제로 죽음 의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데 텔레비전이나 동요, 동화 등에서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소개하여 악인은 죽지만 선인은 영원히 산다는 등의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유아나 어린이들은 선인은 보상으로 죽음에서 되살아나고 악인은 영원히 죽게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기 쉽다. 이런 인식을 가진 유아나 어린이는 조그만 잘못을 해도 죽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유아나 아동들에게 “엄마는 먼 여행을 떠나셨어”, “아빠는 하늘에 계시단다” 등의 왜곡된 설명은 자신에게 작별인사도 없이 떠난 엄마에게 분노를 느끼게 하며 언젠가는 아빠가 돌아올 것이라는 망상을 심어주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아나 아동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변함없이 그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안심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⁹⁴⁾

유아나 아동들에게 죽음을 이해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죽으면 더 이상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다’와 같이 간단하고 쉬운 설명으로 죽음을 감각이 없다는 것과 결부시켜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즉, 죽음의 사실성과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인식시키고 유아나 아동이 편안한 감정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언급을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¹⁹⁵⁾

특히 아동들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과 어른들의 관점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함에 있어서 염두에 둘 것은, 어떠한 어휘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는 중요하다. 그리고 소년기의 경우는 죽음을 어느 정도 인격화하고 인식한다. 또한 이때에는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기 쉬운 때이다. 예컨대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았을 때 제발 아버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정말로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심한 죄책감을 가진다.

조이스 브라더스가 죽음에 대해 제시한 교육의 모델을 몇 가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의 개념을 소개하는 놀이가 숨기(peekaboo)이다. 이것은 얼굴을

194) 이정희, “아동의 죽음개념 형성 및 그 중재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1988), 15-16.

195) Ibid., 16-17.

손으로 가렸다가 떼는 순간 아기는 상징적으로 잠시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둘째는 아동에게 죽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교육을 한다. 특히 평상시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죽음의 뉘앙스를 솔직하게 강조해 줌으로써, 어린이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해 준다.¹⁹⁶⁾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의 태어남과 성장, 죽음에 대해서 설명한다. 둘째, 식물의 씨나 낙엽 등을 갖다 놓고 자연의 사이클에 관찰을 통해 배우게 하며 무생물과 비교하게 한다. 셋째,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넷째, 묘소를 방문하여 비석과 산소의 의미를 교육한다. 다섯째, 소설 등을 읽게 하고 죽음을 맞는 주인공이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 한다. 여섯째, 잡지, 앨범 등을 보여주면서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성장, 노화를 이야기함으로 교육한다.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와 독일에 국공립 중등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미국의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의 죽음교육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시행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에서 초등학교 죽음의 교육내용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죽음에 대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은 초등학교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초등생에게 있어서 죽음에 가장 가까운 경험은 동물의 죽음과 같은 생물학적 사실보다는 실패, 상실, 이혼, 상처 등에 따르는 상실감 등의 정서적 사실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죽음이 끼치는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생명의 비대체성과 죽음으로 인해 오는 깊은 상실감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나 영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죽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다루는 비디오 게임, 영화, 만화 등과 같은 매체로부터 죽음에 대한 올바른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만든다. 특히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자살이 해결책이 아니며 자살은 잘못된 것임을 배우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가르친다. 이를 위해 어떤 학교들은 학생이나 학생 부모의 사망 시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수업을 계획하기도 한다. 이러한 죽음준비교육의 내용은 다른 교과목에 덧붙여지는 별개의 단원으로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생물학, 문학, 사회 과목의 교육 등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196) Joyce Brothers, *홀로 남은 이를 위하여*, 김옥라 역 (서울: 우진출판사, 1992), 189.

중, 고등학교의 죽음준비교육의 내용으로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교육내용을 하고 있다. 이 시기에 학생들 스스로 많은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의학적 선택을 하게 한다. 이로 인해 질병의 이름과 진단에 결과에 대해서 알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회복 가망성이 없을 때 기계의 도움으로나마 생명을 유지할 것인지 가능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은지 등에 관해 미리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간의 값비싼 치료를 원하는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결정해야 하며, 장기기증을 원하는지, 죽은 뒤 시체 부검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미리 결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죽음과 관련한 많은 결정 등은 문화, 종교, 경제적 여건, 개개인의 경험이나 다른 여러 요인에 근거하게 되는데, 만약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될 때 누군가가 대신 결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중, 고등학교의 죽음준비교육 내용과정에서 다루어진다.

어느 한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20여 년 동안 죽음교육을 해오고 있으며, 죽음에 관한 책, 시, 음악 공부, 장례식장과 묘지방문, 죽음에 관한 영화, 사진 감상과 토론 등을 커리큘럼으로 하고 있다. 또 재학생이 자살하면 자살을 토론하는 날까지 잡는다. 다음의 <표 5>은 미국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죽음준비 교육내용이다.

<표 5> 로버트 스티븐슨(Robert Stevenson)의 죽음준비교육 모델¹⁹⁷⁾

단계	시간	교육내용
1단계	3	학생들의 지식, 개념, 태도의 조사
2단계	2	죽음과 상실을 피하는 용어 배움
3단계	15	죽음의 과정과 시간
4단계	9	연령별 죽음 인식 이해
5단계	11	죽음의 이유 이해
6단계	10	안락사에 대한 이해
7단계	8	호스피스
8단계	8	죽음과 그 이후
9단계	8	죽음과 비탄

10단계	10	죽음과 장례의식
11단계	10	자살과 자살 방지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나 상실의 경험, 슬픔 등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돕고, 죽음이 개인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어떠한가에서 시작하여 점차 보다 구체적인 죽음의 문제와 대처방법을 다루고 있다.

독일에서의 죽음준비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기독교의 다양한 교회행사를 통해 수 세기를 이어오고 있어 풍부한 전통을 지녔다. 이미 중세에 독일 교회들은 한 해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죽음을 테마로 하는 설교를 하였고, 교인들이 죽음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도와주었다.

인쇄술이 발명된 후부터 ‘죽음의 예술’이라는 제목 하에 서적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 서적들이 시사하는 바는 인생의 종말(죽음)은 적극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예술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예술 속에서 죽음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죽음의 급기현상이 퍼져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죽음은 학문연구의 대상은 되었으나, 삶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의 역할을 희박해졌다.

그 이유는 죽음이 병원에서 처리되고, 가정에서는 가족이 임종할 기회가 줄어서 자연히 죽음준비교육의 장이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에서의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죽음준비교육을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시켰고 국공립 중등교육에서는 종교교육의 틀 안에서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학교 커리큘럼에서의 죽음교육은 매주 2시간의 종교수업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종교수업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14세 이상이면 스스로 수업수강의 판단을 결정한다. 그리고 죽음의 교재나 선택은 담임교사의 재량에 맡겨지며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다. <표 6>은 독일의 고등학교 죽음교육 교과내용의 한 예이다.

<표 6> 독일의 죽음준비교육 교과내용¹⁹⁸⁾

197) 기영화, *노인교육의 실제*, (서울: 학지사, 2007), 162. 재인용

단계	주제	교과내용
1	인간의 성장과 노화, 죽음	① 영원한 젊음 : 청년과 젊음의 이상화 ② 사회현실 속에 있는 질병과 노화 ③ 죽음과 슬픔에 대한 경험 ④ 슬픔의 과정 - 슬픔의 현상, 슬픔의 의미 ⑤ 인간과 인간의 의사고통 - 사회적, 육체적 죽음 ⑥ 오늘날의 병원 ⑦ 이상적인 병원과 그 현실
2	죽음	① 죽음의 해석(1) ② 죽음의 해석(2) ③ 의학과 죽음 ④ 죽음 후의 삶 ⑤ 영원불멸설 ⑥ 퀴블러 로스의 죽음의 단계 ⑦ 부활에 대한 기독교적 희망
3	AIDS	① AIDS에 대한 의학적 관점 ② AIDS와 성의 혁명 ③ AIDS 환자와 고독 ④ AIDS의 윤리적 문제 ⑤ AIDS 환자를 위한 제도적 보살핌
4	자살과 안락사	① 자살의 문제 ② 안락사의 문제 ③ 죽음과 임종에 관련된 기타 문제

또한 미국 대학에서 시행하는 죽음준비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1970년대 이후로 미국의 여러 대학들이 죽음준비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의를 시작했다. 몇몇 대학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죽음준비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백 개의 대학이 비전공 학부생들에게 교양교육 내지, 입문 수준의 강의 들을 제공하고 있다. 강의는 죽음과 죽음의 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정책적인 이슈들을 다룬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죽음준비교육의 강의는 ‘죽음의 사회학’을 포함한다. 포함 내용은 사회의 도시화와 비인간화로 인한 죽음의 위험 요인 증가와 특히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환자가 원하는 이상으로 죽음을 연장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 등으로 고령화, 말기환자 돌보기, 죽음의 여러 형태의 변화를 통해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죽음준비교육의 강의 내용은 예술, 시, 희곡, 최근에는 대중매체, 영화, 심지어 컴

퓨터게임까지 다루면서 죽음에 대한 종교적, 문화적 토대를 논한다. 이러한 강좌들은 학생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 자신의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해야 할지 또 어떻게 죽어야 인간다운 죽음인지 등을 생각하도록 하여 건강한 죽음(good death)의 개념을 검토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죽음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인명적 손실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교과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자살을 다루는 폭력적인 TV나 비디오, 게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소개하고 있고 건강교육, 교내상담 등의 적은 투자로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정신적, 재정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알린다.

또 국가가 유독 물질, 테러,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얼마만큼 책임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기도 한다.

셋째, '뇌사'시 장기기증에 관한 결장과 같은 도덕적, 윤리적 결정 사항들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 질문해 봄으로써 개인의 결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게 관계된 이슈들을 생각해 보게 한다.¹⁹⁹⁾

또한 미국에서 성인의 죽음준비교육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의 10대나 젊은이들이 정규과정에서 죽음준비교육을 교육할 기회를 갖지만 성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로 성인 교육 강좌에서 죽음관련 강좌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성인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은 교회나, 문화센터, YMCA, 혹은 지역 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미국은 현재 여러 교육기관에서 죽음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으며, 미국 죽음교육, 상담협회(ADEC)에서는 '죽음학 자격증' 코스가 있어 자격증을 주고 있다. 특히 성인들을 위한 죽음 준비교육은 삶과 죽음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노인들의 관심분야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떻게 호스피스를 선택하는가?, 와상 치매노인을 어떻게 돌보는가?, 부모나 배우자의 죽음을 어떻게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준비하는가? 등에 관한 워크숍 프로그램들이 있다. 또 어떤 워크숍 프로그램은 장례식과 장례절차에 관심을 갖고 진행되며, 또 다른 프로그램은 유언이나 재산 처리문제를 돕는 법적 절차에 관해 논의하기도 한다.²⁰⁰⁾

다음으로 한국적인 죽음준비교육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각종 교육기관에서 죽음 혹은 죽음준비교육 관련 강좌가 생겨나 꾸준히 진행

199) 서혜정, 노인죽음학개론, 152.

200) Ibid., 150.

중이다. 비영리재단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죽음교육은 정규적이기 보다는 특별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학교나 대학 등에서 정규교육으로서 실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사회복지 기관과 종교단체, 노인교육 지도자 과정,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목표에 맞게 죽음준비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종교기관에서는 각 종교별로 구원과 내세관을 알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대학 및 대학부설 기관에서 실시하는 죽음준비교육은 대부분 교양과목이나 사회복지관련학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죽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종교적 관점에서의 죽음, 호스피스 교육, 심리 및 감정 치료, 이별 및 극복방법 등이 있다.²⁰¹⁾ 이러한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을 <표 7>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표 7> 우리나라 죽음준비교육 현황²⁰²⁾

기관	내용
대학 및 대학부설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과목, 사회복지관련학과, 평생교육원에서 실시 * 서강대: 1978 '죽음에 관한 강의' 최초 도입 1996 '죽음의 심리적 이해' 강좌 개설 * 덕성여대 사회교육원: 1987 '죽음의 철학' 프로그램 개설, 1999폐강 * 광주 대한 노인회: 1991, 서혜경 * 고려대 최고위교육문화과정: 1996 '삶의 정리와 교육' 강연 * 수효사회복지대학(연꽃간병인회): 단기 호스피스 자원봉사교육 실시 * 한림대학교(생사학연구소): 웰다잉 교육센터, 자살예방 전문과정 실시, 사이버강좌로 진행/“생사학 개론” 진행
종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기독교, 불교단체/교육과 종교적 교리 동시 전달 * 기독교: 평화성결교회의 '죽음 이후'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의 '천국준비교실' * 불교: '수선회', 정토사관자재회재단의 '정토마을' 봉은사의 '웰다잉 체험교실'

201) 서혜경, 노인학개론, 155.

202) Ibid., 158. 재인용

사회복지법인 및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1991)' '웰다잉 전문강사 교육과정'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웰다잉 전문강사 교육과정'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아름다운 생애 마감을 위한 시니어 죽음준비학교(2006)'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실시 *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이별학교' 프로그램 * 서울노인복지센터: '사(死)는 기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라이프컨설팅(KLC: Korea Life Consulting): 임종체험 * 이미지를 활용한 임사체험
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죽음학회

마지막으로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점점 가까운 존재가 됨과 동시에 한층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친지의 죽음이나 신체적으로 운동, 지각, 감각기능이 저하되고 노인특유의 질환 등이 노인에게 죽음의 접근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역할의 상실과 그에 따른 경제적 빈곤, 그리고 배우자의 죽음 등은 노인으로 하여금 생물학적인 죽음 앞에 사회적 죽음을 미리 경험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놓인 노인에 대해 죽음에 대비한 교육 실시는 다른 세대와는 다른 의의를 갖게 된다.

노년기의 발달과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첫째,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난날의 갈등과 죄책감을 해결해야 한다. 둘째,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의 한계나 감소를 인지하고 변화된 자신의 사회적 활동범위에 관한 새로운 개념정의를 갖도록 해야 한다. 한편 잃어버린 역할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활동, 취미를 개발하고, 이상적 자아와 현실의 실제 자아 사이의 간격을 줄여서 자아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여, 노년기에 알맞은 목적의식을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

결국 노년기의 발달과업이란 자신이 지내온 삶을 정리하고 변화된 현실에 적응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로 다가온 죽음의 현실을 어떤 과정을 통해 내면화시키고 받아 들이느냐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은 그들의 인간발달의 마지막 장으로 일생을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생 회고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자서전의 저술이나 녹음, 자신의 출생지 및 성장한 곳 등의 순례 여행, 재회, 족보 찾아보기, 스크랩북, 사진첩, 오래된 편지 및 그 밖의 기억할 만한 중요기사 회상하기, 일생의 사업 정리, 자아존중감에 대한 집중 등의 교육내용을 실시할 수 있다.²⁰³⁾

특별히 신앙인의 죽음은 끝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인의 죽음은 그 죽음이라는 현상으로부터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밀알 하나를 떨어뜨리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러한 삶의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일치한다. 세상의 삶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즉 소외된 현대인의 삶, 현대생활의 다양성과 혼란에서 오는 문제들, 오늘의 여러 공동체가 지닌 난제들을 향하여 나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며 소외된 이웃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행하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현장을 치유하는 노력 등은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고 비록 우리가 죽더라도 그 행실은 남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²⁰⁴⁾

즉,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목표, 내용들은 전 생애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후회 없는 죽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해 깊이 사색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각의 발달단계에 맞는 죽음준비교육을 제공하여 어느 세대도 죽음준비교육의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준비교육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교육이 된다면 아름답게 인생이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자들에게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게 될 것이다.

제 2 절 목회자의 죽음에 대한 돌봄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임종환자와 가족들을 돌보는 데 실제로 목회자보다 더 적극적인 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203) 최숙향,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6), 66-68.

204) 이정희, “아동의 죽음개념 형성 및 그 중재 효과에 관한 연구,” 50-51.

의 모습을 보여주며 구원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속하는 자로서 배푸는 배려는 구원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절에서는 목회자가 설교말씀과 예전을 통해서 어떻게 임종자를 돌봐야 되고, 더 나아가 교회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종자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도록 하는데 있어서 목회자와 교회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설교 말씀으로 돌봄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과 돌봄으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죽음이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며, 또한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그리고 5장의 앞부분에서 열거한 내용들처럼 죽음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다양한 접근을 하며 말씀 안에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위로와 소망을 넘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공포의 대상만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목회자는 성경공부를 넘어서서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가? 사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많은 삶들이 죽음을 그처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교회의 책임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기피하려는 현대 사조에 편승하여 목회자들까지도 죽음에 대한 사념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²⁰⁵⁾ 꼭 죽음에 대해 설교를 해야 할 경우에도 죽음의 참 모습, 참 의미를 말하지 못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죽음에 대한 영상이 이같은 기피증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심판 날 모든 사람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이때 자기가 생전에 문초와 함께 냉엄한 심판에 의해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이란 그야말로 영원한 불로서 상상조차 하지 못할 무서운 벌을 받는 곳이다.²⁰⁶⁾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 말할 때 연상되게 되는 영상이 아

205) Rawlings Mauris,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변진협, 윤희연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6), 74-75.

206) 이장식, *기독교신조 II* (서울: 컨콜디아사, 1983), 104.

닌가 싶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가르침이 그러했다. 종전의 교리서나 서적 그리고 공과 그림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르침은 듣고 배워온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라고 하면 의례히 저 무시무시한 심판과 그에 따라 가공할 지옥 벌을 연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과 같이 인간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판에 대한 설교는 종전의 장례식이나 헌신예배를 통해 간간히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공포는 복음의 합리성과 언약, 그리고 사회성이 결여된 채 맹목적인 종교심을 유발하여 저질 신앙의 체질화와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데 한 몫을 했을 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심판의 전율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죽는 자의 제일의 목표점은 그리스도이며, 그의 은혜 안에 죽음과 죄와 지옥의 형상들에게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의 사상을 제대로 깨우쳐 주려면 로마서 8장 31-39절의 언약사상을 따라야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롬 8:33-35) 심판의 준엄함이 드러난 것은 십자가에서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개개의 결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기 소행을 셈하여 바친다는 관념은 도대체가 그릇된 것이다. 이 관념은 순전히 외형적으로만 보고 있으며 심판받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 자세이며 이 자세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정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 가상칠언은 연대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한 뜻을 가지며 예수의 구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구속행위가 궁극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곧 인간의 죽음의 순간이다.²⁰⁷⁾ 또한 종말의 일에 관한 성경의 진술들은 희망의 비유들이다.²⁰⁸⁾ 즉,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미래이고 이 미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미래가 되리라는 희망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목회자의 설교는 그것이 어떤 면을 강조하든 사랑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과거와 같이 인간이 엄위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다는 것, 특히 인간의 사악을 들추면서 그 사실을 강조하거나

207) Vorgrimler, 죽음, 91.

208) Greshake, 죽음보다 더 강한, 78-83.

가차없는 심판을 서술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심판을 강조하는 설교는 자칫하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무서운 심판과 지옥벌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심리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 주어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쉬우며 나아가 복음 자체에 대한 반발이나 기피를 초래하게 되는 수도 있다.²⁰⁹⁾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곧 삶에 대한 올바른 자세들이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오로지 은혜로운 선물임을 인정하는 말일 것이다. 즉, 인간의 생이 결코 하나의 소유일 수는 없다. 따라서 생에 대한 초연 역시 생에 대한 집착만큼이나 본질적 이어서 인생의 지고한 가치들은 생에 대한 집착과 초연 사이에 부단한 변증적 과정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뜻이 된다.²¹⁰⁾

그리스도인이 현재 생활 중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매일의 죽음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듯이 임종 때 요구되는 것 역시 같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다. 그러므로 삶에 대한 올바른 자세이며 인간이 죽는데 알맞는 시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목회자는 평소에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죽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참된 삶을 영위하도록 설교 말씀을 통해 가르쳐야 할 것이다. 특별히 사순절과 부활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인 설교를 하게 된다면 최상의 교육과 돌봄이 될 것이다. 더 나가서 목회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임종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어서 힘을 얻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예전을 통한 돌봄

임종이 가까운 임종자는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의 과정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런

209) Ralp G. Turnvel, *유가족 상담*, 박근원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1), 196.

210) Mayer-Scheu Josef, *임종을 위한 교회의 사역*, 성열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2), 91-92.

의미에서 성례전은 죽음이 임박한 임종자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목회적 차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임상적으로 성례전은 분리와 고립의 감정을 이겨내게 하고 근심과 죄의식과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초의식의 수준의 의미를 갖는다.²¹¹⁾

루터는 죽음의 성례전의 효력은 임종 전에 세 가지 해악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베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첫째는 무서운 죽음의 형상으로 겁 많고 상심한 인간의 본성이 이 죽음의 형상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연약해지고 비겁해지는 것이다. 둘째는 죄의 표징으로 양심을 괴롭히고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셋째는 지옥의 표상으로 구원의 선택을 의심케 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이다.²¹²⁾

성공회의 임종식과 로마 가톨릭의 임종 성찬식은 죽어가는 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세심하게 배려된 깊은 의미를 갖는다. 기독교에서는 신앙과 말씀을 중요시 한 나머지 성례전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성례전 기행이 임종자로 하여금 자기 신앙을 재확인하고 행복한 안도감을 갖게 함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²¹³⁾

모든 교회들은 신약성경에 준거하여 각 교회가 받아들이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음을 믿는 신앙 위에 성례전에 관한 교리와 실천을 정립해 왔다.

성례전, 즉 세례와 성찬이 시초부터 그리스도인 공동생활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였고, 예수의 지상생활 동안의 말씀과 행적에서 기원했음을 동의한다. 교회의 성례전의 배려는 상징의 의미를 넘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임종자와 유가족에게 이중적으로 의미를 갖게 하는 목회적으로 중요한 실재가 된다. 이에 성례전의 세례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세례는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변함없는 전통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례전이다. 세례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으로 죄인들과의 연대성을 받아들인 데서 시작하여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걸으신 고난의 종의 길로 이어진다. 예수 위에 내리신 성령은 교회에도 내려오시어 세례 안에서 또 세례를 통하여 당신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세례의 의미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 사건이다. 왜냐하면

211) 반피득, *목회상담대론*, 250-251.

212) Oscar Cullman et al., *영혼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전경연 번역 (오산: 한신대출판부, 1991), 73-76.

213) Alloys Muller, "임종자에 대한 교회의 사목," *사목*, 1975년 5월호, 92.

그것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공적으로 시인하고 그와의 영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례전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한다. 셋째로 세례란 새로운 피조물로서 탄생을 의미한다. 넷째로 세례는 그리스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세례를 주는 시기가 언제 어느 주일이라고 확정할 필요는 없다. 세례 받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명의 위독을 느끼면서 세례 받기를 원하는 경우,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당회원과 함께 가서 세례를 집례할 수 있다. 또한 어느 주일이나 저녁 예배 가운데서도 세례는 가능하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임종자에 대한 세례는 환자의 가정이나 병원에서 가능하며 이는 임종자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 평안함 속에서 자신의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세례가 유효하게 집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분의 은총에 임종자가 전적으로 귀속됨을 인정할 것,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이 있음을 선언할 것, 셋째, 성령의 호칭과 그 분을 인정할 것, 넷째, 악을 끊어버림, 다섯째,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 여섯째, 수세자인 임종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됨을 시인할 것,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사용하여 집례 되는데, 물의 세례는 보통 침례의 방을 사용했다. 희랍어로 ‘세례주다’는 ‘잠근다’를 뜻하는 것으로 세례는 연못이나 흐르는 물속에서 행해졌다. 그러나 2세기 초엽의 문헌인 ‘열두 사도의 가르침’에는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에게 지시하기를 세례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물이 없을 경우에는 이마에 물을 붓도록 가르치고 있다. 더욱이 죽음을 맞는 임종자에게는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례의 상징적 의미는 형식에 있지 않고 씻는 예식으로써 영적인 정결 또는 성결의 개념에 있다.²¹⁴⁾

또한 성례전은 사도바울에 의하면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제자들과 친히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써 계속할 것을 권면하시는 것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억으로서, 어린양의 잔치(계 19:9)에 대한 예상으로써 베푸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례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라마예식서에 따르는 성찬은 본질적으로 하

214) 박창환, “개신교에 있어서의 세례,” 사목, 1975년 5월호, 61-62.

나눔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사의 성례전이다. 한마디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와 의 친교를 실현하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편이다. 그러므로 성찬성례전은 마술적인 의식이 아니고 신앙공동체의 예배적인 축제이다.²¹⁵⁾

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교류를 베푸시고, 행동하시며,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성례전의 의미와 그 기능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임종자와 유가족을 위한 목회적 배려로서 폭 넓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성례전은 임종과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의 확신과 의미를 가져다 준다. ‘주는 나와 언제나 같이 하시고 그 분은 내가 죽을 때에도 역시 같이 있어줄 것이다.’ 라고 임종자가 회상하도록 돕는 것이 성례전의 임상적 기능이다²¹⁶⁾라고 말할 수 있다.

3. 교회 프로그램을 통한 돌봄

임종자에 대한 교회의 돌봄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사랑의 당연한 귀결이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속에 함축된 삶과 피리될 수 없는 성도의 삶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사회 공공단체나 봉사단체로 이미 넘어간 것을 교회에서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역할에 있어 봉사를 떠맡기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처사는 더 바람직스럽지 않다.

교회공동체가 돌볼 일은 성도가 제대로 처우를 받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그만한 배려가 가는지를 자세히 살피며 거기에 결함이 있을 때는 조건 없이 스스로 나서서 손을 쓰는 것이다. 이런 일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여러 단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불치병 또는 중병으로 어떤 손길을 기다리면서도 말없이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도움을 베푸는 일, 임종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척들의 정신적 고통이나 가족을 잃게 된다는 비극적인 중압감이나 환자와의 관계를 기피하려는 심리와 고뇌 등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도움을 주는 일 등의 봉사는 누가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15) 박근원 편, *라마예식서* (서울: NCC, 1988), 9.

216) 추진규, “임종을 지켜보면서.” *빛과 소금*, 1986년 11월호, 51-53.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겠지만 특별히 목회자는 사명감을 갖고 이런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이런 일에 목회자보다 더 적극적인 자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봉사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간 구원이라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지속하는 자로서 그가 베푸는 배려는 구원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를 들어 가족 중에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한 불신자와 가난한 자가 임종을 맞이할 때 따뜻하게 보살펴주어 회개하고 평온히 죽음을 맞게 해주고 또 그가 죽은 후 성도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는데 따르는 어려운 일들을 자기들의 일처럼 돌보아 주도록 배려하였다면 그 불신자의 구원은 물론 그의 가족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는 전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회자를 위시한 성도들의 봉사를 보고 교회에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목회자로서 유의해야 할 일과 성도들을 통하여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면 의료인들의 전문화라든가 병원에서 임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교회는 임종자들을 돕는 일을 전담할 프로그램의 개발과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인간에게 닥치는 생로병사는 인간에 있어서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는 구원사건임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교회는 임종자들에게 지상명령에 따르는 공훈과 도움을 베푸는데 큰 관심을 쏟아야 하며 이와 같은 선교의 복음증거 활동을 병원과 연관하여 이루어간다면 더욱 좋은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교회는 임종사역자 양성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평신도 의사들이나 간호원들 그리고 그외 헌신된 자들을 교회가 발굴하여 환자들에게 배려하는 봉사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임종환자에게 기독교 봉사정신에 입각한 인간적인 도움을 베풀 자세와 목회적 역량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습득시킴으로써 과중한 목회자의 일손을 거들 수 있을 것이다.²¹⁷⁾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역시 임종자와 함께 죽음이 결코 공포와 불행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의 길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목회자는 평상시에도 일반교육 프로그램처럼 죽음을 준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217) Josef, *임종자에 대한 교회의 사역*, 124.

을 세워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예배, 설교, 심방 등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또 절기별 특별계획을 세워서 활용하여 죽음이라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상태와 심리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첫째는, 퀴블러 로스의 5단계를 6단계로 죽음 준비교육을 프로그램화하여 단계별로 어떻게 돌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고, 둘째는, 패터슨 교수의 공포이론에 근거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는,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국준비교실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넷째는, 웰다잉의 죽음준비교육 회기별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다섯째는, 전주 예수병원의 호스피스에서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여섯째는, 서울에 있는 평화성결교회의 죽음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퀴블러 로스의 심리적 죽음의 5단계를 6단계로 프로그램화하여 교육의 내용으로 어떻게 돌 볼 것인가에 대하여 먼저 <표 8>을 살펴본 후에, 이것을 단계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8> 퀴블러 로스의 심리적 죽음 5단계를 6단계로 한 프로그램

단계	교육내용의 돌봄
1단계 부정의 단계	영원한 삶은 현세적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얻어질 수 없음을 교육하며 돌봄
2단계 분노의 단계	설교나 교육에 흥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저 반응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을 띤 교육으로 돌봄
3단계 타협에 대한 교육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생애를 성찰하는 치유와 교육으로 돌봄
4단계 우울중에 대한 교육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이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이런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교육으로 돌봄
5단계 수용에 대한 교육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을 통해,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죽음의 길로 들어가도록 돌봄
6단계 소망에 대한 교육	죽는 이들이 가지는 소망은 회복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것임을 격려하고 돌봄

첫 번째, 퀴블러 로스의 첫 단계와 교육을 알아보면 부정의 단계이다. 죽는 이들

이 이때에 가지는 부정은 일시적인 자기방어에 불과하고, 곧이어 이것은 부분적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이다. 이때에 행하는 교육의 주안점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통화를 하는 것임을 인식시키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합하고 마지막 날 몸의 부활로 끝없이 영원한 곳으로 인도 되는 것이 죽음인 것을 인식시킨다.²¹⁸⁾ 우리가 흔히 당하는 죽음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들어보면, 먼저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춘각을 다투는 죽음이 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진단을 내려 죽음이 확실해지고 다만 죽음의 시각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병이 아주 심해서 죽을 가능성이 높으나 회복의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자기의 죽음을 인식해도 살고 싶어 하는 본성 때문에 쉽사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²¹⁹⁾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부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먼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고 경험치 못한 미지의 상태인 죽음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며 죽음의 의미와 현실에 대해서 교육해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는 임종자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종지부를 찍지만 영원한 삶은 현재적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얻어질 수 없음을 교육하며 돌보도록 한다.²²⁰⁾

두 번째, 분노에 대한 교육이다. 이때의 분노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다기보다는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때는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잘 참아야 하는 단계이다. 목회자는 죽는 이에게 생의 부착물들 때문에 생겨지는 분노는 죽는 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새 삶으로 진입하려는 순간의 평온을 위하여 마음을 준비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²²¹⁾ 특히, 이때 목회자는 자기에겐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그것을 죽는 이가 다 털어놓도록 들어주어야 하며, 그를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 줄 때 더 큰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이때는 지나친 설교나 교육에 흥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저 반응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을 띠고 돌보는 게 바람직하다.

세 번째, 타협에 대한 교육이다. 이때는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잘 관찰하면 흔히

218) 추진규, “임종을 지키보면서”, 51.

219) 김영환, “죽음에 대한 사목적 배려,” 신학전망 (1975, 겨울), 29.

220) Ibid., 33.

221) Ibid.

볼 수 있는 것처럼, 소위 착한 행동과 특별한 헌신을 맹세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여 타협을 시도한다. 이때의 교육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인생길을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이들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서 타인뿐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생애를 성찰하는 치유와 교육을 시키며 돌보도록 한다.

네 번째, 우울증에 대한 교육이다. 이 우울은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느낄 때 빠지는 감정이다. 이때에 목회자는 좀 힘이 들더라도 죽음이 무엇이며, 특히 죽음 후에 생겨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이란 죽음을 넘어서서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임을 주지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초월할 수 있게 해야 한다.²²²⁾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우울증에 빠진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과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이런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며 돌보도록 한다.²²³⁾

다섯 번째, 수용에 대한 교육이다. 이때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생을 다시 한 번 확신시키는 교육을 한다. 왜냐하면 절박한 소원이나 갈급한 욕구의 충족을 넘어서 ‘저쪽’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희망이며 그것은 인간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비전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가오는 세계의 평화와 대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즉,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²²⁴⁾

여섯 번째, 기대와 소망에 대한 교육이다. 이때 죽는 이들이 가지는 소망은 회복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교육은 격려를 통해서 희망을 더 굳건하게 해주며 그들의 소망을 존중히 여겨 주는 교육으로 돌보도록 한다.

퀴블러 로스의 심리적 죽음의 5단계를 모두가 거친다고 독자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개인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죽음의 심리적 단계를 프로그램화 하여 6단계로 교육의 내용으로 활용한다면 죽음의 불가피함을 받아들이면서 죽

222) Thomas C. Oden, *목회신학: 목회의 본질*, 이기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129.

223) Ibid., 137.

224) Henri J. M. Nouwen, *상처입은 치유자*, 이봉우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5), 87.

어가는 사람들이 삶에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 이제 두 번째, 죽음의 공포이론을 근거한 교육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패티슨 교수는 임종환자가 느끼게 되는 공포의식을 연구하였는데 다음의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표 9>의 패티슨의 죽음 공포이론을 살펴보고 단계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9> 패티슨의 죽음 공포이론

죽음의 공포	교육내용
미지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	기독교적 구원관과 내세관 교육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함
고독에 대한 공포	많은 경청을 해주고 병든 자와 고독한 자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
헤어짐의 공포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만나게 됨을 교육함
신체를 잃는다는 공포	육체를 무시할 수 있는 법을 교육함
자기 지배 상실의 공포	이 땅에 모든 인생은 청지기임을 교육함
고통의 대한 공포	기독교적 내세관을 통한 교육으로 죽음의 수용과 감사로 이어져 고통 뒤에 찾아오는 무한한 평온함을 강조함

첫째, 죽는 이들이 느끼는 공포는 죽음이 미지라는 두려움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시상태의 두려움’이라고도 하는데 종교성을 가지고 보면 죽음 이후에 소위,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때의 교육은 먼저 분명한 기독교적 구원관과 내세관을 교육하며 미지의 세계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둘째, 고독에 대한 공포이다. 임종자가 자신이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되면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환자를 건성으로 대하지 말고 진지함을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이때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준다거나 환자를 향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가운데 만인을 사랑하시면서도 특별히

병든 자, 고독한 자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심어 주는 교육을 한다.

셋째, 가족, 친지 등과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다.

넷째, 신체를 잃는다는 두려움이다. 자신의 몸이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특히 암환자가 이 사실을 두려워한다. 이것을 이기는 교육은 환자로 하여금 이 세상과 육체를 ‘무시’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²²⁵⁾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적인 것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인해 신체를 잃는 것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을 많이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자기 지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스스로를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율 능력이 없어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동안 떳떳하게 인간답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 운명과 실재에 대한 지배자가 아니라는 데에서 생기는 두려움이다. 이때의 교육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지배자이시고 우리들은 모두 피조물로서 지배당해야 함과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인생을 이야기한다.²²⁶⁾

여섯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다.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정신을 엄습한다. 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이때에는 땅위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과 예수의 십자가 고통, 성경에 나오는 고난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고난과 고통 뒤에 찾아오는 무한한 평안함을 강조한다. 임종을 맞이하는 침상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논쟁을 벌이는 토론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는 성경의 지혜의 말씀을 잘 선택하여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자신과 교회와 성경의 경험을 잘 이야기하며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죽음을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삶에 감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²²⁷⁾ 특히 기독교적 내세관을 성경을 근거로 교육하여 죽음을 동반하여 생기는 모든 공포를 이길 수 있도록 돌봐 주어야 한다.

세 번째,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천국준비교실의 프로그램으로 교회에서 ‘천국준비교실’을 진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교회가 하이패밀리에 의뢰해 교회를 찾아와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는 방식이다. 둘째는 교회 내에서 ‘천국준비교실’을 진행할 지도자가 하이패밀리를 찾아가 교육받은 후 교회에서 시

225) 제레미 테일러, 기록한 죽음, 주옥중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119.

226) Ibid., 216.

227) 하은영, “죽음에 대한 심리와 종교”, (기독교사상, 1971, 10), 120.

행하는 방식이다. ‘천국준비교실’의 내용을 먼저 <표 10>를 통해서 보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표 10> 천국 준비교실

과	주제	실천사항
1과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는 비결	가계도를 그리며 부모세대 기억하기
2과	아름다운 노인이 되는 비결	자신에게 일어나는 노년의 특징을 살펴봄
3과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	유언장을 적어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상기시킴
4과	아름다운 노후를 만드는 비결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구체적으로 준비 하게 함

하이패밀리의 ‘천국준비교실’을 위한 교재는 ‘하나님, 천국이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총 4과로 구성돼 있는데,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한 과를 2회로 나눠 진행한다. 제 1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예비 단계로 ‘인생 점검표’를 만드는 순서를 갖는다. 인생 점검표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은 얼마이며, 그 세월 동안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지금 자신의 나이를 적게 한다. 그 중에서 잠자며 보낸 시간, 공부하고 훈련하며 보낸 시간, 직장 생활을 하며 보낸 시간, TV를 시청하며 보낸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 등이 얼마나 되는지 각자 적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몇 년 정도 될 것인지 적게 한다. 이를 통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하는 시간이다.

제 1과,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에선 모세의 기도(시 90편)와 히스기야의 기도(사 38:9-13)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실천 사항으로 가계도 그리기가 있다. 넓은 종이 위에 가계도를 그린다. 그리고 그 위에 가족의 사진들을 가능한 많이 찾아서 이름 위에 붙인다. 이는 부모 세대를 기억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편, 자신을 통해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제 2과, ‘아름다운 노인이 되는 비결’에선 전도자가 노인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전도서 12장 3-5절 말씀을 묵상하며 노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배운다. 그리고 시편 71편 5-9절을 묵상하며 되돌아갈 수 없는 젊은 시절을 동경하기보다 노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한다. 실천 사항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노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이라는 3가지 영역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관찰해 적어본다.

제 3과,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에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눅 16:19-31)를 묵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죽음을 준비한다. 죽음 이후의 문제 곧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다루면서 내세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실천 사항으로 유언장을 적어본다. 이로써 자신의 죽음이 먼 미래에 있지 않고 죽음 이후의 문제가 회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님을 상기시켜 준다.

제 4과, ‘아름다운 노후를 만드는 비결’에선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해 본다. 요셉의 죽음과 장례(창 50장)를 묵상하면서 요셉이 자신의 죽음과 그 후를 설계했음을 기억하도록 도와 준다.²²⁸⁾ 특히 죽음교육을 위해 해 두어야 할 일곱 가지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유언남기기, 영정사진 찍기, 가족들을 용서하기, 감사를 표현하기, 유산 정리하기, 자신의 약사(略史) 정리하기, 기증의사가 있다면 기증을 통해 마지막 헌신이 그것이다. 부록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좋은 습관 30가지’란 제목으로 3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 가능한 행동들을 소개함으로써 단지 지식으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이패밀리의 ‘천국준비교실’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목회적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지도까지도 목표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웰다잉에 죽음준비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웰다잉은 삶의 소중한 가치와 행복 찾기이다. 누구나 한번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시한부인생임을 확실히 인식함으로 인생을 값지게 살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자는 것이 웰다잉이 추구하는 바이다. ‘잘 죽는다는 것’에 대한 소망은 ‘잘 사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표 11>은 웰다잉 죽음준비교육 회기별 프로그램주제와 교육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228) <http://hanjin0207.tistory.com/3>

<표 11> 웰다잉 죽음준비교육 회기별 프로그램(229)

회기		주제	프로그램 소개 및 교육내용
1 회 기	1-1	마음을 여는 시간 (프로그램 소개)	학습자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소개와 학습 참여 동기 및 경로, 학습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본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요구)등을 발표한다.
	1-2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학습자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개인의 감정표현과 자기노출을 용이하게 한다.
2 회 기	2-1	삶의 이해 (삶과 인간발달 이해)	삶과 인간발달과 관련하여 노화가정의 특징과 노화로 인한 구체적인 변화를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2-2	(노년기의 이해)	제 3의 인생기로서 노년기가 갖는 의미와 노년기의 역할에 대해 의미를 설명하고 이해하게 한다.
3 회 기	3-1	죽음의 이해 (죽음의 의미)	육체, 종교, 철학, 정신, 영적으로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각자 죽음에 의미에 대해 토론한다.
	3-2	(한국인의 죽음 이해)	우리 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 철학, 종교 등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독특한 죽음이해를 설명한다.
	3-3	(죽음에 대한 종교적 이해)	종교에 따라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서로 다름과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자신의 죽음의 생각을 정리하게 한다.
	3-4	(죽음과정의 이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고, 죽음에 대한 반응과 그 단계를 교육한다.(퀴블러 로스의 5단계와 알폰스 테켄의 6단계로 설명)
	3-5	죽음준비란 무엇인가?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의미,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교육한다.
4 회 기	4-1	죽음에 대한 느낌 나누기(사별 경험 나누기)	각자의 사별경험을 통하여 사별의 슬픔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법과 사별 경험이 주는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하게 한다.
	4-2	(죽음의 경험 나누기)	죽음이 갖는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 그리고 개인적인 죽음과 사회적인 죽음에 대한 경험의 이해를 확장시킨다.
	4-3	(죽음에 대한 느낌나누기)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관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게 한다.
5 회 기	5-1	인생회고(생애 곡선 그리기)	인생회고를 통하여 삶에 대한 후회와 회한을 해소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킨다.
	5-2	(연대기 만들기)	삶에 대한 회고를 통하여 삶에 대한 후회와 회한을

			해소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킨다.
	5-3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사진을 통하여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고 삶의 의미를 통합하게 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킨다.
	5-4	(용서와 화해)	특히 과거의 잘못이나 화해하지 못한 관계에 대해 회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시도함으로써 감정을 정리하게 한다.
6 회 기	6-1	아름다운 죽음을 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의 종류와 안락사의 의미, 안락사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에 대하여 설명함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6-2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서약)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언을 통하여 죽음을 직면하고 대처 능력을 기른다.
7 회 기	1-1	죽음준비의 실제 (죽음과 법률)	사망과 관련된 법적 절차, 특히 상속방법과 유언에 관하여 교육한다.
	1-2	(유언장 쓰기)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해 본다.
8 회 기	1-1	나의 장례식 (장례문화의 절차)	건전한 장례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장례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1-2	(나의 장례식)	자신의 장례를 직접 계획해 봄으로써 죽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다.

웰다잉의 죽음준비교육 회기별 전체 프로그램은 다시 하위 회기별 프로그램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회기별 프로그램들은 고정된 것은 아니며, 현장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재구성될 수 있도록 짜여 있다.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학습자들의 개인차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죽음준비교육의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호스피스²³⁰⁾의 환자 간호를 진행하고 있는 전주 예수병원의 사역이다.

229) 이병찬, *웰다잉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효사랑, 2010), 269-290.

230) 브리태니커: 호스피스라는 용어는 중세시대에 생겨났는데 당시에는 순례자와 여행자에게 휴식과 음식을 제공하는 자선시설을 의미했다. 그러한 시설들은 종종 수도원에서 제공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성 베르나르 호스피스는 페나인알프스를 지나는 여행자를 위한 휴식처로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말기환자를 위한 특수병원이 20세기 이전에도 존재하기는 했지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죽어가는 사람의 특수한 요구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현대적인 호스피스 운동이 시작되었다. 런던에 있는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1967)의 창립자이며, 그 운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C. 손더스와 다른 보건전문가들은 기존의 현대의학 치료의 많은 방법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환자실에서 일상적으로 취해지는

한국에 호스피스²³¹⁾가 1965년에 시작되고 전주 예수병원의 호스피스는 1983년에 시작되었으며 1988년 5월 호스피스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사, 간호사, 목사, 전도사, 사회복지사, 정신심리학자, 영양사, 약사 등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호스피스는 예수병원의 의사가 의뢰하는 환자로서 호스피스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전문 간호사가 규칙적으로 입원환자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통증 및 기타 증상 조절을 위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간호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요구에 따라 간호를 제공하며 가족이 환자를 잘 돌보아 줄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상담한다.

한편 필요에 따라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적절한 간호(재가치료 및 투약)를 제공하고 훈련받은 자원봉사자가 환자를 방문하여 <표 12>에 나와 있는 것같이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²³²⁾

삶을 연장시키는 방법은 말기환자에게는 불편함과 고립감을 증가시킬 뿐이고 그들로부터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 현대의 호스피스는 이런 종류의 환자를 지지하는 치료를 위한 설비가 의학계에 없었던 것에 대한 반응으로 개발되었다. 호스피스는 동정과 위안을 주는 환경으로 꾸며져 환자의 마지막 나날을 가능한 한 즐겁게 만들어준다. 육체적 고통을 방지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한 일로, 진통제·신경안정제와 더불어 다양한 물리요법이 육체적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호스피스는 신중한 진단을 통해서 약의 복용량을 환자 개인의 필요에 정확히 맞추므로써 단순히 통증을 통제하기보다는 예방을 강조한다. 호스피스에 있는 환자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들의 감정적·정신적 복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환자는 대개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만 살 수 있다는 확실한 진단이 있는 후에 의사의 의뢰에 의해 호스피스 치료에 보내진다. 호스피스는 의료기관 내에서 받을 수도 있고 통원치료 또는 가정에서 제공받을 수도 있다.

231) 해피캠퍼스 <http://www.happycampus.com/doc/1220496/>

1965년 3월 강원도 강릉에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에 의해 갈바리의원(14개 병상)에서 임종자들을 간호하기 시작한 것이 체계적으로 실시된 임종환자의 첫 관리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후 1981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활동이 시작되어 1988년에 호스피스 병동이 생겨났고, 연세의료원에서는 1988년부터 세브란스 암센터에 가정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1992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에 가정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현재에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여의도 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전주예수병원, 고신의료원, 부산대학교 병원 등, 기타 많은 병원과 시설에서 호스피스 과를 두어 호스피스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충북 음성읍의 꽃동네에서는 무의탁 부랑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를 수용하는 시설과 함께 임종의 집을 마련하여 1976년부터 임종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광주 대학생 선교회에서도 사랑의 호스피스를 개설하여 가정 호스피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호스피스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정규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1년에 한국 호스피스협회가 창립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32) 전주예수병원 홈페이지 <http://www.jesushospital.com>

<표 12> 전주예수병원 호스피스 활동

환자 간호	서비스 내용
입원환자 서비스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는 9-10명이며 간호용품(샴푸, 로션, 발마사지크림, 면도기, 공기침대, 찬송가, CD 등) 무료대여, 극빈환자 입원비 또는 개인용품 지원, 간호 정보제공, 가족상담 및 지지, 필요 시 타기관 의뢰, 임종 준비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영적 돌봄(원목실이나 봉사자 목회자와 함께 병상세례, 가정방문세례 등을 제공하고 영적지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돌봄 서비스 제공.
가정간호 서비스	퇴원환자나 사별가족을 방문, 교육 및 영적, 정서적 지지
보건소연계서비스	자원봉사자와 함께 가정방문 서비스 및 봉사자 교육에 참여
자원봉사 활동	1) 환자 및 보호자 정서적 지지나 말벗되어 주기 2) 입원환자 신체간호 : 목욕, 샴푸 등의 개인위생간호 제공, 이미용 서비스, 발마사지 제공, 말벗되어 주기, 병실 지킴이 서비스 3) 봉사일지 정리 4) 연 1회 송년회 5) 호스피스 환우 돕기 바자회 6) 호스피스 환자의 보호자를 위하여 현재까지 오랫동안 찜통 8통 분량의 호박죽을 수요팀에서 매주 제공하는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7) 매주 수요일 호박죽 봉사 후, 병원 전체 병동을 다니면서 병실 찬양활동

여섯 번째, 죽음예비학교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서울 고척 2동에 있는 평화성결교회²³³⁾를 선택하여 12주 과정을 <표 13>을 보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표 13> 평화성결교회 죽음예비학교 12주 프로그램

주	내용
1주	죽음예비학교란 무엇인가?

233) 평화성결교회 홈페이지 www.pyunghwaorg

2주	기독교 신앙과 죽음
3주	그것이 알고 싶다. 사후세계
4주	자살은 정당한가?
5주	죽음을 예비하라!
6주	성도의 임종
7주	장례와 목회적 배려
8주	호스피스 사역
9주	노인을 모신 가정
10주	복된 죽음
11주	죽음을 앞에 둔 성도
12주	노년을 사는 지혜

이 학교의 특징은 젊은이들부터 노인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주일 저녁 찬양예배 설교 시간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죽음을 앞둔 노년층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죽음에 대한 12개의 주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제에 대한 강의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실제 활동을 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줄 수 있다.

첫 시간에 주로 입관 체험을 한다. 강단 앞에 회중들이 볼 수 있는 높이로 관을 놓고 그 앞에 자원한 체험자들의 영정 사진을 미리 걸어둔다. 그리고 주변에 상복을 입은 도우미들을 배치한다. 목회자는 약식으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체험자들은 수의를 입고 준비하고 있다가 한 사람씩 관 안으로 들어간다. 관 뚜껑을 덮고 1-2분 후에 체험자가 관에서 나오으로써 부활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이때 체험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온 교우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간증은 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고, 관에서 나온 후 입관 체험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다.

죽음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선 때로 영상이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기 위해선 10분 정도의 동영상 ‘뱃줄’이 크게 도움을 준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제작한 이 영상은 서울구치소에서 있었던 실화를 재구성한 것이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들에게 죽음을 준비시킨 사람들의 열정과 그들의 노력으로 죽음을

대하는 사형수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날을 받아놓은 사형수이므로 죽음 이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평화교회의 '죽음예비학교'에선 '밋줄'을 비롯해 교황 바오로 2세의 장례식을 보도한 뉴스 동영상, 가족의 집단 자살을 소재로 한 영화 '소풍',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미국 드라마 '식스 피트 언더'(Six Feet Under), 선교사의 죽음을 다룬 '에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자의 동영상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동영상은 고인의 장례를 직접 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온 성도들이 모두 알고 있는 고인의 장례식은 죽음이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 문제인지를 확인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끝으로, 하이패밀리 대표로 섬기고 있는 송길원 목사(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장)²³⁴⁾의 기독교 장례문화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임종 예비교실을 만들라. 요즘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천국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죽음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하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며 천상의 생일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서라도 교회에서 죽음의 의미와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임종 예비교실이다. 그 대상은 죽음을 앞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유가족들일 수도 있다.

그들에게 천국에서의 삶은 어떠하며 이를 위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제사와 묘지 문제처럼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임종 예비교실을 운영하는 교회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하다못해 불교에서도 시왕전이나 명부전이라고 해서 죽음에 대한 교육이 있다는 것은 한번쯤 기독교인들이 반성해볼 일이다.

둘째, 어두운 분위기부터 바꾸자. 한국 교회에서는 죽음과 관계된 예식을 장례식(葬禮式), 혹은 장례예배라고 부른다. 풀어서 말하면 땅에 매장할 때 갖는 예식이나 예배라는 뜻이다. 이 말의 뜻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땅에 묻는 매장에만 쏠

234) 기독교정보넷 <http://www.cjob.co.kr/christianity>

려 있다. 그러기에 모든 장례식 분위기는 비극적인 이미지로 일관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천국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땅에 묻히는 것보다는 그 이후의 삶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서는 장례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천국환송예배'라고 부른다. 또 미국장로교회에서는 '부활증언예배'라고 부르고, 미국연합감리교회에서는 '죽음과 부활의 예배'라고 부른다. 장례의 문화도 마찬가지로다.

셋째, 교회별로 기독교 장례의례 지침을 마련하라. 한 사람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 백 가지의 절차를 남긴다고 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것이 기독교 신앙에 적합하고 어떤 것이 위배되는 것인지 도무지 기준이 서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임종은 어떻게 준비하고, 사망 신고는 어떻게 하고, 장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 기독교 의식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장례 예식이다. 따라서 임종 준비 방법, 시신의 처리 방법, 임종예배 드리는 법, 입관 전후에 할 일, 장례예배 준비법 등을 순서대로 꼼꼼하게 유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가족간의 갈등도 없애고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임종 목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교회별 장례의례 지침이다. 아직까지는 장례의례 지침을 마련한 교회들이 많지 않지만 바람직한 기독교 장례문화를 위해선 이러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넷째, 반(反) 기독교적 장례문화와 지혜롭게 전쟁을 하라.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문화 가운데 삼우제(三虞祭)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은 시체를 매장한 뒤 그 혼의 방향을 염려하여 드리는 제사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반기독교적인 의식도 없을 것이다. 차라리 교회에서는 장사 지낸 뒤 처음으로 무덤을 살펴보는 것이니 '첫 성묘'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날짜도 굳이 삼일이 아니라 편할 때로 해야 할 것이다. 또 49제라는 것도 있다. 이 말은 본래 불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람이 죽은 지 7일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내 일곱 번째가 되는 49일 만에 그 혼백의 극락왕생이 결정된다는 뜻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밖에도 '명복을 빈다'는 말은 불교에서 사후의 행복을 비는 것을 뜻해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이다.

다섯째, 장례예배를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라.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기를 쓰고 발뺌을 하는 사람들도 알아서 교회를 찾아올 때가 있다. 가족이나 친지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그것이다. 따라서 어렵사리 교회를 찾아온, 아니면 적어도 목회자와 자리를 함께 하게 된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장례예배 자체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불신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부모에 대한 효도와 가족 사랑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주로 들려주어야 한다. 물론 천국과 부활에 대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국의 명설교가 스펔전은 이에 대해 ‘장례예배에서 조차 전도하지 못한 설교가는 어떤 강대상에서도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섯째, 고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라. 고인의 신앙을 간단하게 정리한 간증문이나 회고록을 교회에서 만들어두라. 요즘 잘 발달되어 있는 컴퓨터나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이런 문서들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 내용을 장례예배 시간에 조문객들에게 읽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장례예배 후 유가족들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유가족들은 물론 조문객에게도 잊히지 않는 선물이 될 것이다. 장례예배에 투자되는 시간을 현재보다 두 배로 늘려라. 장례예식을 빨리 해치운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사실 장례예식이 며칠 동안 지속되다 보면 유가족들도 지치고 목회자들도 지치게 마련이다. 하지만 가까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은 아무리 오랫동안 위로해도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온 정성을 다해 유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천주교에서는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 밤을 꼬박 새워 시편을 읽어주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한다.

일곱째, 유언 비디오를 찍어둬라. 솔직히 죽음을 앞둔 사람이나 그를 지켜보는 가족들이나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교회에서 가족들 모르게 노인들의 유언을 비디오와 카메라로 촬영해 두었다가 훗날 유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얼마를 남겨준다는 유언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부탁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서울로 분가한 막내아들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아, 이 어미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부탁하고 싶다.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니 아무 염려도 없지만 단 하나, 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 네가 그 소원만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유언을 남겼다고 치자. 그 다음에 막내아들이 어떻게 행동했을 지는 자명한 노릇이다.

여덟째, 목회자가 죽음의 모델이 되라. 참 반가운 일이 하나 있다. 요즘 교회 차

원에서 납골당을 마련하거나 화장장을 장려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목회자들이 솔선하여 거룩한 죽음의 모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먼저 죽으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저 목회자가 솔선해서 시신을 기증하거나 장기를 기증하고 화장을 하도록 하면 된다. 목회자가 앞장서서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하는 모범이 되고 나면 교인들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아홉째, 장례의 애프터서비스를 철저히 하라. 목회를 하다보면 장례 예배를 계기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만큼 장례 예배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한 교제와 신뢰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례 이후에 유가족들의 아픔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위로해주는 애프터서비스가 필수적이다. 한 목회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그 목회자는 유가족에게 전해주는 조의금 봉투에 반드시 자신이 직접 쓴 위로 편지를 동봉한다. 그 편지에서 고인이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나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에 대해 그 동안 알고 지내온 내용들을 유가족들에게 알려준다. 이를 통해 고인이 교회에 가졌던 애정이나 교회와의 유대관계를 표현함으로써 유가족들이 교회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열 번째, 통일된 기독교 장례지침을 만들자. 어떤 교회에서는 장지로 나설 때 목회자가 맨 앞에 서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십자가나 고인의 사진이 맨 앞에 선다. 또 어떤 교회에는 장례예배 시간에 유가족들을 위한 조가를 준비하지만 어떤 교회에는 아예 그런 순서 자체가 없다. 천주교는 이런 세세한 항목을 정리한 장례예식서가 통일되어 있다. 하지만 기독교는 무어라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교단마다 장례 방법이 다르고 의식서도 다르다. 또 교회마다 다르고 지방마다 다르다. 혹 교단에서 통일된 예식서를 마련해주었다 해도 목회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예식이 진행되고 있다. 아무리 장례문화 토착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지만 너무 다양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다. 물론 한 사람의 힘이나, 일부 교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한국 교회를 대표할만한 연합기관이나 신학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이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 통일된 기독교 장례 지침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더 나가서 하이패밀리 대표 송길원은 준비된 장례예배를 위해선 고인의 생애를 기억할 수 있는 내용과 가족들의 추모사를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길원은 고인의 생애를 기록으로 남기는 하나의 방법으로 담당 목회자가 연세 많은 성도

들을 사전에 심방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둘 것을 제안한다. 그 분의 가치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영적 삶, 그 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찬송 등을 음성으로 남겨 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분의 장례식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다. 송길원은 고인의 생애를 짧게 정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추모사도 제안한다. 하이패밀리 '천국준비교실'에선 노인들의 약사를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분의 사회적 위치와 지위가 아닌 '천국준비교실'에 참여해 스스로 삶을 평가한 내용을 장례식에서 읽어 유가족과 조문객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합동 추모예배를 드리며 고인을 추모하고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교회도 있다. 서울 소망교회의 원로목사인 박선희는 소망수양관 입구 바로 옆에 교인들의 유골을 모시는 소망동산을 두고 있다. 그곳은 약 3-40평 크기로 그 앞에는 '소망교회 성도의 묘'라고 쓴 묘비만이 세워져 있다. 소망교회 교인으로서 고인이 된 분들의 시신을 화장한 후 이곳에 뿌리는 것이다. 소망동산에 묻힌 고인의 유가족들은 언제라도 와서 추모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 추석 한 주 전에 합동 추모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에는 소망동산에 묻힌 고인의 유가족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까지 초청해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예배 후에는 추모 음악회를 연다.²³⁵⁾

지금까지 교회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 돌봄을 여러 차원에서 내용들을 제시하고 나누었다. 사람들은 결혼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한다. 자녀의 탄생을 위해서도 사전에 준비를 한다. 그러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듯하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야말로 죽음과 장례를 사전에 준비시킬 수 있다. 죽음과 장례는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목회의 영역인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앞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만들어서 죽음에 대한 돌봄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 3 절 임종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돌봄

목회자가 임종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목회자 역시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235) <http://hanjin0207.tistory.com/>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둔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임종자를 돌보는 것은 목회자로서 마지막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종자를 돌보는 가족 역시 돌봄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위로를 받아야 할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임종자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

사람들은 보통 ‘삶’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금기시하던 죽음이지만 일단 임종자가 되면 현실적으로 자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무척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런 처지에 있는 환자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 당혹한 마음을 완충시켜 주며 죽음과 정면으로 대면하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은 환자에게 구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죽음을 금기시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 연구했더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임이 밝혀졌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밖에 없다. 특히 병원에서 환자 목회를 담당하는 원목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²³⁶⁾

죽음이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면 죽어가는 상태는 삶에 있어서 한 영역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도 같은 것은 아니다.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임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그를 상담하는 목회자나, 가족, 친지에게 필요하다.²³⁷⁾ 목회자는 임종자에게 죽음과 삶은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죽음이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종말이 아니라 현세적 삶의 완성이며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출구이며 내세의 시작이라는 것을 임종자에게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의를 없어야 한다. 즉, 다시 살아도 지금까지 산 인생 이상을 살지 못한다는 통합된 느낌을 가지게 해 주어야 한다. ‘살아 있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삶에 대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고독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해야 하며

236) 한국원목협회, *병상을 두드리는 목회* (서울: 두란도서원 2002), 81-82.

237) 장동학, “임종환자에 대한 이해와 신앙적 도움,” *교육목회*, 1994년 9월호, 87-88.

죽기 전까지 자기와 친밀감을 공유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유지되고 또한 회복되도록 해주어야 한다.²³⁸⁾

임종자에 대한 목회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첫째, 목회자는 임종자의 전인적 배려를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환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며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동참함으로써 임종자의 모든 사정과 복잡 미묘한 대인관계를 넓은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목회자는 임종자가 느끼고 있는 죽음의 아픔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목회자는 임종자가 죽음의 골짜기인 순례의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 보아야 하며, 죽음의 과정을 환자와 유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목회자는 임종자의 임종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유가족들에게는 죽는 자가 남긴 아름다운 추억을 소중하게 아끼면서 이 세상을 밝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는 의지와 힘을 갖게 해 주어야 한다. 넷째, 목회자는 임종자에 대해 기민한 감수성이 요구된다. 즉 임종자에 필요에 대해서 그의 주된 불평이 무엇이며, 독특한 사람으로서 그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죽어가는 사람은 슬픔, 죄의식, 불안, 공포, 우울, 신체적 통증과 더불어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다. 임종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것은 격리상태이며 자신이 버려져 있다고 생각되는 고독감이다. 이때 목회자는 그러한 감정을 해결해주고자 주의 깊게 들어 주는 귀, 힘을 북돋아 주는 한마디의 말, 너그러운 용서, 힘 있는 손, 부드러운 미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일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종자에게 목회자는 그 의미와 목적과 성취감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일은 ‘임종자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어디에 섰는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수용함으로써 의미와 성취감을 찾게 하는 종교적 차원을 발견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가능하다.²³⁹⁾

더 나가서 목회자가 직접적으로 임종자와 대화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²⁴⁰⁾ 첫째는 목회자가 죽음을 어떻게 풀어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분야에 속한다. 단지 죽음은 죽음으로 존재할 뿐이며 현실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도와줄 상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임종자와의 면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능한 짧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다.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환자를 피곤

238) 장동학, “임종환자에 대한 이해와 신앙적 도움,” 88.

239) 김정숙, “위기극복을 위한 목회상담 연구” (한국임상목회대학원, 1992), 63-65.

240) 정정숙, *흐리는 세월 속에서*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9), 208-10.

하게 하므로 가능한 짧게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는 목회자가 상담자로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부담을 느껴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임종자와 가까이 있어야 하며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임종자가 말을 먼저 꺼내게 하며 그의 말에 공감을 표시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이 어설픈 위로의 말보다 훨씬 중요하다. 넷째는 임종자의 병에 대한 질문 자체를 화제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 곧 임종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 근본적으로 왜곡된 생각을 할 때에는 솔직한 대화를 통하여 교정시켜 주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임종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 부정하면 대면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는 병이든 후에 임종자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이야기하며 기대하고 실망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함께 토론해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일곱 번째는 목회자에게 질문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 혼자 절대적 상담 위치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일에는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족, 친구, 의료진들과 늘 협조하는 체계 속에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는 갑자기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죽음은 본인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당혹스럽게 외롭게 죽을 것이 아님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아홉 번째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입원비, 치료비, 사고 보험료, 기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 관심과 도움도 필요하다.

한편, 목회자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임종자에 대한 상담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정을 시도하여야 한다.²⁴¹⁾

첫째는 이해하라. 죽음이란 이 땅에서의 삶을 총결산하는 것이다. 임종자의 삶이 인간답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필요하다. 목회자가 임종자를 상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종자를 이해하는 일이다. 임종자는 절박한 두려움 속에 있다. 죽음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고 두려워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생겨나는가에 대해 앞에서 소개하였던 캘리포니아 주 립대 정신과 교수인 패티슨은 그 이유를 여덟 가지로 설명했다. 가족과 친지를 잃는다는 두려움, 신체를 잃는다는 두려움(부패, 소멸), 자기 지배능력(자제력) 상실의 두

241) 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배다니, 2003), 563-568.

려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 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 퇴행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²⁴²⁾

이와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임종을 앞둔 임종자를 이해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 이에 목회자는 억지웃음을 띄우고 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관심사를 밝혀야 한다. 자신의 관심사를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임종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목회자는 임종을 앞둔 임종자와 게임을 하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목회자는 임종자에게 자기가 환자의 입장에 서 있음을 알려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가 자기 병의 실상, 즉,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이것을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임종자의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임종자로 하여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청하라. 임종을 앞둔 임종자에게 성경의 긴 구절을 읽고 설교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환자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경청하여야 한다. 즉 그의 사정을 조용히 들어주고, 그의 고민과 고통을 들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경청은 성경이 교훈하는 방법이다(잠 18: 13).

임종자는 그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 여기서 경청은 환자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hear)이 아니라 임종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종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들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은 환자에게 안정을 주게 된다.

셋째는 권면하라. 죽음이 임박한 임종자에게 목회자가 취해야 할 중요한 임무는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일이며, 이미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소망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목회자는 권면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목회자는 궁극적으로 문제의 핵심, 즉 구원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확신을 가지

242) 한국원목협회, *병상을 두드리는 목회*, 82-83에서 제인용.

게 해야 한다. 여기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수적이지만 목회자의 권면을 통하여 복음을 수용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고백의 단계에서 소망의 단계로 환자를 이끌어야 한다. 우리의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권면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는 기도하라. 임종자를 위한 목회자의 기본적 출발은 기도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사람의 말이나 노력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임종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목회자와 임종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많은 말보다 조용한 묵상과 애정 어린 눈길, 그리고 따뜻한 손을 통한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은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환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실 수 있다. 또 목회자는 임종자에게 영적 확신과 구원, 그리고 가족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 기도의 동역자 들에게도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임종자를 마지막까지 계속적인 보살핌과 지지(care and support)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용납되지 않는 기분들을 인정하여 주고 평안을 가지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의학적, 종교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죽음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담담하게 자신의 임종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미련을 버리고 좋은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잘 대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⁴³⁾

2. 임종자에 대한 목회적 배려와 돌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인간 생명의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 주었다. 죄가 그리스도를 죽게 하자마자 하나님은 곧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예수를 부활시켰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요, 인간의 승리이다. 즉, 그리스도는 죄에 떨어져 추악한 상태에 있었던 인간생명의 회복을 위해 고통을 당했고 수모를 겪으시다가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영광 중에 부활시켜서 만인의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바로 여기에 죽는 이를 위한 목회자의 확신과 돌봄의 근거가 있

243) 한국원목협회, *병상을 두드리는 목회*, 88.

다.²⁴⁴⁾ 목회는 인간 영혼을 돌아보는 일인데 특히 목회자는 병상에서의 언제나 죽음에 의해서 특별한 형식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목회자이다.²⁴⁵⁾ 그러므로 목회자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간 영혼은 인간 속에 있는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죽음을 포함하는 영혼육의 전인으로서의 영혼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목회는 하나님을 위한 전인의 성화를 과제로 삼는 것이다.²⁴⁶⁾ 그러기에 목회자는 삶의 한 부분으로서 육신의 임종과 구원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됨에 인식하여 이런 근거에서 돌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죽음을 맞는 임종자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나약한 면모가 잘 나타난다. 아무리 자기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있다 해도 공포와 확신, 의혹과 희망, 용기와 좌절의 소용돌이 속에서 번민하게 된다. 목회자는 이 모든 것을 어설프지 않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특히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보다 삶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살았을 때 가졌던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이 나타난다.²⁴⁷⁾ 죽음이란 적어도 이 세상 안에서의 실존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손실이다. 그래서 오로지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나타남으로 그들에게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고귀하고 인간생명을 얻어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 죽음에 처해있는 임종자의 경우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 가는 가냘픈 생명에 대한 애착뿐인 것이다.²⁴⁸⁾ 즉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기모순과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인간은 한번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수긍하고 있지만 반면에 수긍보다는 이러한 사실을 거부하여 죽지 않으려는 행동이 나타난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대개의 경우는 임종자들 스스로가 자기의 죽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⁴⁹⁾ 심리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살 수 있다는 가느다란 희망 때문에 그 작은 희망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만은 죽음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살고 싶기

244) Howard J. Clinebell, *현대목회상담*, 박근원 역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79), 219.

245) E. Thurneysen, *목회학 원론*, 박근원 역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79), 219.

246) Ibid., 44.

247) E. Kubler Ross, *죽음과 임종에 관한 의문과 해답*, 이인복 역 (서울: 나사렛 성가원, 1992), 63.

248) 박근원, *실천신학 사전* (서울: 기독교지혜사 1984), 196.

249) Ross, *죽음과 임종에 관한 의문과 해답*, 43.

때문에 이런 희망을 가지는 한 쉽사리 자기가 죽으리라는 생각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임종자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지 하는 욕망이 앞서고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죽음의 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때가 많다. 그렇지만 반면에 임종자들은 자신의 죽음의 운명 앞에 무엇인가 위로와 위안을 받고 싶어 하고, 죽음을 수궁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 임종자들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또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한다. 이럴 때 임종자들에게 죽음의 불가피성과 죽음의 의미를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같이 하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어야 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이가 목회자이다.²⁵⁰⁾ 임종자가 주위에 많은 사람 중에서도 임종자가 목회자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때 목회자의 위치와 역할은 죽어가는 이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인간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허덕이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음과 대면하게 될 때에 그와 더불어 고통을 나누고 죽음이 갖는 실존적 의미를 해석해 주는 일은 역시 목회자의 임무라고 하겠다.²⁵¹⁾

그러므로 태아의 출생순간이 중요한 것이라면 죽음은 제 2의 탄생이 될 수 있으므로 죽음은 중요한 순간이며, 첫 출생을 거드는 일이 산파의 역할이라면 제 2의 출생을 돕는 일은 목회자의 역할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임종자에게 진정으로 인격적이고 동정적인 도움을 베풀 기본자세를 습득해야 하고, 임종자에게 용기와 함께 희망을 갖게 하여 미지의 상태인 죽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의 치리규범에도 이러한 중요한 역할이 목회자들의 본분임을 제시하여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모든 소시민들에게 교회와 목회자는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갱신하면서 목회자들은 용의주도한 관심을 가지고 친히 임종자들을 방문하여 애정을 쏟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야 말로 자기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²⁵²⁾ 그러므로 임종자를 대할 때 목회자가 알아야 할 것은 죽음의 법칙은 만인에게 공통된 우주적인 것이지만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만이 가지는 특수한 지상적 삶의 마무리임을 알아서 그에게 인간적 도움을 제공하고 끝까지 인간관계를 제공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야 할

250) Greshake, *죽음보다 더 강한*, 63.

251) Ibid., 64.

252) Ibid., 65.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단지 좌절이나 단절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고 은총과 구원의 때이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기회가 되고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임을 인식시켜 주님께 대한 희망과 믿음의 자세를 갖도록 준비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목회자는 임종자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동행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주님의 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길의 체험을 위한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신비의 실현임을 믿게 해야 한다.²⁵³⁾

다음으로 목회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죽음이 임박한 자가 자기 탓 없이 그의 주변세계에 널려 있는 악한 세력의 희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즉, 죽음에 임박한 임종자가 아무런 위안도 체험하지 못하고 버려져 있고, 보살핌도 받지 못하거나 무엇보다도 미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정황에 따라서는 목회자들에게서조차 그의 영혼이 처지와 관련된 천국, 지옥 등의 피안세계에 빠지게 될 때,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위협을 당할 때 환자는 자기 탓과 상관없이 어두움의 세력에 희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²⁵⁴⁾ 그러므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현세적 사랑으로 동참하여 교통을 지속하고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주며 기도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종자의 심리와 그 변화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임종목회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중병에 걸린 환자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만 대부분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있으면 그 모든 두려움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있음이 확실하다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환자의 암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서슴지 말고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좋다. 흔히 사람들은 불길한 암시를 할 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아무 걱정 말고 마음 폭 놓고 있어라”고 위로하는 말을 한다.²⁵⁵⁾

그러나 그것은 위로하는 말 같지만 사실 임종자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흔히 자기의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심리에서 나오는 행위이며 목회자로서는 절대로 취할 태도가 아니다. 기독교의 임종목회는 조용한 가운데

253) 홍인태, *기독교의 죽음 이해와 목회자의 역할*, 113.

254) Vorgrimler, *죽음*, 138-139.

255) Ibid., 141.

데 임종을 지켜보면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간절한 위로와 기도를 들어야 한다. 이처럼 무겁게 내려 누르는 순간에 목회자는 임종을 맞이한 사람에게 인간적 단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목회자를 위시하여 임종자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이해심과 진정한 사랑이다. 임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명석한 훈계나 박식한 경험이나 무슨 질문을 해와도 일사천리로 대답하는 언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참을성 있게 환자 곁에 머물면서 임종자의 하소연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진정한 이해심과 동정심으로 응대하는 일이다. 이러한 태도만이 다음의 손길에도 마음 문을 열어준다.²⁵⁶⁾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죽어 가는 이들에게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임종의 자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 의하여, 죽음의 압박을 은폐 해버리지 아니하는 태도에서, 그리고 사랑과 관심의 표시에 의하여 전달된다.²⁵⁷⁾

따라서 목회자가 잊지 않고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임종자에 대한 목회자의 궁극적 임무는 그의 구원을 위한 목회적 배려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임종자를 위한 배려는 항상 구원을 위한 목회적 배려를 전제로 하여 목회적 배려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²⁵⁸⁾ 즉, 목회자는 무엇보다 임종자가 자기의 죽음을 의식하고 구원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과 치유

목회자는 또한 임종자뿐 아니라 임종자 가족에게도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목회자를 찾아오거나 또는 방문을 환영하는 이유는 목회자에게 병을 치료할 의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고쳐야 할 의사가 속수무책이고 죽음이 라는 거대한 폭군 앞에서 자신들은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⁵⁹⁾ 대개 직업적으로 남을 돕는 사람들, 즉 의사나 상담가들은 사별로 인한 고통과 고뇌 앞에서 완벽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판에 박힌 말과 태도를 보일 위험이 많다. 그들이 애통

256) Vorgrimler, 죽음, 124.

257) Greshake 종말신앙, 64.

258) 홍인태, 기독교의 죽음 이해와 목회자의 역할, 104.

259) Oden, 목회신학, 421.

과 상례를 인정하고 격려해야 하겠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들 자신이 그 전에 경험했던 죽음과 손실에 대한 미해결의 고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서도 속수무책이 된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지만 역시 이별이고 앓음이며 슬픔이다. 이 상황은 본질적으로 정신적 이탈이나 정신 질환이 아니라 극복이 필요한 시련이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실의 모양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견디기 어렵고 힘든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야 하는 남은 가족들의 고통이다. 여기에는 먼저 가신 분을 향한 죄의식과 슬픔, 죽음에 대한 분노, 마음의 허탈감과 공허감, 인간의 무력감 등으로 찾아오는 깊은 우울증과 함께 약물로서는 치료하기 힘든 심신증(心身症)을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얹혀져 있어 사별의 비애가 얼마나 큰 후유증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참으로 비통스러운 현실을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러한 교우들을 돌보아야 할 것인가? 말로는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고, 믿음과 기도라는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비통해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달래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상실을 당사자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²⁶⁰⁾

유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서 교만함이나 우열을 보이는 동정은 좋지 않다. 대부분 유가족들을 명백한 사실뿐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있는 것까지도 기꺼이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과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는 진심어린 위로와 공감을 원한다. ‘당신의 기분을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행동이다. 당사자들이 아닌 이상 그들의 기분이 어떤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겪은 것과 매우 유사한 느낌일 뿐이다. ‘지금이 정말 당신에게 힘든 시간일 것 같네요’라며 당사자가 힘겹게 극복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 기분을 물어 볼 수도 있다. 진정으로 상대방 말을 들어주고 함께 하기 원한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또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군요.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라며 망설여지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²⁶¹⁾

일반적으로 사별 이후 유가족의 치유 과정을 충격과 애통, 그리고 회복의 세 가지 단계로 보고 있다.

첫째는 충격이다.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된 유가족들의 충격을 살펴보면 유가족

260) 윤상철, *가족상실과 위기상담* (서울: 도서출판 한글, 2003), 33-34.

261) 한국원목협회, *병상을 두드리는 목회*, 107.

들은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순간 강한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처럼 감정의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상실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하며, 불길한 예감을 사로잡혀 고생한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멍하기도 한 상태가 반복적으로 찾아온다. 이 시기의 유가족은 조용한 곳에 혼자 있고 싶어 하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으며, 입맛을 잃어버리고, 외모를 잘 가꾸지 않아 멍청하게 보이며, 구토를 하며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²⁶²⁾ 그러므로 이때 선부른 위로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충격을 받고 멍해진 그에게 무슨 말이 들리겠으며, 무엇이 정상적으로 느껴지겠는가, 어설픈 위로나 충고는 하면 할수록 상실감의 여러 감정들이 내면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다만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가 받은 충격이 감정을 타고 나오는 거친 말들을 비판이나 편견 없이 지금 현재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다. 가족상실이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사람에게 절실한 도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함께 있어만 주어도 커다란 힘이 되어준다.²⁶³⁾

그러므로 목회자는 육체적인 충격에 대처하되, 안정되게 하고 몸을 따스하게 해주는 것이다. 당연히 슬퍼해야 하는 것을 막는다던가, 외롭게 떨어져 있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병적인 현상을 일으키거나 온갖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목회자는 유가족으로 하여금 마음껏 이야기를 하게 해주어야 한다. 털어놓고, 말하고, 불평을 하고,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것, 또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필요한 일이다. 목회자는 유가족이 갖는 고인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 등의 기분을 사별의 정상적인 부분으로써 받아들여 주고 이해하여 줄 때 참다운 치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저 곁에 있으면서 조용히 상을 당한 유가족을 위하여 평상시에 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살피 줌으로, 유가족이 마음껏 애통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특히 유가족이 허약한 순간에 정기적으로 접촉을 함으로써 어떤 위로를 제공할 수 있다.²⁶⁴⁾

상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장례식을 치른 직후가 가장 효과가 좋다. 이때는 최초의 혼란과 추억은 사라지고 에타는 상실과 고통이 가장 심하다. 이때는 변화된 생활에 적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을 당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갈망한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유가족이 말하고, 울고, 발버둥 치게 놓아두어야

262) 오성춘, *목회상담 사례분석* (서울: 한국장로회출판사, 2003), 106.

263) 윤상철, *가족상실과 위기상담*, 186.

264) 김정숙, “위기극복을 위한 목회상담 연구,” 65.

한다. 그리고 속을 털어놓고 감정을 드러내게 하되, 목회자는 그의 말벗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목회자는 그들의 제반 문제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적격자이다.²⁶⁵⁾

특별히 기독교 장례식에서는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구속적 사랑과 장차 있을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기독교 교리들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다.²⁶⁶⁾ 따라서 죽음에 관계된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비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로 대부분 마음을 가다듬고 참관하게 된다. 즉, 이 순간은 자연스럽게 기독교 예식과 접하게 되는 시점으로, 여기서는 준비된 장례식서²⁶⁷⁾에 따라 인간 존재에 대한 신앙관이 사실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순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죽음과 관련한 말씀을 통하여 숙연한 마음속에 부활과 내세에 대한 구체적 희망을 소개하는 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 임종에서 장례를 다 마칠 때까지는 평소에 자주 접촉하지 못하고 어색하던 임종자 가족 친지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죽음이라는 사건을 두고 대화를 나누면서 개인 전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 기독교 장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봉사정신, 그리고 어려운 때 협력하는 모습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엄숙한 순간 열려진 마음들 속에 기독교의 중심 복음인 부활의 희망으로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애통이다. 애통 그 자체는 사별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다. 다만 그것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을 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교역자는 유가족들의 이성 없는 행동 등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애통 가운데 나타나는 퇴행을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는 방도의 하나로 보고 이해하여 주어야 한다. 주요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목회자는 유가족의 어떠한 요구든 이해하고 요구를 건설적으로 나타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책감이나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경감시켜 준다. 애통의 시기에 유가족에게는 그의 심각한 감정의 갈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목회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유가족은 이웃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림으로 유가족에게 어떠한 변화가 오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며, 유가족의 내부에서 일

265) 기독교목회자료연구소, *인간성장상담* (서울: 도서출판 기쁜날, 1996), 519.

266) Veatner, *죽음의 문제*, 51.

267) 임택진, *기독교가정의례지침*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1), 91.

어나는 불안감과 죄책감, 상실의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시키게 하며, 유가족으로 하여금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경험 했던 과거지사들을 이야기하게 하면서, 유가족에게 메여 있던 상실의 대상과 감정의 끈을 풀어내며, 유가족의 감정에 격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만일 애통의 시기에 이러한 교역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 유가족은 애통의 단계에서 완전히 회복의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정신질환을 얻게 될 수도 있다.²⁶⁸⁾

특별히 유가족들에게 목회자가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정말 알아주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목회자는 남는 이를 향하여 감정이입의 상태가 되어야 하고, 특히 상대방의 모든 처지를 나의 것으로 완전히 수용해야 한다.²⁶⁹⁾ 또한 유가족들 보기에 목회자가 위선적이 아니고 순수성과 성실함을 가지고 돌보고 있음을 느끼도록 변함없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영적인 돌봄이 중요하다. 돌봄은 기도로 시작하고, 경청과 공감을 통하여 유가족들의 문제가 어느 정도 분석되었을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다시 기도로 마치는 게 좋다.²⁷⁰⁾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각 단계에 따라 권면과 기도를 적절히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목회적 돌봄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셋째는 회복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6개월이나 1년이 지나가면, 유가족은 지금도 그의 속에 남아 있는 자원들을 사용하여 자기를 구성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며 상실 자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자 한다.²⁷¹⁾

회복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유가족의 삶의 재구성은 과거 삶의 가정의 회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의 도약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오랜기간 슬픔의 과정 중에 유가족은 자신의 도덕성에 심각한 회의를 경험하며,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제한성도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지금까지 중대한 의미를 가져왔던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유가족의 삶의 바탕을 흔들어 버린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는 생각까지

268) 오성춘, *목회상담 사례분석*, 108.

269) 김옥라, *호스피스*, 180.

270) 오성춘, *목회상담 사례분석*, 201-202.

271) Ibid., 108.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삶의 질문들은 유가족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도 재구성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민감성을 가지고 그들의 심각한 삶의 질문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있는 목회자는 유가족의 삶을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도약케 하는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애도의 절차도 몸이 치유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슬퍼하는 사람의 상처가 서서히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목회자는 계속하여 그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기념일, 생일, 추도일 등 마음의 아픔이 되살아나기 쉬운 날에는 특별히 위로자의 손길이 필요하다.²⁷²⁾

또한 유가족을 도와줄 때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들로 하여금 만족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유가족은 죽은 사람과 함께 자신 속에 있던 좋은 점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재조정하고, 또 새로운 애착의 대상을 발견하는 일이 무척 힘들게 느껴진다. 그것은 임종자에 대한 애매한 감정과 증오에 의한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감정이다. 목회자는 이러한 유가족을 인내력을 가지고 돌보아주고, 깊이 이해해주며,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오히려 인생이 가치가 있고 뜻있는 인간관계가 아직도 가능하다는 새로운 자신감을 주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슬픔의 골짜기에도 소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상실감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사람도 상실감을 생각지 않는 시간이 늘어간다. 잠도 잘 자기 시작하고 음식 맛도 되찾으며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 시작한다.²⁷³⁾

목회자는 죽음과 사별이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나 불문하고 찾아오는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일깨어 주어 빨리 사별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예방적인 조치로서 훌륭한 것은 죽음과 사별이 인간에게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목회자가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과 치유는 성경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과 6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272) 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575.

273) Ibid., 575-576.

게 할지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아픔과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목회자가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자는 죽음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를 논하였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및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죽음을 완성하는 선물이 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회 안에서 목회적으로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부분을 각 장별로 내용을 요약하고 몇 가지를 제안하며 논문을 맺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절인 죽음의 일반적인 이해에서는 생물학적 죽음에 대해서 의학적 노력은 죽음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지나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고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심리학적 죽음 이해는 인간이 죽음에 대해 인간의 본성과 심리구조를 통해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목회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학적 죽음의 이해는 죽어야 한다는 공포에서 오는 삶의 의미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런 일반적인 죽음의 이해를 통해서 다양한 목회적 접근과 돌봄이 필요하게 됨을 인식할 수 있었다.

2절에서는 발달단계로 인식하는 죽음에 대해 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죽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유아기는 죽음을 단순히 꿈을 꾸는 것으로 이해하고, 아동기는 죽음의 종결성과 보편성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아동기 후기에는 좀 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토론하고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며, 죽음이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죽음준비교육을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새롭게 생명의 소중함과 생의 의미를 제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성인기의 죽음은 청소년기와 달리 죽음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죽음을 직면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체감하면서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접촉의 양이 증가됨으로 실천적인 죽음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년기의 죽음 이해는 실제로 죽음에 직면하거나 임박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가장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라는 점을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죽음을 비롯한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여러 종교의 죽음 이해로 무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무교는 죽음을 재난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식하며 현대인들에게 부정적 죽음관을 형성하였고, 죽음을 좀 더 의연한 자세로 맞이하면서 삶의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요구된다. 유교의 죽음 이해는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을 기반으로 하고, 삶과 죽음의 문제는 대자연의 법칙에 의한 신귀(神鬼)의 과정으로 이해되어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돌려지고 있다. 모든 것이 이치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는 질서를 강조하면서 그 이치로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 불교의 죽음 이해는 죽음을 일종의 해탈이라고 받아들이며 자신이 모든 사물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 무아(無我)가 되는 것을 죽음으로 본다. 이슬람의 죽음 이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돌변으로 본다. 죽음은 인간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주는 풀 수 없고 풀리지 않는 무명실의 매듭과 같은 존재로 본다. 그리고 내세관을 죽음의 매체를 통해 새롭게 고양된 삶의 양태로 발전시켰다.

종교적 죽음 이해는 모든 종교가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구조를 속세에 두고 욕망에서 풀려나서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개념은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궁극적인 목표이고, 종교의 지고한 목표도 된다. 그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의 갈망이다.

3장은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타난 죽음과 신학자들의 죽음 이해를 살펴보았다.

먼저, 1절에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죽음의 이해는 죽음은 일반적으로 생명의 자연

적인 경계선이고 생명의 유한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의 모든 관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요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구약성경은 죽음을 보편성과 허무함으로 보며,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과 축복으로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2절의 신약성경에서 죽음이해는 죽음의 문제가 부활사건으로 극복됨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고 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잠자는 것과도 같으며 이 문을 열고 하나님 계신 정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출발의 과정이라고 정의 하였다.

3절에서는 신학적인 죽음이해로 신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극복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에는 모두 같은 의견이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해 죽음이라는 세력은 파멸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이에 동참할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예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통하여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올바른 부활의 개념과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보다 충실한 삶으로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태도를 살펴보았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이요, 그 보증이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묵은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말하였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부활신앙에 동참함으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됨을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모든 삶이 완전하고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에 성도들은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깨어 기다려야 한다.

5장에서는 목회자의 죽음교육과 목적은 목회적 역할로 임종자 뿐만 아니라 유가족에

게도 해당되며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인격을 지니고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1절에서 다른 죽음준비교육에 있어서 기독교적 접근 방식은 발달단계에 맞는 죽음의 교육을 제공하여, 어느 세대도 죽음의 교육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준비교육의 목표와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에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절에서는 임종자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목회자보다 더 적격인 자는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봉사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간구원이라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지속하는 자로서 목회자가 베푸는 배려가 구원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과 장례는 목회자가 포기할 수 없는 목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3절에서는 유가족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으로 임종자를 돌보는 가족 역시 돌봄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위로자라는 것이다. 특별히 유가족들이 사별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남은 삶을 성숙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일은 정말로 귀한 사역이다. 목회자의 유가족들을 향한 돌봄과 치유는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사실이다.

사실, 그동안 죽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회적 정서로는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 들어와서 목회자는 교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례를 집행하는 정도로, 그리고 유가족을 위해서 위로하는 심방 정도로 모든 것을 끝내고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목회자는 단순히 장례를 치르는 형식에서 벗어나 복음의 본질인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이 목회자가 서야 할 자리라는 것과 이에 새로운 목회적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사명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앞에서 논의한 죽음준비교육과 목회적 돌봄을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의 제언을 하면서 본 논문을 맺고자 한다.

첫째, 죽음준비교육이 각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단계별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에 대한 이해와 돌봄이 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확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생애

주기별 발달단계의 죽음에 맞추어서 목회적으로 어떠한 돌봄이 필요한지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즉, 각 발달 단계에 맞는 죽음준비교육이 세밀한 커리큘럼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매체시청과 현장학습, 좌담회, 토론회 등의 다각적인 학습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해야 효율적인 교육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보인다.

둘째, 임종자와 남아 있는 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인간은 모두가 언젠가는 임종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항상 개인적 종말인 죽음을 생각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죽음과 삶을 연관 지어 생각하게 함으로 죽음에 대한 교육이 바로 삶에 대한 교육임을 깨닫게 하여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 더 나아가 남아 있는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남아 있는 이들이 자신의 삶에 더욱 책임 있게 살 수 있도록 죽은 이와와의 관계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가 된다.

셋째, 목회자들의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목회의 많은 일정들 가운데 최우선의 사역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도들을 돌보는 일 중에 죽음을 맞이한 가정을 돌보는 것만큼 큰 돌봄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리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라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목회적 사역보다 죽음에 대한 교육과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목회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죽음준비교육의 사역을 펼쳐나가야 한다. 목회자의 목회 개념의 전환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개념의 전환도 필요하다. 목회자가 죽음에 대한 설교 말씀으로의 돌봄과 예전을 통해서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임종예비교실과 다양한 죽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장례식 지침도 만들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죽음이 삶의 변두리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삶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두려움과 공포의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죽음준비교육이 교회공동체를 넘어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밀접한 지역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일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임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목회자들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으로 전환하여 유가족들에게 돌봄의 손을 펼치는 사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교회마다 지역을 돌보는 공동체로서 역할에 대한 의식의 확장이 필요하고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열린 사역으로 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사회와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교육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연결할 수도 있고, 동 단위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기별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민들을 위하여 구청,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다.

일곱째,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다. 죽음준비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 개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지도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사역을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죽음에 대한 관심과 사역을 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니면 노회별로 특정한 사역자를 양성해서 교육을 확대해 간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을 섬기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더 나아가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과감한 재정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의 교육이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이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계신 정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새로운 출발이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고 희망의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목회자가 임종자에게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평안한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일과, 유가족들이 사별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회복되어서 남은 삶을 성숙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일은 정말 귀한 사역이다. 목회자는 이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섬김과 돌봄으로 다가서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목회자와 교회공동체가 죽음에 대한 교육과 돌봄의 사역으로 지역사

회를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접겨 나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와 교회공동체 안에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정원으로 펼쳐지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

부록 1

장례예식 해설²⁷⁴⁾

* 임종예식 해설

1. 죽음의 준비

돌발적인 사고나 급환으로 죽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환자가 죽음을 예상했거나 죽음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될 때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다.

(1) 신앙적 준비: 부활신앙과 내세관을 통해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게 한다. 마지막 순간을 회개와 기도로써 보냄이 바람직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품에 위탁하도록 도와야 한다.

(2) 가족의 준비: 유서를 작성하거나 유언을 녹음해 둔다.

(3) 장례를 위한 준비: 장례사 교섭, 장지 확보, 수의, 사진 등을 준비한다.

2. 임종

사람의 호흡이 정지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고, 한 사람의 운명을 지켜보는 것을 임종이라 한다. 불의의 사고나 급병에 의한 죽음이 아닌 때라면 가족들이 모여 임종하는 것이 좋다. 소속 교회의 목회자가 함께하면 더욱 좋다. 임종 전, 본인이 애창하던 찬송이나 원하는 성구를 봉독하는 것이 좋다.

3. 시신의 처리(가정에서 처리할 경우)

(1) 집례자는 준비물들을 확인한다(솜, 백지, 봉대, 나무판자(고정판), 홀이불, 병풍, 고인의 사진, 상, 향로, 향, 촛대, 초, 꽃병, 조화, 녹음기 등).

(2) 시신이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방의 온도와 습도를 맞춰야 하며, 소독과 위생에

274) 총회예식서개정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배 예식서*, 398. 부록1에 제시하는 장례예식 해설(임종예식 해설, 입관예식 해설, 발인예식 해설, 하관예식 해설)에 대한 부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배 예식서를 사용했고, 부록2에 나오는 예매순서와 말씀들은 개인적으로 목회의 현장에서 사용했던 자료들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유의한다.

- (3) 적당한 높이의 베개로 머리를 바로 잡는다.
- (4) 숨이나 백지로 턱밑을 고여 입이 열리지 않게 하고, 흐트러진 머리를 손질한다.
- (5) 귀, 코, 입 등을 숨이나 백지로 막는다.
- (6) 시신이 굳기 전에 팔, 다리의 관절들을 가볍게 주물러 편다.
- (7) 백지나 봉대로 무릎과 두 발을 함께 당겨 매고, 팔과 두 손을 모아 배 위에 얹어 놓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백지나 봉대로 묶는다.
- (8) 시신을 나무판자 위에 얹는다.
- (9) 흙이불이나 흰 천으로 시신을 머리까지 덮는다.
- (10) 성구나 성화가 있는 병풍으로 시신을 가린다.
- (11) 병풍 앞에 작은 상을 놓고, 그 위에 고인의 사진, 꽃, 촛대, 그리고 향로를 놓는다.
- (12) 고인의 즐겨 들던 것들을 위주로 찬송이 들리도록 준비한다.

4. 임종 후 절차

(1) 시신 처리가 끝나면, 가족들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한다. 흔히 근조(謹弔)라고 쓰인 등으로 상가 입구에 달아 놓거나, 상중(喪中) 또는 기중(忌中)이라고 쓰인 종이를 붙여 초상을 알린다. 가족들은 우선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 매장 또는 화장 허가를 받는다. 이때 사망진단서나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은 목회자와 장례절차(입관식, 장례식, 하관식 등)에 대해 논의한다.

(2) 상제, 주상, 주례, 호상을 선정한다. 상제는 고인의 자녀들, 주상은 상제를 대표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대개 맏아들이 맡게 된다. 주례는 상제의 의사에 따르지만, 대개 고인이 섬긴 교회의 목사가 맡는다. 호상은 고인이나 친척 중에서 선정하며, 주례의 지시에 따라 상사 일체를 총괄한다.

5. 부고

장례일과 장지가 결정되면 곧 부고를 보낸다. 부고는 친척과 친지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신문지상의 부고로 이를 대신하기도 한다.

<보기>

“○○○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교회의 성도 ○○○ 장로께서

○○○○년 ○○월 ○○일 ○○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장 - ○○교회 및 상가

시간-○○년 ○○월 ○○일(○요일) ○○시

주례-○○○목사

상제-○○○

호상-○○○

장지-○○○묘지

○○○○년 ○○월 ○○일

호상 ○○○

귀하

* 입관예식 해설

‘입관’이란 한국적 장례문화의 일부분으로, 염습한 시신을 관속에 넣고 함봉하는 절차이다. ‘염습’이란 시신을 씻고 수의를 입힌 뒤 홀이불(연금)로 싸서 한지나 삼베(염포)로 묶는 일을 말한다. 특별한 상황, 즉 법적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입종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 입관한다. 시신을 거두는 일은 장의사가 하지 않을 경우, 집안 어른 혹은 교우의 도움을 받아 목회자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씻김

- (1) 집례자는 시신을 앞에 두고 유족을 향하여서 간단한 기도를 드린 후 행한다.
- (2) 집례자는 모든 준비물을 확인한다.
- (3) 집례자의 인도에 따라 시신 좌우에 두세 사람씩 앉는다.

- (4) 흠이불을 벗기고 손이나 발을 묶었던 봉대나 백지를 제거한다.
- (5) 남성이 경우는 남상주가, 여성인 경우는 여상주가 앞가리개(군포)로 가리며 하의를 벗긴다.
- (6) 상의를 벗긴다.
- (7) 알코올이나 향수 또는 깨끗한 물을 수건에 적서 시신을 닦아 낸 후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 (8) 빗으로 머리를 빗기고, 긴 손톱을 자른다. 머리카락과 손톱은 따로 종이에 싸서 입관 시 넣을 수 있다.
- (9) 흠이불로 시신의 머리와 수족을 완전히 덮는다.

2. 수의 입히기

- (1) 집례자는 염습위원의 도움을 받아 수의를 입힌다.
- (2) 간단한 기도와 찬송 후에 진행할 수 있다.
- (3) 수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지, 허리띠, 버선, 대님, 행전(남자), 저고리, 치마(여자), 두루마기, 손싸개, 면모(머리싸개), 수의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인이 입던 옷 가운데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 (4) 먼저 기저귀를 채운 후 손과 발을 창호지로 싼다.
- (5) 버선과 손 싸개를 끼운다.
- (6) 바지를 입힌 뒤 허리띠를 묶는다.
- (7) 속옷, 저고리, 두루마기를 미리 겹쳐서 한 번에 입힌다. 시신의 허리와 다리를 들고 다리 쪽으로부터 머리 쪽으로 입히되 팔을 상의에 끼우면서 입힌다.
- (8) 턱걸이를 채우고, 머리싸개를 덮는다.

3. 입관

- (1) 일반적으로 입관은 수의를 입힌 후 이어서 진행한다.
- (2) 관을 놓을 자리를 선정하고, 관을 쉽게 들어 옮기기 위해 정상 목을 준비한 후, 그 위에 관을 올려놓는다.
- (3) 관에 백지를 깔고 요를 깬 후, 시신을 안치한다. 이때 시신을 옮기기 위해

필요 하다면 백지로 필요한 부분을 묶었다가 풀 수도 있다.

(4) 관의 빈 곳을 백지나 짚 혹은 솜 등으로 채운 후, 이불을 덮고 관의 뚜껑을 덮는다.

(5) 뚜껑은 머리 부분을 열어 둔 채 입관식을 드린 후, 머리싸개를 열고 마지막으로 유족들에게 보게 한다. 그리고 머리싸개를 덮고 관을 완전히 봉한다. 상황에 따라서 관을 봉한 후, 입관식을 할 수 있다.

(6) 관이나 묘 안에 부장품을 넣어 매장하지 않음이 좋고, 고인이 쓰던 찬송가나 성경 등의 유품은 고인을 추모할 때 사용하도록 잘 보관한다.

(7) 입관을 마친 후, 봉띠를 묶어 운구가 편리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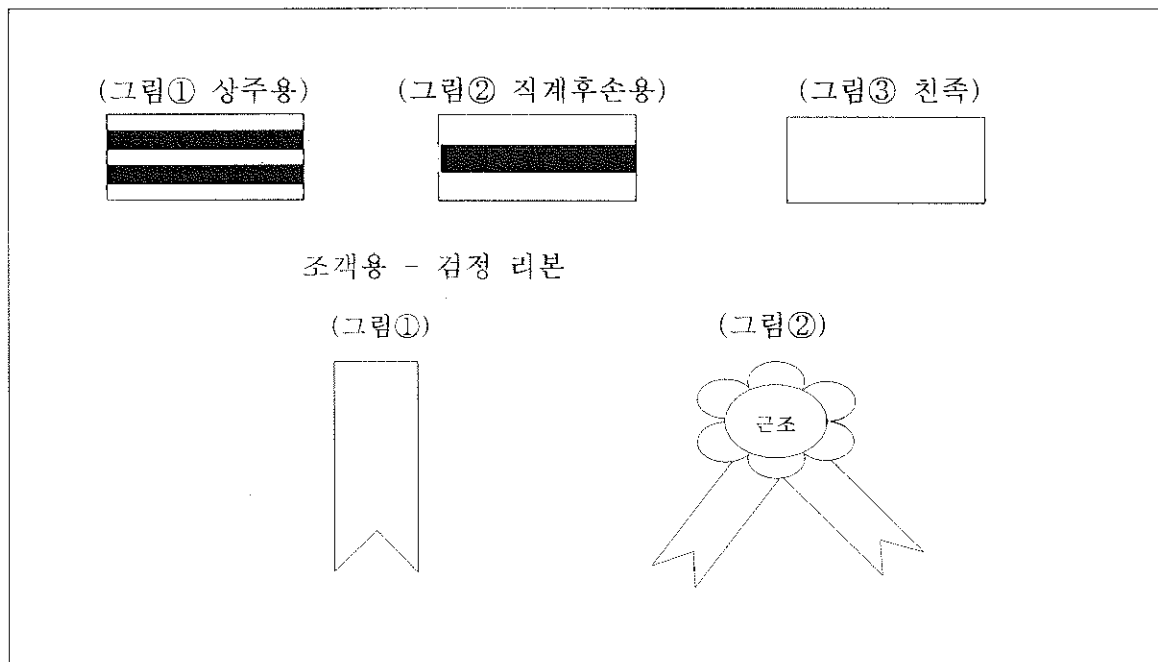
(8) 입관 후 관(棺)은 구(柩)라 칭한다.

(9) 십자가 표시가 새겨진 관포를 씌워 구가 나갈 때까지 안치한다.

(10) 입관이 끝나면 병풍이나 휘장을 뒤로 물리고 옆에 붉은 색 천에 금, 은빛으로 고인의 이름을 쓴 명정을 걸어 놓을 수도 있지만, 기독교 절차에는 흰 천에 붉은 색 십자가 표시로 관보를 만들어 관을 덮어 두는 것으로 대신한다.

4. 상복

간소하고 정결한 옷으로 하되 가급적이면 검은 옷이나 흰 옷이 좋겠다. 평상복에 상장을 패용할 수도 있다.



5. 빈소와 문상

- (1) 임관식 후에 시신이 안치된 곳을 빈소로 정한다.
- (2) 상제들은 빈소에서 문상객의 조의를 받는다.
- (3) 상 위에는 검정 리본을 두른 사진과 고인이 애독하던 성경과 찬송가를 놓는다.
- (4) 상주는 고인의 사진을 향하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위치한다.
- (5) 문상객은 고인의 사진이나 유품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 유가족과 정중한 인사 나누며 위로한다.
- (6) 문상객은 고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향을 피우거나 헌화할 수 있다.
- (7) 문상객은 남자의 경우 넥타이를 포함해서 가급적 검정이나 흰색의 옷을 입는다.

6. 문상객 인사의 예

1) 신자의 경우

- (1)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 (2) 당하신 슬픔에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3) 슬픔 중에 부활의 신앙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불신자의 경우

- (1) 상사 말씀 무어라 드릴 수 없습니다.
- (2) 친상을 당하여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 (3)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부모 상인 경우)
- (4)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손아래 상인 경우)
- (5)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손아래 상인 경우)

3) 상주의 대답

- (1) 바쁘신 중에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문상 예절

1) 복장

가급적 검정이나 흰색 옷을 입는 남자인 경우 넥타이만이라도 검은 것으로 맨

다. 부득불 화려한 복장일 경우 장례식장 뒤편에 자리를 잡고 남의 눈에 띄이지 않게 몸가짐을 삼간다.

2) 조의금

흰 봉투에 전면에 ‘부의’ 혹은 ‘근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등으로 쓰고, 드리는 이의 이름을 그 아래에 쓴다.

<보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보기>

근 조

○○○

* 발인예식 해설

1. 지침

- (1) ‘영원히 보지 못한다’ 라는 의미의 ‘영결식’ 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2) 장례는 3일장을 원칙으로 하고, 장례일이 주일이 되지 않게 2일장 또는 4일장으로 조절할 수 있다.
- (3) 장례식장은 형편이 허락하면 교회당이 좋으나 가정이나 병원도 무방하다. 특별히 목회자나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교회당에서 장례예식을 행하는 경우, 성찬대의 위치에 구를 모시도록 준비한다. 구가 교회 밖에 오면 목사가 구를 맞이하여, 그 구를 모실 자리까지 인도한다. 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조문객들은 정중히 일어나 맞이한다.
- (5) 구를 정한 자리에 모시고 장례 순서를 맡은 이와 유가족은 구 옆에 자리를 정

해야 한다. 형편에 따라 호상, 운구위원, 찬양대, 조문객의 위치를 적절히 배치한다.

(6) 장례식 순서를 맡은 분들은 미리 정해서 알리고, 가급적 순서지를 작성해서 조문객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7) 장례식은 정중하고 엄숙해야 한다.

(8) 검정 리본을 준비해서 조문객에게 부착하도록 한다.

(9) 운구위원들은 가급적 교인으로 하고, 운구행렬은 사진(영정), 집례자, 영구, 상제, 친족, 문상객 순으로 구성한다.

(10) 운상 시에도 인위적인 울음이나 곡은 삼가고, 찬송을 부르며 행진한다.

(11) 상여를 사용할 때에는 간결하게 꽃을 장식한다.

* 하관예식 해설

1. 지침

(1) 하관은 장의차나 상여에서 구를 내려 광중(殯中, 구를 묻기 위해 파 놓은 구덩이)에 넣는 절차이다.

(2) 광중 지실(地室)은 사전에 의뢰하고, 장례 예식 전에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3) 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묘소 가까운 곳에 구를 안치하고, 유족은 구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조문객들의 문상을 받는다.

(4) 산역이 끝나고 지실이 조성되었으면 구를 지실로 운구한다. 이때 운구위원들은 정중히 운구하고 봉뒤편을 풀어 그 줄로 하관한다.

(5) 하관을 한 다음 관이 움직이지 않게 주위를 흙으로 채우며 관위에 명정으로 덮고 하관식을 거행한다.

(6) 집례자는 지실 위쪽에 고인의 사진을 든 사람과 함께 묘소 중심에 서고, 상주와 유족은 지실 오른쪽에 서며, 조객들은 왼쪽이나 그 뒤에 서게 한다.

(7) 취토(흙을 구위에 뿌리는 행위)할 때에는 집례자가 한 후 유가족, 조문객 순으로 하되, 석관을 할 때에는 횡대를 마지막으로 덮고, 그 위에 명정으로 덮은 다음 취토를 위의 순서대로 한다.

(8) 분묘(광중을 채우고 흙으로 봉분을 만든 후 잔디를 입히는 절차)하는 것을 끝

까지 보는 것이 좋으나 사정에 따라 산역하는 자에게 맡기고 하산해도 무방하다.

(9) 비석은 소박하게 하되, 전면에는 십자가 표시와 고인의 직분과 이름, 성구를 기록하고, 후면과 좌우 측면에는 고인의 생년월일, 돌아가신 연월일, 유자녀의 이름 등을 기록한다.

2. 장례 후의 일들

장례를 마친 후 문상해 주신 분들에게 서면으로 인사드리는 것이 좋다.

<인사장 보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의 장례 때 보여 주신 귀하의 사랑과 정성은 슬픔에 잠긴 저희 가족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으신 사랑을 바랍니다. 부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년 월 일

상제 ○○○

(혹은 유족) ○○○

3. 비석

비석은 전면에 십자가 표시와 고인의 이름을 새기고, 후면 및 좌우 측면에 고인의 생년월일, 소천 연월일, 유자녀의 이름 등을 새긴다. 성구나 묘비명을 지어 새길 수도 있다.

부록 2

각종 장례예식 순서

1. 임종예배 순서

예식사 ----- 집례자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녀, ○○○(성도, 직분명)의 임종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 다같이
 기도 ----- 집례자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 직분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품안에 안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 받는 몸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이 땅에서 소명을 다했습니다. 주님 영혼을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고, 유가족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계시록 21:1-4 ----- 다같이
 권면과 위로 ----- 천국은 어떤 곳인가? ----- 집례자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번은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알고, 그 분의 뜻을 알고 살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이란 좁게 말하면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영혼들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은 성도들에게는 안식의 장소요(히 4:9), 영광의 장소요(고후 4:17),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장소입니다(계 21:3). 천국은 하나

남의 정원이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1) 밤이 없습니다. 밤은 어두운 때로서 흑암과 죄악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밤은 위험합니다. 주님의 영화로운 빛이 천국의 구석구석을 비취시므로 밤이 없습니다. 2)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많이 생겼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온갖 고통과 불안이 팍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이 심해서 빨리 죽게 해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과 불안을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이런 질병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3) 죽음과 슬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이 손 못 대는 사람이나 가정이란 이 세상 아무 데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쓰라린 상처와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4)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자식 때문에 건강문제로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반면에 천국에 있는 것들은 사람의 말로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 천국은 거리마다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열두 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도성입니다. 2)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슬픔과 근심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 행복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항상 들려오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온갖 생명 과일이 다달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던 일에 천 배를 더해도 천국만 못합니다. 3)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내 집, 내 가정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느 곳에 여행을 하다가도 내 집, 내 가정에 들어와야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완전한 안식이 있는 집이 있는 곳입니다. 4) 천국에는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으로 살아오신 생애에 대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이문을 열고 하나님계신 보좌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직분명)은 무엇보다도 천국을 사모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슬픔이 가득하지만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 도 ----- 집 레 자

하나님 아버지, ○○○(성도, 직분명)님이 이 땅에서의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과 우리 모두가 이 슬픔과 아픔을 세상적으로 위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고통과 슬픔과 근심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 행복만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동산인줄 믿습니다. 이 행복한 동산에서 고인된 ○○○(성도, 직분명)을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모든 장례 절차가운데도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유가족과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모시게 하시고, 슬픔 속에서도 위로가 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은혜로운 장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다 같 이
축 도 ----- 집 레 자

지금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고인을 여의고 슬픔 속에 있는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절차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진행되어지도록 돌보시고 은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 입관예식 순서

예 식 사 ----- 집 레 자
지금부터 고 ○○○(성도, 직분명)의 몸에 새 옷을 입히고, 관에 고이 모시는 입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 송 ----- 491장 잠시 세상에 내가 ----- 다 같 이
기 도 ----- 집 레 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섭리에 순종하여 엄숙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오나 막상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인의 육신의 몸을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관에 모시오니 영혼을 아버지 품속에 고이 품어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슬퍼하는 유가족들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위로해 주

시고 궁핍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성경봉독 ----- 고린도후서 5: 1-9 ----- 다 같 이
 권면과위로 -----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 집 레 자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고인을 입관하는 예배입니다. 입관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고인의 얼굴은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고인의 사랑과 섬김을 생각할 때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관에 모시는 것이 죄송할 뿐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사랑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관예배는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출발의 옷을 입는 시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는 죽음을 말하지만 믿음 안에 산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요 11:25).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태어나서 자기의 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자기의 집을 짓고 산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좇아서 명예의 집을, 어떤 사람은 권력의 집을, 어떤 사람은 돈을 좇아 돈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인은 영원한 집을 짓고 사셨습니다. 세상의 집은 무너질 집이지만 믿음으로 짓는 영원한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인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습니다. 그리하기에 오늘 고인은 육신의 무거운 짐, 피로운 짐을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마지막 흠으로 돌아가시지만 영혼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 영원한 집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집입니다.

오늘 입관을 하고 다시 얼굴을 볼 수 없는 현실 앞에 슬프지만 영원한 집에서 하늘의 평안한 안식과 천국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새 옷을 입는 예식임을 아시고, 오늘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출발의 시간으로 기도하며 하늘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후에 고인을 따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도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모든 유가족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 도 ----- 집 례 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죄의 사죄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으면서 우리는 고인의 몸을 관애 고이 모십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인의 얼굴을 이 땅에서 마지막 대하였사오니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고, 특별히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셔서 마음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다 같 이

축 도 ----- 집 례 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을 대하고 입관을 하고 슬픔에 있는 유가족들과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 장례예식 순서 (발인예식)

예 식 사 ----- 집 례 자

지금부터 고 ○○○(성도, 직분명)의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조객 여러분은 정중한 조의와 엄숙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송 ----- 610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 다 같 이

기 도 ----- 다 같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의 장례식이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출발식이 되게 하시고, 영원과 이어지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성경봉독 ----- 고린도전서 15: 12-20 ----- 다 같 이
 권면과 위로 ----- 부활의 생명 ----- 집 례 자

우리는 지금 고 ○○○(성도, 직분명)의 장례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유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고향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하는 이 땅은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나그네 인생은 기쁘던 슬프던 곤고한 일을 만나든 언젠가는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면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소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머무는 것만 생각하고 영원한 고향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믿음의 길이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열어 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고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부유해도, 예수님 없는 삶을 산 사람은 본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방랑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고인 ○○○(성도, 직분명)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고 본향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믿음의 새 옷을 입으셨습니다. 고인께서는 이제 고통과 고생과 아픔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요계 14:13)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발인예배에 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 속에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을 뽑으라면 처음으로 세상에 만유인력의 원리를 알린 아이작 뉴턴을 뽑게 됩니다. 뉴턴은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 천문학자, 광학자, 자연철학자, 연금술사, 신학자 등 다재다능한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 뉴턴이 나이 많아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 유명한 과학자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자기 나이도 자기 이름도 모릅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물론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 천재적인 과학자에게 말도 안 되는 너무도 기가 막혀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은 도대체가 무엇을 아십니까?”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일세.”

오늘 우리가 고인 된 ○○○(성도, 직분명)의 장례식에서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비록 내 생일 내 이름을 잊어버릴 지라도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은 절대적으로 어느 한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뉴턴의 고백처럼 “또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모두가 이 일에 다 증인이라”(행 2:32)며 순교하던 제자들처럼 일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이후에 주님 품안에 안기는 날까지 부활의 그 신앙의 내 삶의 축이 되고 구심점이 되고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없이 슬프고 비통한 날이지만, 또한 영적인 생각으로는 부활을 향한 새로운 하늘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복된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고인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떠나 보내야 하는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 되는 시간임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 대상작인 ‘어머니’ 라는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티끌하나 주지 않는 걸인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 도 ----- 집 레 자

위로의 하나님,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이 참으로 안개와 같고,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앞에 마음에 눈물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는 고인을 고통과 고생과 아픔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영원한 품으로 안아 주심을 바라볼 때 위로를 얻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늘은 한없이 슬프고 비통한 날이지만 또한 영적인 생각으로는 새로운 하늘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복된 날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날, 우리 모두 즐겁게 만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이 땅에 남은 우리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한층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헤쳐나갈 강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고인께서 주님을 한평생 사랑하신 그 헌신의 삶과 눈물로 기도한 대로 가정의 자손이 더욱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의 가정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인예배를 드리고 산소에 모실 때까지 앞으로 남은 모든 장례 절차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역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 가 ----- 말 은 이
고인 약력 소개 ----- 말 은 이
고인의 덕행을 중심으로 소개한 후, 상황이 허락된다면 자유롭게 일어서서 고인에 대한 의미 있는 기억들을 나눌 수 있다.

찬 송 -----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 다 같 이
축 도 ----- 집 레 자

이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저희 곁에 늘 가까이 계셔서 세움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이제 고인의 장례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 사 ----- 말 은 이
호상 또는 유가족의 대표가 나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남은 절차에 대해 광고를 한다.

4. 하관예식 순서

예 식 사 ----- 집 레 자
지금부터 고 ○○○(성도, 직분명)의 하관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같이 정숙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 송 -----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 다 같 이
기 도 ----- 집 레 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고 ○○○(성도, 직분명)의 육신을 이곳에 안장하고자 합니다. 그의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위로의 주님! 사랑하는 고인을 보내야 하는 유가족들과 여기에 둘러선 우리 모두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 부활하여 기쁨으로 다시 만날 소망과 믿음을 주시옵

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5:24-29 ----- 다 같 이
 권면과 위로 -----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 집 례 자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나가게 됩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진 자도 못 가진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모두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세상에 태어난 자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땅에 안장합니다. 이제 고인된 ○○○(성도, 직분명)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슬픔과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결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작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고인은 주님의 재림 시 주 앞에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섭섭함을 감출 수 없지만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며 사셨고,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묻히고 썩은 후에 새싹이 땅 위로 올라오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육체는 이곳에 안장되어 한줌의 흙이 되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어 땅에 묻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지금 우리는 관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관을 내려놓는 것은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출발식이 되어지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유가족과 성도 여러분, 부활의 때에 사랑하는 고인을 다시 만나게 됨을 소망하며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살도록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 도 ----- 집 례 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사랑하는 고인을 안장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모

든 짐을 벗겨 주신 주님께서 고인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고인과 몸으로는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슬퍼하며 눈물짓는 유가족들과 우리 모두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며, 우리 모두다 부활의 희망을 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피차 삶과 죽음, 이곳과 저곳으로 갈라져 있사오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데는 하나가 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한 교통이 항상 계속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할 것을 믿으며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고인을 안장합니다. 부활의 때까지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실 살 것을 확신합니다. 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취 토 ----- 집례자와 유가족 및 친지
(횡대를 다 덮은 후 주례자, 상주, 또는 장례식에 참여한 친지 중에서 흠을 조금씩 횡대 위에 던진다. 그 후 주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고 ○○○(성도, 직분명)의 영혼을 부르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육체를 땅 속에 안장합니다. 흠은 흠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장사지낸 고 ○○○(성도, 직분명)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고별기도 ----- 집례자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 ○○○씨를 장사하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고인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슬픔을 감출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모든 유가족들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친척과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 480장 하늘가는 밝은 길이 ----- 다 같이
축 도 ----- 집례자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변

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고인을 주님의 나라에 보내고 슬픔과 외로움에 있는 유가족들과, 여기에 모인 모두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그날 아침 함께 만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 화장 장례예식

예 식 사 ----- 집 레 자
지금부터 고 ○○○(성도, 직분명)의 화장 장례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같이 정숙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 송 -----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 다 같 이
기 도 ----- 집 레 자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 ○○○(성도, 직분명)의 화장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는 길을 막을 수 없음에 애통하며 이제 고인을 한 줌의 재로 하나님께 돌려 드림에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떠난 고인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으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고인을 반겨 맞아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육신은 언젠가 한 줌의 재로 돌아가야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성경봉독 ----- 시편 90: 3-4 ----- 다 같 이
권면과 위로 -----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 집 레 자

오늘 우리는 사랑하던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사랑을 나누던 그 사람이 이제 한 순간에 주검이 되어 다시는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분토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이지만, 그러한 현실 앞에 마음은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리에 와 있다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육신이 다 타서 없어지고, 뼈가 가루로 변하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감히 희망을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여전히 다시 살 것을 말하는 다른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에스겔서 37장 3-4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감히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에스겔처럼 이렇게 대답할 뿐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사랑하는 유가족과 성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거나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시 살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지는 날 고인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육체의 이별이 아쉬운 슬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고의 짐을 벗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고인을 바라보며 소망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만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 도 ----- 집 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고인을 화장을 하며, 부활의 때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한층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는 생애가 되도록 은혜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고정훈. *해탈의 금자탑*. 서울: 우미출판사, 1985.
- 기독교 목회자료연구소. *인간성장상담*. 서울: 도서출판 기쁜날, 1996.
- 김경숙. “위기극복을 위한 목회상담 연구.” 한국임상목회대학원, 1992.
- 김광식. *기독교 신앙의 본질*. 서울: 전망사 1983.
- 김균진. *죽음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_____. *헤겔과 바르트*.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 김기대. *무가에 나타난 한의 승화*. 서울: 창, 1993.
- 김대동.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죽음의 의미와 상담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 김두리. “기독교 관점에서의 죽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 김문조. “사회적 죽음에 이르는 실직 사태.” *사목* (1998).
- 김미령. “청소년이 인식하는 죽음에 관한 주관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2007.
- 김미자. *짧은 만남 긴 이별 영원한 만남*. 서울: 새순출판사, 1996.
- 김분한. *호스피스와 실제*. 서울: 수문사, 1995.
- 김성순. *노인 복지론*. 서울: 삼우출판사, 1981.
- 심상태. *그리스도와 구원*. 왜관: 분도출판사, 1981.
-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 _____. *요한복음 강해*. 서울: 두란노, 2001.
- 김승혜 외.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창, 2001.
- 김영환. “죽음에 대한 사목적 배려”, *신학전망* 1975, 겨울
- 김열규, 김석수, 박선경, 허용호, *한국인의 죽음과 삶*.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 김옥라. *호스피스*. 서울: 수문사, 1990.

- 김외식. “죽음과 사후의 삶에 대한 실천신학적 접근.” *폴빛목회*. 1997년 12월호.
- 김인자. *죽음에 대한 심리적 이해*.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1984.
- _____. “죽음에 대한 의식과 교육의 필요성.” *기독교교육*. 1991년 10월호.
- 김일순. *의료 윤리*. 서울: 연세대 출판부, 1987.
- 김정우. “죽음과 삶.”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 대학원, 1983.
- _____. *죽음의 이해*. 대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영성신학연구소 1995.
- 김정위. “이슬람에서 본 죽음.” *월간 광장*. 1988년 9월호.
- 김종은. “죽음의 정신의학적 고찰.” *사목*. 1980년 7월호.
- 김주태. “죽음의 이해와 임종자를 위한 목회적 돌봄.”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7.
-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1981.
- 김해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지침서*. 서울: 현문사, 1998.
- 남은영, 장연집. “아동의 죽음 불안 감소를 위한 죽음대비교육의 효과.” *아동학회지* (1999).
- 문영석. “해와 죽음학의 동향과 전망.” *종교연구 33집*.
- 문희석. *구약성서의 인간학*. 왜관: 분도출판사, 1976.
- 박근원 편. *라마예식서*. 서울: NCC, 1988.
- 박봉량. “죽음과 죽은 자의 부활.” *기독교사상*. 1980년 4월호.
- 박석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 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2. (1991).
- 박수암. *신약성서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 박승균. *호스피스 철학*.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4.
- 박양운. *그리스도와 힌두교 불교*.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7.
- 박원섭. *세례 문답과 해설*.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7.
- 박창환. “개신교에 있어서의 세례.” *사목*. 1975년 5월호.
- 반피득. *목회상담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 방수동. “기독교적 죽음교육.” 기독교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6.
- 배영기. *죽음학의 이해*. 서울: 교문사, 1992.

- _____.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죽음의 세계*. 서울: 교문사, 1997.
- 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박과사전*. 서울: 교문사, 1983.
- 서경보. *종교란 무엇인가*. 서울: 분도출판사, 1999.
- 서광성. “칼 라너의 죽음의 신학.” *기독교사상*. 1972년 4월호.
- 서혜경. *노인죽음학개론*. 서울: 경춘사, 2009.
- 안효욱. “안락사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 영남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양옥경.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울: 나남출판사, 2001.
- 오성춘. *목회상담 사례분석*. 서울: 한국장로회출판사, 2003, 106.
- 유영주. *가족 발달학*. 서울: 교문사, 1992.
- 유현진. “고등학생의 죽음태도 및 학교에서의 죽음준비교육.”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유희욱. “중노년기 죽음불안태도.” 박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04.
- 윤상철. *가족상실과 위기상담*. 서울: 도서출판 한글, 2003.
- 윤허용. *불교사전*. 서울: 동국역경원, 1973.
- 은준관. *기독교 교육 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 이기영. “불교에서 본 죽음.” *광장*. 1998년 9월호.
- 이기춘. *돌봄의 신학*. 서울: 감신출판사, 2001.
- 이대건. “임종자에 대한 교회의 봉사.” *기독교교육*. 1991.
- 이병찬. *웰다잉교육의 이론과 실재*. 서울: 효사랑, 2010.
- 이슬람연구소. *무슬림은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5.
- 이옥순, 심혁주, 김선자, 이평래, 선정규, 이용범. *아시아의 죽음문화: 인도에서 몽골까지*. 서울: 소나무, 2010.
- 이용원. *무엇을 믿을까요?*.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이원호. *죽음에의 대비교육*. 서울: 문음사, 1995.
- 이은봉. *여러 종교에서 보는 죽음관*. 서울: 카톨릭출판사, 1999.
- 이이정. “노인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개발연구.” 박사 학위 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4.
- _____. *죽음학 총론*. 서울: 학지사, 2011.

- 이인복.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의식의 사적 연구*. 서울: 열화당, 1979.
- 이일철. *죽음의 윤리*. 서울: 문지사, 1983.
- 이장호. *불교는 인간이다*. 서울: 삼세원, 1987.
- 이재영.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 연구* 19집.
- 이정희. “개념형성 및 그 중재효과에 관 아동의 죽음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동아대학교대학원, 1988.
- 이정희. “아동의 죽음개념 형성 및 그 중재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1988.
- 이종성. *종말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 이호선. *노인상담*. 서울: 학지사, 2005
- 임진옥. “죽음 준비 상담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8.
- 임택진. *기독교가정의레지침*.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1.
- 장동학. “임종환자에 대한 이해와 신앙적 도움.” *교육목회* (1994).
- 성 염. *임종을 위한 교회의 사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2.
- 정용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 *그 말씀*, 2012년 3월호.
-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솔로몬, 1996.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4.
- 정정숙. *흐리는 세월 속에서*.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3.
- _____. *기독교 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3
- 정한교. “죽음의 신학.” *신학전망*. 1975년 5월호.
- 조계화, 이윤주, 이현지. *죽음학 서설*. 서울: 학지사, 2006.
- 조규만. “죽음.” *신학과 사상*. (1997).
- 조명옥. “노인이 인식한 죽음의 의미와 준비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색사례연구.” *한국노년학*.
- 조정옥. *성 아오스딩에 의한 인간 및 하느님*. 효성여자대학교, 1991.
- 종교교육위원회. *현대인과 기독교*.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 천선영. “근대적 죽음이해에 대한 유형적 분석.” *카톨릭사회과학연구* (2000).
- 총회예식서개정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배 예식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 최숙향.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6.
- 최순남. “임종에 영향을 주는가.” *기독교 사상*. 1983년 4월호.
- 최창근. “인간의 죽음과 부활신앙의 역동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 최태영. *죽은 자의 부활*. 서울: 장로회출판부, 1997.
- 추진규. “임종을 지키보면서.” *빛과 소금*. 1986년 11월호.
- 하은영. “죽음에 대한 심리와 종교.” *기독교사상*. 1971년 10월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죽음” 항목. 재판.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한국원목협회. *병상을 두드리는 목회*. 서울: 두란도서원 2002.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사전 마가복음*. 서울: 제자원, 2000.
- 현은민. “노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연구지* 10집.
- 홍인태. 기독교의 죽음 이해와 목회자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 황계하. *죽음의 의미와 죽은 자의 부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학원, 1997.
- 황성규. “바울의 죽음이해.” *기독교사상*. 1982년 4월호.

2. 번역서적

- Barth, Karl. *죽은 자의 부활*. 전경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Brothers, Joyce. *홀로 남은 이를 위하여*. 김옥라 역. 서울: 우진출판사, 1992.
- Cullmann, Oscar. *영혼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전경연 편역. 오산: 한신대출판부, 1991.
- Gardmen, David. *진아여여(眞我如如): 스리 라마나 마하리쉬의 가르침*. 사문대성 역. 서울: 자기탐구회, 1998.
- Kasper, Walter. *예수 그리스도*. 박상래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1.
- Ladd, George. Eldon. *The Last Things. 마지막에 될 일들*.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92.
- Mauris, Rawlings.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변진협, 윤향연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6.

- Möltmann, Jurgen. *예수 그리스도의 길*. 김균진, 김명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_____. *오시는 하나님: 기독교적 종말론*.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Muller, Allois. “임종자에 대한 교회의 사목.” *사목*. 1975.
- Nigel, Barley. *죽음의 얼굴*. 고양성 역. 서울: 예문 2001.
- Nouwen, Henri J. M. *상처입은 치유자*. 이봉우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5.
- Pittenger, N. *죽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이범석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2.
- Pohlmann, Horst G. and Abriss der Dogmatik. *교의학*. 이신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 1993.
- Ross, E. Kubler. *죽음과 임종에 관한 의문과 해답*. 이인복 역. 서울: 나사렛 성가원, 1992.
- Stone, Howard W. *위기 상담*.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 Thurneysen, E. *목회학 원론*. 박근원 역.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79.
- Turnvel, Ralp G. *유가족 상담*. 박근원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1.
- Thurneyse, Eduard. *목회학 실천론*. 박근원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 Veatner, Rolein. *죽음의 문제*. 김선우 역. 김포: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6.
- Volf, Hans B.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3.
- Vorgrimler, Herbert. *죽음*. 심상태 역.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1.
- Walber, Smith. *이것이 천국이다*. 손주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구보라 하라시. *불교와 기독교 무엇이 다른가?*. 서울: 나침판사, 1998

3. 외국 서적

- Anderson, Ray S. *Theology, Death and Dying*. New York: Basil Blackwell, 1986.
- Kastenbaum, R.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 Ohio: Bell & Howell Company, 1986.
- Moberg, David O. *The Nature and Needs of Older Adults*. Birmingham: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4.
- Pancoast, Diana. *The Church's Ministry With Families*. Dallas: Word Publishing,

1990.

Soulen, Richard N. *Care for the Dying*.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Waters, Brent. *Dying and Death*. Cleveland: United Church Press, 1996.

Vita of
Ho Jin Kim

Present Position:

Chaplain of Youngkwang Girls' High School, Gunsan

Personal Data:

Birthdate: October 7, 1974
 Marital Status: Married to Jung, Yun Mi with one son,
 Sung Min
 Home Address: 101-1402 Green Jangmi Apt. Jang Dong,
 Gunsan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March 13, 2007

Education:

B. A.: Hanil Presbyterian University, Jeonju, 2001
 M. Div.: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Gwangju, 2004
 M. Ed.: Yonsei University, Seoul, 2006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3

Personal Experience:

2011 to present: Chaplain of
 Youngkwang Girls' High School
 2008 to 2010: Assistant pastor
 of Wolgwang Church, Gwangju